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신이 아는대로 진실을 말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4월 25일)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한국불교 문화유산 세계화 사업 '박차'

파리 등지서 韓불교 문화행사 잇달아

신성민 · 임은호 기자

유네스크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와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등 한국불교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행사가 해외서 잇달아 열린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함께 5월 19일부터 파리와 낭트 등지에서 한국관광문화대전 불교문화 특집 행사를 개최하고 연등회와 직지 등 한국 불교문화를 홍보하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9월까지 연등회 특별전
燈 제작 강습도 진행해
연등회 미디어아트 선봬
직지 홍보 행사도 진행
'르꼬르동 블루' 본교와
협약 맺고 사찰음식 강의

연등회보존위원회는 9월 16일까지 진행되는 '빛나는 색의 불교 축제,연등회' 특별전을 통해 다양한 전통등을 프랑스인들에 알린다. 특별전에는 전통등 제작 강습을 비롯해 연등회 가상 퍼레이드와 등불 축제를 주제로 한 NFT 미술 전시회 등도 선보인다. 또한, 연등회를 주제로 하는 미디어 아트도 6월 30일까지 공개된다.

5월 20일 '직지' 불어 번역본을 발간한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5월 25일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직지 발간기념식' 과 대중강연회 등 홍보 활동을 펼친다.

'직지' 는 인류 인쇄기술의 혁명이라 알려진 쿠덴베르크 '42행 성서' (1377년)보다 78년 앞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직지' 는 상권과 하권으로 발행됐는데, 현재 상권은 전해지지 않고 하권이 프랑스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보관돼 있다.

'직지' 는 선불교 깨달음의 정수를 뽑아 수록한 불교유산임에도, 그동안 그 가치에 대해 인쇄기술과 서지학적으로만 부각돼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계종은 2005년에 국문과 영문 '직지' 번역본을 발간하고, 2021년 번역본 재발간을 통해 직지' 의 내용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해왔다. 이번에 불어 번역서를 출간한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프랑스에는 유네스코 본부가 위치해 있고 '직지' 원본이 보관돼 있기도 해 불어 번역서 출간에 의미를 더한다.

조계종은 발간 기념식 후이어지는 강연회에서는 '직지' 불어 번역을 담당한 파리대학 브뤼느통 야닉(Bruneton Yannick)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조계종 사회부는 "'직지' 원본이 있는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로 번역된 '직지' 출간 기념회와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직지의 역사성과 한국불교 우수성이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 사찰음식도 미식의 나라 프랑스 사람들의 입맛을 매료시키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5월 12일부터 프랑스 파리 그랑 펠레(Grand Palais)에서 열리는 '테이스트 오브 파리(Taste of Paris)' 에 참가해 한국의 사찰음식을 세계인에게 알렸다.

또한 문화사업단은 5월 17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르꼬르동블루 파리본교와 한국 프랑스 간 음식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한국 사찰음식에 관한 교육 사업 발전을 위한 3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르 꼬르동 블루 본교의 채식전문과정(Plant-Based Culinary Arts)의 정규과목으로 사찰음식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음식을 먹는 과정 역시 수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찰음식의 정신이 외국인들이 특히 열광하는 이유"라며 "음식에 대한 이런 철학은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어느 나라에서든 보편적인 설득력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 큰 반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설안산 신흥사 회주 우송 스님(사진 오른쪽)을 비롯한 스님들이 향성선원 무문관에 결기를 보이며 입방하고 있다.

눈 푸른 납자들, 문 없는 문에 들다

신흥사 향성선원 무문관 첫 안거 결제 현장 가다

무문관 변모, 11명 방부 들여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도 입실
무문관 2곳 운영 유일한 본사



무문관으로 새롭게 변화한 설악산 신흥사 향성선원 전경.

불기 2566년 임인년 하안거를 맞아 5월 15일 전국 선원이 일제히 결제에 들었다. 눈 푸른 납자들이 오직 일대사 해결을 위해 각 선원에서 방부를 들인 가운데,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향성선원도 무문관으로 전환한 후 첫 안거에 돌입했다.

향성선원 무문관 개원으로 신흥사는 조계종 교구본사 가운데 유일하게 무문관 수행처 두 곳을 운영하게 됐다.

기존 신흥사 향성선원은 13명이 안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경내 대중과 관광객들이 오가는 길목에 위치한 까닭에 수행환경 조성에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회주 우송스님은 향성선원을 수행에 충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하고자 결단을 내리고, 교구대중들의 원력을 모아 무문관으로 전환했다. 또다른 한 곳인 백담사 무문관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수좌스님들을 배출해왔으며, 설악 무산 스님의 매 안거마다 방부를 들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올 하안거 신흥사에서는 향성선원 무문관 11명, 백담사 무문관 11명, 기본선원 30명이 방부를 들였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향성선원 무문관에는 재개원 불사를 주도한 회주 법검 우송 스님이 수좌 스님들과 함께 입방해 눈길을 끌었다.

회주 우송 스님은 무문관 입방에 앞서 "한동안 사중 소임과 여러 불사로 오랜만에 방부를 들이게 됐다"며 "생전 조실 스님은 산중불교와 대중불교 모두를 중히 여기셨다. 대중 속에서 살아 숨쉬는 불교를 위해 스님들의 정진을 항시 강조하고 당부하신 만큼, 무문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향성선원 무문관은 수좌 스님들의 수행에 어떠한 지장이 없는 환경에서 철저하게 자신과, 화두와의 싸움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매일 새벽 3시부터 정진하며 공양은 하루 한 끼, 오전 10시 50분 외호대중들이 배식구를 통해 제공한다. 모든 시간이 온전한 수행이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다.

스스로 정진에 매진할 수 있는 근기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첫 입방자는 구참수좌들이 주를 이뤘다. 입방자의 법납은 13년에서 57년까지 다양했으며, 최고령 스님은 세납 72세로 알려졌다. 무문관, '문 없는 문' 이란 의미가 고스란히 담긴 만큼, 방부를 들인 수좌 스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신흥사 관계자는 "정원을 넘어선 수좌들의 입방신청이 이어진 가운데, 사중회의를 통해 입방자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선원장 현탁 스님을 중심으로 용상방은 꾸려졌지만, 수행은 90일간 각자 정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외부와의 소통창구는 하루 한번 외호대중이 공양구로 전달하는 식사가 전부다.

결제일인 5월 15일 오전 10시, 신흥사 설법전에서 하안거 결제법회가 봉행됐다. 교구 대중과 신도들도 자리를 함께해 안거를 앞둔 52명의 수좌스님들을 향한 아낌없는 격려를 전했다.

결제법어는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의 생전 법문으로 대체됐다. 영상 속 설악 무산 스님은 "신흥사에 용성 스님의 선풍이 이어지고 있다면 백담사에는 만해 스님의 선풍이 살아 숨쉬고 있다"며 그 맥을 후학들이 이어가야 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특히 만해 스님의 법어를 인용해 수행을 통한 화두참구로서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시간 남짓 진행된 결제법회 후 기념촬영을 마친 스님들이 일제히 무문관에 들었다. 결연한 의지가 담긴 형형한 눈빛으로 문 없는 문을 연 11명의 스님들이 모습을 감추자. 외호대중들은 문 밖의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합장으로 수좌 스님들의 무탈한 정진을 발원했다.

〈종정 · 총림 방장 법어 5면〉

설악산 신흥사=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

“만해 스님이 선학원 설립?…의도적 날조 우려”

김광식 교수, ‘선학원 어제와 오늘’ 세미나서 주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선학원이 만해 스님을 설립조사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5년 전부터다. 역사를 뒤집고 왜곡하는 수준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선학원과 조계종과의 분열이 아니었다면 이런 주장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5월 12일 덕숭총림 수덕사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최 · 주관한 ‘선학원의 어제와 오늘’ 세미나에서 선학원의 설립조사 문제와 관련해, “명백한 역사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식 교수는 재단법인 선학원이 만해 스님을 설립조사로 주장하며 선양하는 문제와 관련, 이미 선행논문을 통해 만해 스님이 선학원 설립조사가 아님을 밝혀왔다. 창건 당시 감옥에 수감돼 있었고, 선학원 상량문에 만해 스님이 포함돼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날 김광식 교수는 후속연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 특히 1951년 선학원이 범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을 근거로 만해 스님의 선학원 설립조사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당 소송은 범어사의 덕성학원 매각을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선학원은 해당 재산이 1934년 범어사가 선리참구원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선학원의 재산임을 주장했고 재산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기부행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어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원심판결을 뒤집어 선학원이 승소했다.

김 교수는 선학원 前이사장 법진 스님이 4~5년 전부터 만해 스님이 선학원 설립조사임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이 소송의 2심 판결문을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데 이어, 새롭게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법진 스님이 만해 스님을 선학원 설립조사로 주장하는 근거는 2심 판결문 가운데 ‘만해 스님이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1921년 12월 출옥한 후,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사판계에 대응하는 이판계의 수도원을 창립했다’ 는 내용이다. 사실상 법진 스님은 이 판결문에서 만해 스님의 출옥 이후에 선학원 건립이 추진됐다는 내용을 토대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덕숭총림 수덕사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5월 12일 ‘선학원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만해 출옥 前 선학원 설립 합의
“찬동 서명 21명, 조계종 스님들
선학원·조계종 동질 집단 인정”

그러나 김 교수는 “상량문 등에 따르면 만해 스님은 선학원 창건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았고 만해 스님의 출옥 이전에 이미 선학원의 건립취지가 합의됐고 공사도 완료됐다”며 “기록상으로도 2심 판결문 외에 선학원 설립과 관련한 만해 스님의 행적은 전무하며 최종 판결문에도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만약 법진 스님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선학원의 공식적인 창건 시점도 1921년이 아닌 1922년으로 후퇴해야 하며, 이는 지난 100년간 공인돼 온 선학원 역사가 그 기원에서부터 부정을 당하게 된다”며 “최소한 설립조사로 인정되려면 물질적인 불사나 정신적인 불사에 기여 했어야 하지만 만해 스님의 행적을 살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오히려 만해 스님이 설립조사가 될 수 없는 정황이 2심 판결문을 반박하는 범어사측 주장에서 상당수 확인된다”며 “대표적으로 2심 판결문에서 만해 스님의 화주보살로 언급됐던 ‘최창운’이라는 보살이 실제로는 백용성 스님의 신도이며, 이를 입증하는 사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창운 보살은 실제 백용성 스님의 사료에 다수 등장하는 반면, 선학원 창건을 후원한 신도명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김 교수는 “법진 스님은 대법원 판결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해 스님을 설립조사로 주장하기 위해 2심 판결문 일부 문장만을 적출해 논고를 서술하는 등 자신의 논리(목적)을 위해 활용한 것”이라며 “본인이 1999년 선학원 분원장회의에서 강의를 할 때 만해 스님을 설립조사로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선학원이 만해 스님을 설립조사로 주장한 것은 조계종과 관계가 틀어진 후인 4~5년 전부터라는 점에서 선학원은 재산관리의 입장에서 만해 행적을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최근 선학원이 만해 스님을 강조하는 것에는 선학원과 범어사 · 수덕사가 법정소송을 한 이력, 선학원을 상징했던 고승(오성월, 백용성, 만공 스님)이 수덕사 출신인 점, 만해 스님의 민족운동 행적이 선학원의 정체성 홍보에 유리한 점 등에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표방을 위한 역사 만들기로 보기에는 실제 역사적 내용을 넘어서는 지나침이 있기에 상당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1967년부터 선학원 이사장 소임을 맡았던 대의 스님의 행적을 통해 당시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도 재차 짚었다.

김 교수는 “대의 스님은 취임일성으로 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선학원 운영노선을 발표하고 당대의 고승들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찬동문에 서명한 21명의 스님 모두가 조계종단의 큰스님들이었다”며 “이는 곧 선학원과 조계종단이 동질적인 집단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당시 선학원 분원의 주지(분원장)은 조계종 승려로만 발령한다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진제 前 종정예하, 세계평화 천도법회 연다

진제선세계화회 · 韓불교문화協
6월12일 부산영도 아미르공원서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 ‘천도’
수익금 불우 이웃 · 난민에 기부



조계종 前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사진〉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천도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을 펼친다.

(사)대한불교조계종진제선세계화회와 (사)한국불교문화협회는 “오는 6월 12일 오후 1시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옆 아미르 공원에서 세계평화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이하 천도법회)’를 불자와 시민 등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한다”고 5월 18일 밝혔다. 천도대법회는 금정총림 범어사와 팔공총림 동화사, 해운정사, 발원사가 주관 사찰로 참여한다.

조계종 13 · 14대 종정을 역임한 진제 대종사가 증명법사로서 나서는 천도법회는 국내 최고 권위의 무형문화재 스님들의 수륙대재와 함께 100여 명 남방 상좌부 스님들의 염불(Chanting), 3사 7증계사스님들이 영가들에게 계(戒)를 내리는 영가수계식, 전국불교연합합창단 1000명의 추모합창 등이 진행된다.

진제 대종사는 천도 법문 후에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내용의 평화 메시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법회에는 UN사무총장과 한국 주재 200여국 외교관들도 초빙되며, 전 과정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이번 천도법회에는 코로나19로 사망한 1500만 영가들의 위패를 국가별로 한 위패씩 특별제작하며 각종 재해와 전쟁, 산업재해, 범죄피해 등으로 목숨을 잃은 고혼을 가리는 위패도 봉안된다.

진제 대종사는 “전 세계적 유행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1500여만 명이 사망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이들 영가를 인도하기 위해 천도대법회를 구상했다”고 법회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1700여 년의 유구한 한국불교 역사에서 왕실과 국가는 사찰, 민간과 더불어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천도법회를 봉행해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해 왔다”면서 “최상승의 간화선법으로 일체의 희생영령들을 천도해 안으로는 국태민안을 밖으로는 세계평화를 이루는 계기를 만들겠다.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회 접수 동참금은 영가 1위당 1만 원으로, 수익금 전액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지원 및 국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051)746-2256

신성민 기자

태고종 봉원사, 우크라이나 평화 위해 영산재 봉행

6월 6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대면 공연으로 진행

한국불교 태고종 신촌 봉원사 소속의 영산재보존회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봉원사 마당에서 영산재를 봉행한다.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봉원사 영산재는 세계평화와 국가안녕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영산재를 올해는 불자 및 일반 관람자를 위해 대면 공연으로 진행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봉원사 주지 원허 스님(영산재 보존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피해 입은 희생자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희생자 등의 영혼을 위로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마스크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발원한다”며 “아울러 이번 영산재는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 등 국가 안녕을 발원하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5월 17일 밝혔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로 등록된 영산재는 한국의 전통 종교인 불교와 한민족 고유 정서가 어우러져 수백년째 전승된 국내 최대의 전통 불교 의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 전통불교의 우수성을 입증해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영산재는 석가모니가 영취산서 행한 설법인 영산회상을 재현한 것으로 영혼을 천도하는 불교 전통의식 가운데 하나다.

봉원사 주지 원허 스님은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나아진다면 내년에는 6 · 25 참전비가 있는 해외에서도 영산재 행사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나눔의집, 사외이사 3명 선출…정상화 총력

5월13일 임시 이사회서 결정
총 11명 정식 이사 체제 구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쉼터 나눔의집의 법인이 사외이사 3명을 선출하고 정식이사 체제를 구축했다. 1년 넘게 지속된 이사회 파행 운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눔의집은 5월 13일 관내 교육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9명 가운데 3명을 사외이사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이사는 김현덕 한국곰두리봉사회 중앙회장과 박종성 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이동섭 강남노인종합복지관장이다.

3명의 사외이사로 선임으로 총 11명 정식이사 체제를 구축하게 된 나눔의집은 5월 25일 오후 3시 개최되는 차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출 등을 다뤄 운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임이사 직무대행 혜일 스님과 최종환, 윤장숙 이사는 이날 임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임은호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이므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

동국 빛낸 인물 100인 평전 발간된다

건학위 17일 '동국의 빛' 첫 시리즈 공개

만해 스님 등 7인 평전 출간돼
세월호 희생 최혜정 동문 포함
매년 10명 씩, 총 100명 목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평전 '동국의 빛, 이 사람을 보라'

동국대를 빛낸 인물들에 대한 평전이 시리즈로 발간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5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교 116년 역사 속 학교를 빛낸 인물에 대한 평전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동국의 빛, 이 사람을 보라'는 매년 10명씩 총 100인에 대한 평전이 시리즈로 출간되며, 1차로 박한영 · 한용운 · 김법린 · 백성욱 · 서정주 · 조지훈 · 최혜정 7인에 대한 평전을 '살아서 향기로웠던 사람들'을 주제로 묶어 공개했다.

'살아서 향기로웠던' 7인은 성별도 활동 분야와 시대도 제각각 다르다. 그러나 '헌신'이라는 키워드 안에서는 한 울타리 가족과 같다. 모교에 몸담으면서 사람다움을 배우고, 그 사람다움으로 세상에 커다란 지혜와 감동을 선사한 사람들이다.

〈천재들의 스승〉은 한국불교의 대강백이자 근대 인문학 개척자, 독립지사인 석전 박한영 스님을 다룬 평전이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어둡고 험한 시대를 흔들림 없이 살았던 박한영 스님은 유학과 노장사상, 서양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민감했던 학자이자 학승으로 그 시대 지성들의 담론 형성을 주도했다. 또 방황하는 식민지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영감을 나눠주며 인문학의 숲을 밝히던 큰 별이었기에 그 별빛 아래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스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품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삶과 문학을 좇는다. 평전은 만해의 발자취를 따라 러시아와 일본 및 중국까지 추적했던 교수와 제자들이 1차 자료를 중심으로 12번에 걸쳐 진행된 대담 형식으로 구성됐다.

〈나비야 청산가자〉는 김법린의 삶을 조명한 평전이다. 매 시기마다 필요한 일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에 옮겼던 김법린의 삶을 통해 근대화와 독립운동 등을 돌아보게 한다.

〈땅에서 일어난 하늘〉은 동국대 제2대 총장을 역임한 백성욱을 조명했다. 백성욱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고, 불교 학자이자 저술가였다. 교육가이자 정치가였고 사업가로도 활동했다. 말년에는 〈금강경〉을 독송하고 공부하는 데 매진했다.

〈한국시의 큰 별〉은 미당 서정주 시인을 다룬다. 책은 기존의 서정주 연구서나 평전과 많이 다르다. 21세기 독자이자 학생일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여 서정주의 인공지능과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소통방식을 보여준다.

〈늬들 마음 우리가 안다〉는 조지훈 시인의 이야기다. 그는 말과 행동에 공연한 것이 없었으며, 일마다 시시한 결말이 없었다. 망국의 청년시절에 꾸었던 꿈들을 되찾은 나라에서 하나하나 실현해냈다.

〈연꽃으로 피어난 참스승〉도 눈길이 가는 평전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학생들을 구하고 순직한 최혜정 교사를 다뤘다. 최혜정 교사의 삶을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의 희생은 투철한 역사의식의 발로였음을 밝힌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제2건학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에 출범한 건학위원회는 불교인재양성을 위한 초석이 되는 사업으로 동국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평전 시리즈를 출판하게 됐다"며 "우리 동국의 건학이념으로 세상을 밝힌 동국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우리 대학에 훌륭한 동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업적을 정리할 기회가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출간된 7권의 도서 출간 이후 만암 스님, 양주동, 정채봉, 노희두, 김동화, 박영석 등 동국을 빛내고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든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헌신적인 삶을 정리해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학위원회는 오는 6월 〈인간 국보 양주동〉, 〈천의 얼굴 감독 유현목〉, 〈4.19혁명열사 노희두〉를 발간할 예정이다.

최응천 동국대 교수, 문화재청장 임명

尹대통령, 13일 청장 · 차관 인선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활동



범종 전문가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사진〉가 문화재청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차관 및 처 · 청장 인선을 발표하고 최응천 교수를 윤석열 정부 첫 문화재청장으로 임명했다.

최응천 교수는 동국대와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규슈대학에서 '한국 범음구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학예연구관을 거쳐 국립춘천박물관 초대 관장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장, 아시아부장, 미술부장으로 국립박물관에서 25년간 근무했다.

2008년부터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2017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동산, 무형분과)과 일본 다이쇼대학 객원 교수(2015)를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박물관장과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금속공예와 범종 전문 학자로서 최응천 교수의 입지는 확고하다. '18세기 범종의 양상과 주종장 김성원의 작품'으로 제14회 동원학술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범종 연구를 망라한 〈한국의 범종〉을 출간하기도 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연구에도 매진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프랑스 기메 박물관,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 등의 문화재 조사에 참여했다. 2009년 중국, 일본학자들과 떠난 중국 저강성 연구조사에서 확인한 닝보시 천봉탑 지궁에서 발굴된 남송(南宋) 불상이 통일신라서 전래된 것임을 주장해 이를 수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최응천 교수는 "불교미술사학자로서 전문성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했던 경험들을 최대한 살려 문화재 현안을 살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하는 문화재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사노위, 5 · 18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5월 18일, 서울 법련사에서
진상규명 · 유해 귀환 염원
"광주 정신 미얀마에 힘을"



조계종은 5월 18일 서울 법련사에서 '광주 5 · 18 민주화운동 42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광주 5 · 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희생 영령을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행방불명자 유해 귀환을 염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5월 18일 서울 법련사에서 '광주 5 · 18 민주화운동 42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5 · 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추모재는 42년 전 광주에서 민주, 정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다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인 동시에 5 · 18정신 계승 발전을 염원하는 법석이었다.

추모재는 사노위원 동신 스님의 집전으로 나무아미타불 정근,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으로 20여 분간 이어졌다. 스님들의 염불소리에 참석자들은 영단에 헌화와 헌다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사노위 부위원장 혜도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먼저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부처님께 발원했다. 스님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진 지 42년이지만 진상규명, 발포 책임자, 헬기 사격,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와 유해 발굴 등은 여전히 진실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상자들과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도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고귀한 정신은 80년 이후 우리나라 역사를 민주화로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됐다"고 강조했다. 광주 정신이 멀리 미얀마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강조한 스님은 미얀마 민주화 과정에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면서 미얀마에 민주화가 조속히 오기를 서원하기도 했다.

장신환 5 · 18서울기념사업회장은 "5월이 오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스님들의 기도는 큰 위로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면서 "살아남은 것이 부끄럽지 않게 희생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 한국 사회가 평등한 세상, 통일 세상이 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재는 '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 등을 부르며 마무리됐다.

한편 사단법인 광주영산재보존위원회(회장 월인, 법륜사 주지)도 같은 날 국립5 · 18민주묘역에서 위령재를 봉행했다. 군부의 총탄에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이날 위령재는 광주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 의식중 지장청, 작법바라 등을 통해 1980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임은호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회는 5월 12일 아름다운동행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 비구니화엄회, 우크라이나 구호기금

아름다운동행에 1천만원 전달

부산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구니 스님들의 봉사모임 화엄회(회장 상화)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에 힘을 보탰다.

화엄회는 5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화엄회 총무 효광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조계종 재무부장 탄하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등이 참석했다.

효광 스님은 회장 상화 스님을 대신해 인사를 전하고 "기금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스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나란다수행관’ 존폐 위기, 전세비 마련 나서

비로자나국제선원 5월 17일부터 불사 진행

2018년 비구니 숙소로 개원
전법 · 포교 · 학업 지원 목적
코로나로 재정난, 후원 모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비로자나국제선원이 2018년 비구니 스님들의 전법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한 나란다수행관이 존폐위기에 처했다. 코로나로 인한 나란다수행관 전세금 마련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5월 17일부터 나란다수행관 전세금 마련을 위한 불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로선원국제선원은 2006년 10월 29일 도심포교와 국제포교의 원력으로 자우 스님에 의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창립됐다. 청정한 성품의 회복과 불교의 세계화를 창건이념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영어 참선법회와 어린이, 청소년 영어담마스쿨 등을 일반법회를 함께 진행해왔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3년 전부터 모든 법회를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유튜브를 통한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7년 걸리는 80권 화엄경 사경과 강의를 2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일요마음행복법회를 통해 금강경, 천수경 법문을 통한 생활 속 불교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초등학교건립, 탑골공원 무료급식 봉사와 영등포쪽방촌 자비나눔 등 사회 전반의 아픔을 보듬고 올바르고 건강한 시민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선원 근처에 나란다수행관을 따로이 마련하여 비구니 스님들의 전법원력을 지원해 왔다. 지방에서 상경하여 서울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경우 고시원 혹은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거주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승려기본교육기관을 마치고 구족계까지 수계한 비구니 스님이라면 누구나 입소 가능한 나란다수행관은 소중한 역할을 해왔다. 2018년 1 · 2수행관을 전세대출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25명의 비구니스님들이 석 · 박사 과정을 마쳤다. 또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장애인(농인), 일반인 포교를 하는 스님들이 마음 놓고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숙소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22년 5월에 들어서며 전세대출을 이어갈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되며 수행관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자우 스님이 그동안 어려운 사중살림에도 불구하고 나란다수행관을 운영해 온 것은 스님도 2000년대 초반 방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봉정암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지금의 비로자나국제선원의 밑바탕을 쌓았다.

비로자나 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은 “전세금 마련의 불사모연을 통하여 인재불사와 전법의 원력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뜻있는 분들의 정성을 모으고자 한다”며 “부디 한국불교의 디딤돌이 될 수행관이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길 두손 모은다”고 말했다. (02)6012-1731

후원계좌 : 농협 301-0207-6786-91(예금주 : 비로자나국제선원(나란다인재양성))

제27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설명회

국제포교사회 5월 14일 법련사서 개최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는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법련사에서 ‘제 27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지난 4월 9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실시한 포교사 자격고시에 응시, 합격한 스님 다섯명을 포함한 총 29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삼귀의, 회장 인사말, 합창단 음성공양, 국제포교사회 활동 및 부서 소개, 교육일정 및 평가 안내, 사홍서원, 사진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영어 자기소개, 기수 대표 선출, 등 오리엔테이션 및 집전 습의교육이 실시됐다.

이재홍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제 포교의 큰 원을 세운 합격자들의 발심을 찬탄하고 양성과정을 원만히 마쳐 국제포교사 품수를 받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과정은 37강의 화상강의, 사찰 수련회, 실습 및 집전,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양성과정을 마치고 10월 초 포교원의 면접고시에 합격하면 국제포교사 품수를 받게 된다. 노덕현 기자

청년대학생 합동수계법회 서울서 열린다

청년대학생전법단 · 대불련, 5월 29일 봉은사서 봉행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대표 무각)은 5월 29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석주)와 봉은사 보우당에서 2022년 청년대학생불자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합동수계법회에는 청년대학생 불자 12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전계사로, 효석 스님이 인례사로 의식이 진행된다. 지도법사 무각 스님, 효석 스님(이화여대), 자우 스님(성신여대), 운성 스님(서울대), 자운스님(숙명여대) 등이 참여한다.

수계법회에는 참석한 지도법사 스님들의 수계의식 안내가 진행되며, 윤소연 60년차 대불련 중앙집행위원의 인사말과 무각 스님의 환영사,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축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청년대학생전법단 측은 “현재 125명이 신청하였고, 봉은사대학생회 측에서도 일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 연합수계법회가 될 예정”이라며 “코로나 기간 이후의 청년 수계법회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상월청년회 2기 수료 … “한국불교 중흥” 다짐

2기 30명 수료와 함께 수계 받아
포교원장 범해 스님 수계사 나서
6개월 간 토요일마다 법회, 교육
상월청년회 이름하에 전법 다짐


서울 수국사는 5월 14일 상월청년회 2기 수료식을 봉행했다.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 하에 조직된 상월청년회가 2기생들을 배출했다.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는 5월 14일 수국사 대웅전에서 상월청년회 2기 수료 및 수계식을 봉행했다. 30명의 청년회원들이 수료한 이날 행사에는 수계법사인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종회의원 삼조 스님, 성화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 포교국장 혜교 스님,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 등이 참석해 이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상월청년회 회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법회 등을 통해 불교를 알아갔다. 지난해 겨울 동안거에서는 수국사 선원에서 참선지도를 받고, 상월결사가 올해 진행하는 평화순례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수계식에서 최봉수 회원을 대표로 이들은 삼귀의를 하며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내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고 다짐했다.

수계식에 이어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이 주는 수료증과 함께 조계종 신도증,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이들에 대한 시상과 동국장학금도 전달됐다. 또 달마배 스노보드대회조직위원회와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미래스포츠선수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국가대표로 최근 각종 주니어 대회서 우승행보를 걷고 있는 이채운(군포수리고 2) 학생에게 전했다.

이날 수계법문으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불교공부를 한다고 해서 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활에서의 고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인생공부”라며 “우리에게는 참된 성품이 있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다. 불교는 참된 성품을 찾고 드러내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기에 이를 염두하고, 수계 이후에도 한명의 불자로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수계식에 이어 수료식에서는 지도법사를 맡았던 스님들의 아쉬움 섞인 회향사가 이어졌다. 동국대 청년스님 모임인 칠불회 소속 젊은 스님들은 더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칠불회장이자 상월청년회 지도법사 세광 스님은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다. 만나면 헤어지지만 또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 마련”이라며 “각자 마음에 심어진 불법 씨앗을 생활에서 싹틔우고 예쁜 꽃 한송이를 피워내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상월청년회 부회장 김서윤 씨는 “처음에는 참석자가 많을까란 우려도 있었지만 첫 법회 후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 청년회는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함께 동거동락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인연”이라며 “8월 템플스테이와 엠티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계속해서 정진해가자”고 말했다.

청년회 회원들은 주지 호산 스님과 지도법사 스님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선물하기도 했다.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오늘은 회향이 아닌 상월청년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다. 전법단이 되어 내년에는 한명씩 더 불교와 인연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며 “청년회 차원에서도 여러 법사 스님들 모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화계사 중건 500년 기념 축제 연다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실 설정 스님 법문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가 개산 1070여년 및 이주중건 500년을 기념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선포하고 ‘화계사, 천년의 뜰을 거닐다’ 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계사 조실 설정스님을 비롯해 회주 성광 스님, 주지 수암 스님,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법사로 나서 법문하며, 다례재와 해인사 및 통도사 학인스님들 발표회, 괘불재 및 음악회,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와 함께 5월 28일 오후 7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서는 가수 영탁, 박현빈, 바비킴, 국악인 최예림 등 인기가수 출연진들이 총출동한다.



주지 수암스님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화계사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2)997-6469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세계불교 승황성

THE WORLD BUDDISM HEADQUSTERS OF SERVEEING MONKS

봉 社團法人 世界佛教僧皇城 設立 축

설립취지

세계불교가 불조의 혜명을 잃고 일불 제자의 僧伽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AD728년 신라 구법승으로 중국에 건너가 달마, 혜가, 승찬, 도신, 홍인, 처적, 무상으로 이어지는 해동 선맥을 전수, 달마조사(達摩祖師)의 전의가사(傳衣袈裟)를 이어받아 정중종(淨衆宗)을 개창 정중선계(淨衆禪系)의 선법을 촉지(蜀地)뿐만아니라 중국의 서남국인 돈황(敦煌), 티베트(吐番)와 남조(南詔)까지 전파되어 실질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초기의 종조인 정중 무상공 존자의 법맥을 재조명하고, 현창(顯彰)하여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이다. 더불어 세계불교국가간 유대를 돈독히 하여 부처님 법을 세계에 홍포하고자 한다.

권선문

무상선사(無想禪師)의 연구와 무상선사가 최초로 확립한 정중선파(淨衆禪派)의 선법이 촉지(蜀地)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남국(西南國)인 돈황(敦煌), 티베트(吐番)와 남조(南詔)까지 전파되는 등 실질적 중국 선종을 대표하는 초기 종파로 달마 대사의 전의가사(傳衣袈裟)가 무상대사에게 이어진 법맥이 마조도일(馬祖道一)에게 이어진 사자관계(師資關係) 등을 밝히고 정중 무상공 존자(淨衆 無相空 尊者)를 현창(顯彰)하여 법맥을 재정립 하고자 합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의 불의(佛意)로 불교중흥(佛教中興)에 함께 할 제방의 종단(宗團)과 사찰의 동참을 바랍니다.

世界佛教僧皇城 理事長 弘山 玄佛 稽首

THE WORLD BUDDISM HEADQUATERS OF SOVEREIGN MONKS
34. Sedobuk-ro 149beon-gil, Sedo-myeon, Buyeo-gun,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TEL : +82-041-832-4153 FAX : +82-041-833-4154 Mobile : +82-10-6478-1569

社團法人 世界佛教僧皇城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가입신청 문의 : 010-6478-1569 TEL 041-832-4153

수희동참 단체 : 선농교단 우리불교조계종,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화쟁교단 분황종 외

“화두타파에 정성 다할 때 지혜덕상 드러나”

毘盧頂上을 걸어가라

〈비로정상〉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有相有求俱是妄(유상유구구시망)이요
無形無見墮偏枯(무형무견타편고)로다.
堂堂密密何曾間(당당밀밀하증간)이리오
一道寒光爍太虛(일도한광삭태허)로다.

상이 있고 구함이 있으면
모두가 망령된 것이요
무형과 무견은 치우친 소견에 떨어짐이로다.
당당하고 밀밀하니 어찌 간격이 있으리오.
한줄기 찬 빛이 큰 허공에 빛나도다.

하안거를 결제하는 제방의 대중이여!

유(有)에 집착하고 무(無)에 집착하는 모두가 사견을 이루는 것이니, 유무에 떨어지지 않아야만 한 맛으로 모두가 항상 나타날 것이다.

옳은 법과 그른 법이 있으니
하나는 상(常)이요, 하나는 단(斷)이다.
단과 상이 비록 다르나
병이 되는 것은 모두 같다.
주먹을 펴면 손바닥이 되니,
뜬구름이 흩어지면 하늘은 모두 푸르다.

제방의 수행자들이 산문 출입을 삼가며 하안거를 결제함은 고불(古佛)께서 권장하신 법도이다.



대중이 모여 결계하고 화합해서 정진하는 일은 불종(佛種)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며, 청정승가가 길이 유지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제천이 환희하고 호법신장이 찬탄하며, 신심 있는 단월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니, 이 인연을 통해 큰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힘써 정진할 때 모든 결박이 분명하게 풀어지는 징험이 있게 될 것이다.

천 길 벼랑에서 나뭇가지를 잡고 있다면 이는 기특한 이가 아니니, 벼랑에서 손을 놓아야 비로소 장부라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시비와 증애를 내려놓고 오직 화두타파를 위해 정성을 다할 때 홀연히 본래 구족한 지혜덕상이 드러날 것이다.

그대 엉킨 실타래를 풀고자 하는가?

무념지(無念智)의 한칼로 문득 잘라냄이 쉬운 방법이로다.

終日忙忙(종일망망)에
那事無妨(나사무방)이라
不求解脫(불구해탈)하고
不樂天堂(불악천당)이로다.
但能一念歸無念(단능일념귀무념)하면
高步毘盧頂上行(고보비로정상행)하리라.

종일토록 바쁘고 바쁘나
어느 일에도 방해되지 않도다.
해탈을 구하지 않고 천당을 즐기지 않도다.
다만 한 생각 무념으로 돌아가면
높이 비로정상을 걸어가리라.

산마루에 구름은 한가히 떠 있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진제 스님

三界無法 法求何處
四大本空 佛依何住
삼계에는 진리의 법이 없거늘
어느 곳에서 법을 구할 것이며
사대가 본래 공하거늘
부처는 어디를 의지하여 머물 것인고.



여기에서 분명히 전신자재(轉身自在)할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으로 더불어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안온락(安穩樂)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산문(山門)을 폐쇄(閉鎖)하고 모든 반연(攀緣)을 끊고 구순안거(九旬安居)에 들어가는 것은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함이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일을 해결하려고 왕궁 부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출가(出家)하여 수도(修道)하셨고, 역대(歷代)의 모든 도인 스님들께서도 이 일을 밝히기 위해 출가 수도하셨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온 것이지 달리 다른 일이 없다. 만약 다른 일이 있다고 하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만반(萬般) 고통에서 헤어날 기약이 없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고 죽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영구히 벗어나 세세생생(世世生生) 열반(涅槃)의 낙을 누릴 수가 있느냐? 부처님 경서(經書)에는 팔만사천 길이 펼쳐져 있지만 다 바른 길이 아니다.

오직 부처님의 최상승법(最上乘法)인 이 선법(禪法)을 통해서, 인인개개인(人人箇箇人)이 각자 자신의 성품을 바로 볼 때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참선수행을 하는데도 어째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 참선법은 화두일념이 지속된다면 깨달음이 저절로 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이 과거 생에 지어온 무수 반연(攀緣)과 습기(習氣)로 인하여 온갖 기멸심(起滅心)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고로 깨달음이 오지 않는 것이다.

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영구히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번 생(生)은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오로지 화두참구에만 마음을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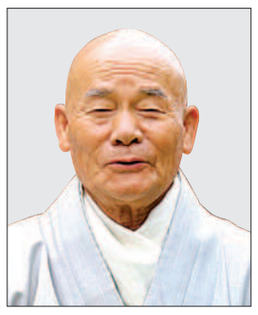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일체처 일체시에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반복해서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짐이 없도록 혼신(渾身)의 노력을 다해 참구(參究)해야 함이라.

이렇게 일념(一念)이 되도록 노력하다보면, 문득 참의심이 돈발(頓發)하여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해결되어 불조(佛祖)의 백천공안(百千公安)을 한 꼬챙이에 꿰어 버리게 됨이니, 그러면 누가 어떤 물음을 던지더라도 석화전광(石火電光)으로 척척 바른 답을 내놓게 되고 제불제조(諸佛諸祖)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살림살이를 수용하게 됨이로다.

雲在嶺上閑不撤
流水澗下太忙生
산마루에 구름은 한가히 떠 있는데
개울 아래 흐르는 물은 유달리도 바쁘더라.

세상 만물이 가피요, 부처님 대광명이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스님



계절이 여왕 신록은 안정이 되고 망상이 끝난 별무리 웅장한 대종소리 출렁이는 법계성 알 수 없는 불가사의 이~뭘까? ‘숨을 쉰다.’ 이 한 법이다. 소리 없는 숨길, 이~뭘까 한복판이다. 숨길이 잣대요, 척도다. 360각 영(0)의 바람 頭頭가 산 바람이다. 是大神呪 是大明呪 이 웅장한 한 덩어리 알 수 없는 바람 존재가 지수화풍이다. 來往屈伸이 바람이다.

360각은 각이 없다. 반복왕한 이글이글 끝없이 돌아가는 생명의 바람 찌꺼기가 남지 않는 흔적이 없는 바람 일체를 살게 하는 바람 생각 전의 바람 부처님 바람 반가부좌는 원활한 영(0)의 자세가 아니다. 뿔각이 남아있으면 이리저리 걸려 미세한 호흡이 어렵다. 고집에 걸리고 탈이 많고 막히는 데가 많다. 텅텅 비어 걸릴 일없는 영(0)의 바람. 결가부좌는 잠이 퍼부을 때도 뒤로 넘어지지 않는다.

용맹지와 계합되는 성불자세 머리와 발바닥에 시원하게 피를 통하게 하는 자세 미세혈관이 원활해지고 탄력이 붙는 자세 잠깐잠깐 익히다 보면 결국 내 자세가 된다.

바르게 살자. 기본 틀이다. 바르게, 기본, 이~뭘까? 모두 첫 단추다. 천하만사가 기본 틀에서 출발이다. 첫 단추가 바르면 끝이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심장은 양심이다.

이뭘까?는 틀 이전이다. 폭 빠져 한 덩어리가 되면 休去歇去가 된다. 여유가 오고 휴식이 온다. 한밤중에도 맥박은 홀로 뛰고 있다. 생각 전에 숨을 쉬고 있다. 至心의 바람 산하대지가 녹아진 바람 360각의 바람에는 거친 것이 없다. 뿔각이 없고 주장과 기준과 생각 훨씬 전에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中道 바람, 생기덩어리 그때그때 시원시원 저절로 숨 쉬어지는 바람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는 숨길 바람 그 한복판 中道, 그때그때 맞게가 中道다.

살아있다. 숨 쉬고 있다. 시원시원 숨길이 터져 숨이 쉬어지고 있나? ‘갓 없는 허공에 覺所顯發~에’ 라고 토를 붙이다가 숨길이 막혀신장의 철퇴를 맞았다. 뿔각의 바람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법문이다. ‘갓 없는 허공이 大覺의 顯發이다~이’ 라고 토를 붙이니 바람길이 툭 터져 산하대지가 춤을 춘다. 호흡이 빽빽하면 시원시원 숨이 잘 쉬어지는 쪽으로 얼른 돌아와야 산다. 붙들려 있으면 같이 망한다.숨이 제대로 쉬어지고 있나? 만사에 이 잣대를 쓰면 잘못될 일이 없다.

종소리가 반이라도 이뭘까?에 얹으면 360 영(0)의 바람이 된다.이뭘까?가 돌아가면 일체가 부처님이요, 일체가 달마야중이다. 무장해제가 되고 싶어 끝파도를 걷는다. 대종소리 둘러 꺼져 洞天바람이 시원하고 억겁업장이 맑은 바람이라 외마디 ‘마하’ 라고 감탄한다. 頭頭가 영(0)의 숨길, 법계를 이뭘까?로 돌아오게 해준다.

百家計巧를 다 써도 마지막 이르는 곳은 한 무더기 마른 뼈뿐이다. 고양이가 쥐 잡듯 心眼이 움직이지 않네. 닭이 알을 품듯 더운 기운이 상속하네. 경허스님 법문이다.

空山風雨多 花落無人掃
靑天一雁沒 碧海三峯出
공산에 바람이요.
꽃떨어져 쓸 사람 없네.
맑은 하늘에 한 기러기 빠졌나.
푸른 바다에 삼봉이 솟아있네.
이~뭘까?

노조가 벽을 향해 돌아앉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노조보운(魯祖寶雲)선사는 평소에 납자가 찾아오기만 하면 얼른 벽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어떤 납자가 조산본적(曹山本寂)선사에게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산선사는 손으로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조면벽(魯祖面壁) 공안에 대하여 선가(禪家)에서 이러쿵저러쿵하며 많은 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달마대사의 구년면벽 이후에 한동안 뜸하더니 노조선사의 면벽이 등장하자 선문의 많은 선지식이 ‘달마면벽’ 까지 들먹이며 이런저런 자기 살림살이를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달마의 9년 면벽과 노조가 벽을 향해 돌아앉은 것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며 또 다른 시시비비를 다투었습니다.

노조의 속마음을 제대로 아는 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귀신굴속에서 어림짐작으로 이런저런 말을 내뱉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기야 계교(計較)와 사량(思量)으로 ‘안다’ 라고 하여도 노조는 벽을 향했을 것이고 ‘알지 못한다.’ 고 하여도 노조는 벽을 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담담하여 아무 맛도 없는 가운데 또 맛이 있는 것이니 이미 사량 분별을 넘어 섰기 때문입니다.

달마의 면벽과 노조의 면벽은 면벽 그대로가 법문입니다. 다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처와 중생이 나누어지기 전의 소식을 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존숙(尊宿)에게 납자가 물었습니다.

“조사가 벽을 향해 9년 동안 앉았던 것은 이 뜻을 아는 이를 찾기 위한 것입니까?”

이에 존숙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장차 무쇠방망이를 얻어맞을 날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노숙(老宿)에게 납자가 물었습니다.

“조사가 9년 동안 벽을 향해 앉은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리요?”

이에 존숙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다시 짚신 살 돈을 마련하여 30년 동안 더 행각해야 하리라.”

길고 길었던 코로나도 이제는 한풀 꺾인 듯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이제 다시금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본성의 회복입니다.

총림 좋은 도량에서 애써 정진해서 공안을 타파하도록 합시다. 그러할 때 달마와 노조가 면벽한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빈지단(人貧知短)이요.
마수모장(馬瘦毛長)이라.
부혐천구소(富嫌千口少)요.
빈한일신다(貧恨一身多)니라.

사람이 가난하니 지혜가 짧고,
말이 여의니 털이 길 구나.
부유하면 천 명 식구도 부족하고,
가난하면 한 몸도 많도다.

언구에 의문 품고 계속 참구하라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對坐不相見
光影照驢年
靜坐絕纖塵
虛空不通線

마주 앉아 있어도 서로 보지 않으니
빛이나 그림자는 나귀 해를 비추네.
고요히 앉았으니 먼지조차 사라지고
허공에는 실낱조차 통하지도 않는구나.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하니, 땅을 떠나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미혹하여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 이는 중생이며, 자기 마음을 깨달아 끝없이 미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분이 부처입니다. 미혹과 깨달음이 비록 다르지만, 그 요지는 각자의 마음에서 말미암게 되니, 깨달은 부처가 되려면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려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으니 이를 삼학(三學)이라 합니다.

삼학은 계율(戒律)과 선정(禪定)과 지혜(智慧)입니다. 계(戒)는 삼업을 맑게 가지고, 정(定)은 산란함을 없애고 안정하는 것이며, 혜(慧)는 모든 법의 실상이 공한 줄을 깨닫고 그것이 연기하는 이치를 바르게 살피는 것으로, 수행자들은 반드시 이를 배워야 합니다.

안거 동안에 보름마다 설계 포살하는 것은 바로 계정혜 삼학과 육바라밀과 팔정도(八正道)를 원만히 수행(圓修)하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를 원만히 수행하는 지름길이 바로 간화선이라 합니다. 팔만사천의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사(祖師)들께서 자기 방식대로 간명직절하게 말씀하신 것을 엄정하게 정리해둔 것을 공안(公案)이라 합니다. 그 공안 가운데 하나를 결택하여 그 설화(說話)의 진정한 뜻, 즉 화두(話頭)를 몰라서 의심하고 의심하며 참구하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수십 년이 걸려도 다 못 읽을 대장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을 제대로 소화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진정한 장부라면 뜻을 내어 도전해 볼 일입니다.

모든 학문(學問)은 깊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학문은 배울 학(學), 물을 문(問)입니다. 남에게서 배운 것을 아무런 의심이나 의문 없이 맹종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배운 것에 대해 의심하고 그 의문이 풀려야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니, 그것이 바로 학문하는 자세입니다.

불조에 대한 믿음을 지면서도, 그 분들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언구(言句)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계속 참구해야 합니다.

간화선이란 학문하는 자세의 극치입니다. 수행하는 이가 그저 혼침과 산란에 빠져 멍 때리고 단정히 앉아있는 것만으로 안거기간을 보낸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대중들은 이번 안거 동안 한국 간화선의 본고장인 이곳 송광사에서 강원 율원에서 간경(經)하고 선원에서 간화(話)하면서 열심히 정진하여 불조의 진실한 뜻(眞實意)을 깨달아 모두가 바른 안목을 갖춘 대장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천년 동안 모른 채 함께한 佛사리

범어사, 대웅전영산회상도사리친견 · 이운법회

영산회상도 배면서 사리 4과 발견
대웅전과 성보박물관에 사리 봉안
사리 이운의례, 사리친견 특별전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주지 경선)가 5월 18일 대웅전과 성보박물관 일대에서 '대웅전 영산회상도 사리친견 및 이운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는 지난 2021년 가을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를 성보박물관으로 이운하는 과정에 불화 배면(背面)에서 봉안된 사리 4과를 발견했다. 범어사는 불자들의 신심 고취와 사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사리친견법회 및 사리이운의식을 봉행했다. 사리 4과 가운데 2과는 범어사 대웅전에서 백중 지장기도 기간(5월 19일~8월 15일) 동안 친견할 수 있으며, 나머지 2과는 성보박물관 중정에서 상시 전시한다.

법회에서 주지 경선 스님은 "천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대웅전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것을 몰랐다. 그동안 대웅전에서 기도하던 불자들은 부처님의 법신과 함께해온 것이다"며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도 대웅전에서 기도할 때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법신이 늘 함께한다는 심정으로 기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리이운의식은 전통불교의식에 의거 인로왕번과 사명기가 앞서고 취타대가 행렬 시작을 장엄했다. 오방번에 이어 도량을 맑히는 향로와 화려한 꽃을 뿌리는 산화의식이 진행됐다. 주지 스님과 내빈들의 행렬 바로 뒤에는 사리를 봉안한 붉은 금어연이 뒤를 이었고 신도들은 오색 끈을 잡고 기도하며 행렬을 뒤따랐다. 특히, 범어사 금어연은 2013년 조선시대 전통 연(輦) 제작 방식에 따라 21명의 장인들이 제작했으며, 지난 2019년 20만 명이 운집한 불교문화대축제 건봉사 사리 이운서 사용된 바 있다.

성보박물관에 도착한 사리는 중정에 마련된 안치대에 봉안됐으며 대중들의 육법공양 후 친견이 이어졌다. 앞으로 성보박물관에서는 사리와 함께 대웅전 영산회상도를 함께 친견할 수 있다.


범어사가 5월 18일 '대웅전 영산회상도 사리친견 및 이운 법회'를 대웅전과 성보박물관 일대에서 봉행했다.

범어사 영산회상도는 1882년 수룡당 기전 스님이 주도해 17명의 화승들과 함께 제작했다. 기전 스님의 화맥은 완호 낙현, 권정두로 이어져 현재 권정두의 자제이자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인 권영관 불화장이 계승하고 있다. 권영관 불화장은 현재 범어사 대웅전의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와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 '신중도(神衆圖)' 모사 제작을 진행 중이다. 범어사는 백중 지장기도 회향일인 8월 15일 대웅전에서 봉안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범어사는 5월 18일 백중지장기도 및 선지식 초청법회를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주지 경선 스님의 입재법문으로 시작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릴레이 법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초청법회에는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 前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계룡산 원오사 주지 원오 스님, 세존사 회주 장산 스님, 전 조계사 주지 현근 스님, 범어사 율원장 원창 스님, 범어사 승가대학장 정한 스님, 운수사 주지 범일 스님,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지환 스님이 차례로 법문한다. 8월 15일 회향법회에는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홍법사, 나무심기로 국제적 나눔 실천

'나눔' 되새기고, 지구촌 미래 생각하는 시간

홍법사(주지 심산)가 5월 18일 경내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제9회 국제 기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구촌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세계 평화와 교류를 위해 ㈜에스앤파낙스로부터 기부 받은 황칠나무에 신도들이 직접 물을 주는 것으로 진행됐다.

나무심기에는 주지 심산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과 인도 키트(KITT) 대학 학생들이 동참했으며, 인도 미스리틀 인디아 우승자 드위베디 수반기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했다.

심산 스님은 "5월 17일은 '국제 기부의 날'이 9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며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서로를 연결하고 지지할 수 있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왔다. 앞으로도 나눔과 서로를 위한 지지는 이어질 것이다"고 의미를 전했다.

홍법사는 몽골과 인도에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며 마스크 24만 장과 21만 장을 각각 전달한 바 있다. 몽골정부는 지난 5월 8일 심산 스님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홍법사는 몽골 우브르항가이 아르와이헤르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지닌 몽골 사찰 간단사의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매년 사찰과 지역민을 위한 축제 '도전 골든벨' 행사의 개최를 후원하고 행사의 우승자와 지도 교사에게 한국전통문화체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체험을 위해 홍법사는 사업비 전액을 후원해 인도와 몽골 등 국제민간교류의 폭을 확장했으며, 2019년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서쪽 420km 떨어진 황무지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몽골 사막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석전 스님, 미술대전 서울시장상 수상

전시 5월 17~28일,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석전 스님〈사진〉이 제4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

석전 스님은 사군자 가운데 묵죽작품(대나무)을 미술대전에 출품해 수상했으며, 수상 작품 전시도 개최된다.

전시는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는 5월 17일부터 19일, 2부는 5월 21일부터 24일, 3부는 5월 26일부터 28일이다. 전시 장소는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가능하다. 입장료는 무료.

석전 스님은 종고 스님을 은사로 19교구 화엄사로 출가해 2006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부산미술대전 대상과 부경서도대전 우수상, 국전 입상 등 다수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복성산업개발, 나눔과 영산재 봉행

모전中 등 학생 5명에 장학금
독거 어르신 등에 쌀 3000kg
'무사고 공사 기원' 영산 대재

㈜복성산업개발(회장 박금태)이 5월 16일 부산 정관 효성힐린턴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장학금 및 백미 전달과 무사고 공사를 위한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복성산업개발은 불자기업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시작 전에 지역의 안녕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 노동자의 안전을 기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해왔다. 아울러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인재양성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현장 노동자 및 지역민에게 백미를 전달하는 자비나눔으로 사회 환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은 정관읍에서 추천하는 모전중학교 2명, 중앙중학교 1명, 신정고등학교 2명 등 5명의 학생에게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5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학생을 대신해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이어진 백미 전달식에서는 김종천 정관읍장에게 정관지역 독거어르신과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백미 3000kg을 전달했다. 이어진 영산재는 마이산 탑사 영산작법보존회가 주관했으며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무사고 공사를 기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박금태 복성산업개발 회장, 김종천 정관읍장, 김승하 대표이사, 전문순 부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진성 스님은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다. 노동자는 산업의 원동력이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 학생들을 지원하고 노동자가 행복해야 한다"며 "공사에 앞서 진행된 아름다운 나눔 행사를 함께 주관할 수 있어 기쁘며, 나눔 후원에 앞장서는 회장님의 자비심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김종천 정관읍장은 "정관읍장으로 부임 후 살펴보니 복지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46%에 이르고 있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마이산 탑사 주지이신 진성 스님과 박금태 회장님의 나눔이 너무나 귀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학생들과 독거어르신들에게 장학금과 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순 복성산업개발 부회장은 "복성산업개발은 토목과 주택 관련 건설을 하는 기업이다. 그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무엇보다 사회 환원을 실천해왔다"며 "12년 동안 나눔을 위해 30여 억을 환원했고 국내 뿐 아니라 베트남 초등학생을 위한 자전거 지원, 지역 정수시설 등 다채로운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발전과 더불어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명불원 · 부산밥퍼나눔공동체 MOU

매달 백미 20kg 40포 이상 후원 약정

동명불원(이사장 김경조)이 5월 18일 동명불원내 교육관에서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이하 밥퍼공동체)와 쌀 공양물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동명불원은 협약식을 통해 매달 백미 20kg 40포 이상을 밥퍼공동체에 후원할 것을 약정했다.

협약식에는 김경조 동명불원 이사장, 성재곤 신도회장, 이원옥 신도회부회장, 이상수 신도회부회장, 손규호 법퍼공동체 이사장, 최광성 밥퍼공동체 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경조 이사장은 "밥퍼공동체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으나 쌀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단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됐다"며 "신도님들께서 올리는 공양미를 나눔 봉사 단체에 보시하는 것이 공양의 참뜻을 실천하는 길이며 공양 올린 분들에게도 뜻깊게 다가올 것"이라며 후원 의미를 전했다.

손규호 이사장은 "20여 년 동안 많은 분들과 인연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양곡을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곳은 동명불원이 처음"이라며 "마음과 힘을 보태주는 그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봉사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명불원은 5월18일 동명불원내 교육관에서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쌀 공양물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동명불원은 관내복지회관,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탈북민 단체 등에 급식후원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소외가구 40세대를 방문해 도시락 및 쌀을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봉선사, '능엄전문학당' 개설…1기 성황

4월 13일 '운하당'서 첫 강의
승가대학원장 정원 스님 강사
스님들 교육 열기에 관심 고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스님들을 위한 '봉선사 능엄전문학당'을 개설해 호응을 받고 있다.

교종본찰 봉선사(주지 초격)는 4월 13일 능엄승가대학원 부설 '봉선사 능엄전문학당' 1기를 개강하고 능엄승가대학원 학장 정원 스님을 강사로 우리말 〈석가여래행적송(釋迦如來行蹟頌)〉 강의를 시작했다. 능엄전문학당은 스님들이 사찰 운영을 위한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에 사찰 정기법회와 교양대학, 불교대학, 기초교리강좌 등을 운영하는 토대가 되는 실질적인 강좌로 구성됐으며, 경내 운하당에서 매월 격주로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강좌를 기획한 주지 초격 스님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려는 스님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정작 스님들이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교육의 기회가 적어 재교육이 필요해도 강좌가 없다"며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종본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원장 스님과 상의한 끝에 '능엄전문학당'을 개설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스님은 "아는 것이 없으면 교만해진다는 〈잡보장경〉의 가르침대로 스님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만들고 배워야 한다"며 "능엄전문학당 역시 인재 불사의 일환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포교국장 보타 스님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시기에 모집공고를 낸 상황이라 강좌개설이 가능한 기준으로 10명이라도 수강생 모집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2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전했다. 1기생 중에는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을 비롯해 포교국장 보타스님 등 소임자 스님과 말사 스님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수강한 스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스님들은 "능엄전문학당이 지속돼 더욱 다양한 강의가 편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으며, 특히 "오랜만에 초발심의 자세로 수업에 임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다. 봉선사 능엄전문학당의 1기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열심히 배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강좌는 매월 2, 4주 수요일 오후 2시 봉선사 운하당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매월 5만 원이다.

한편 〈석가여래행적송〉은 고려 충숙왕 15년(1328) 운묵 무기 스님이 석가여래의 일대기와 불교 전래의 역사를 상·하 2권으로 기록한 저술이다. 교재로 사용되는 우리말 〈석가여래행적송〉은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2004년에 펴냈다. 031-527-8568

용궁사 '제16회 사명연꽃 문화제' 봉행

5월 14일 경내 일원서 진행…요가 시연 등 눈길


제16회 사명연꽃 문화제에 참여한 아이들이 그림그리기를 하고 있다.

'나의 꿈, 우리의 미래, 즐거운 시간'을 주제로 한 사명연꽃 문화제가 펼쳐졌다. 밀양 용궁사(주지 정무)는 5월 14일 경내에서 제16회 사명연꽃문화제를 봉행했다.

이번 사명연꽃문화제에는 용궁사 주지 정무 스님(동련 이사장), 김정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 외 경남포교사단, 밀양불교대학, 용궁사 신도회, 전국 어린이 가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무 스님은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 역사, 문화 체험행사 및 그리기와 글짓기 등을 통해 치유와 평화의 시간을 주고자 했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정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축사로 "우리 고장이 배출한 사명대사의 민족의식을 계승하는 행사"라며 "참석한 학생들이 자기표현 능력을 계발하고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리수요양병원 7년…1급 병원 쾌거

5월 18일 개원, 7주년 기념법회…"환자 중심 병원 되겠다"



보리수요양병원은 5월 18일 개원7주년 및 1등급 요양병원 성과를 자축하는 법회를 열었다.

보리수요양병원(이사장 현법)은 5월 18일, 병원 앞마당에서 '개원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2015년 개원 후, 재정 악화로 7개월만에 폐원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보리수요양병원은 2017년부터 점차 안정을 찾으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병원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87.2점을 받으며 1등급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기념법회에서 이사장 현법 스님은 "보리수요양병원이 안정을 되찾고 최고의 시설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는 임직원들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약사여래 원력이 녹아있는 깨끗하고 안락한 시설에서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자"고 말했다. '최선의 의료서비스' '함께하는 병원' '환자중심의 병원'에 가치를 둔 병원 기조를 강조한 스님은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우수 간병인과 직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박은희, 문명란, 박은 간호사, 간병인, 조리실장 등에게 표창장과 함께 골드바 등이 수여됐다.

2015년 7월 개원한 보리수요양병원은 김포 용화사 경내 위치해 있다. 연면적 449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80병상을 갖추고 있다.

임은호 기자

참좋은우리절 베트남 관불법회 봉행

베트남 부처님 오신날 맞아 특별법회


베트남 불자들이 참좋은우리절에서 관욕의식을 하고 있다.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이 베트남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베트남불자들을 위한 관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관불법회에는 참좋은 우리절 석현 스님, 수일 스님, 베트남 출신 심동 스님과 베트남 불자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베트남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의 장기자랑에 이어 스님 모시기, 귀빈소개, 꽃 공양,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 한국스님 인사말, 참좋은우리절 신도대표 인사말, 스님 배웅, 베트남 스님 법문, 관불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석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에 참석한 다문화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한다" 며 "부처님께서 혼탁한 세상에 오신 것을 찬탄하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 장애 모두 잘 헤쳐나 갈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베트남 출신 심동 스님은 부처님 일대기를 설명하고, "베트남 불자들이 늘 부처님께 의지하며 타국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베트남 출신 이현진 불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법회를 보게 되어 기쁘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는데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일 년에 한 번 있는 부처님오신날에 베트남 심동 스님의 베트남어 법문을 듣고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본사는 5월 17일 동국대 건학위 지역미래불자장학에 참여해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선본사, 지역미래불자장학 1천만원 쾌척

동국대 건학위 17일 전달식

갓바위 선본사(주지 혜안)가 지역 출신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5월 17일 교내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3회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 불자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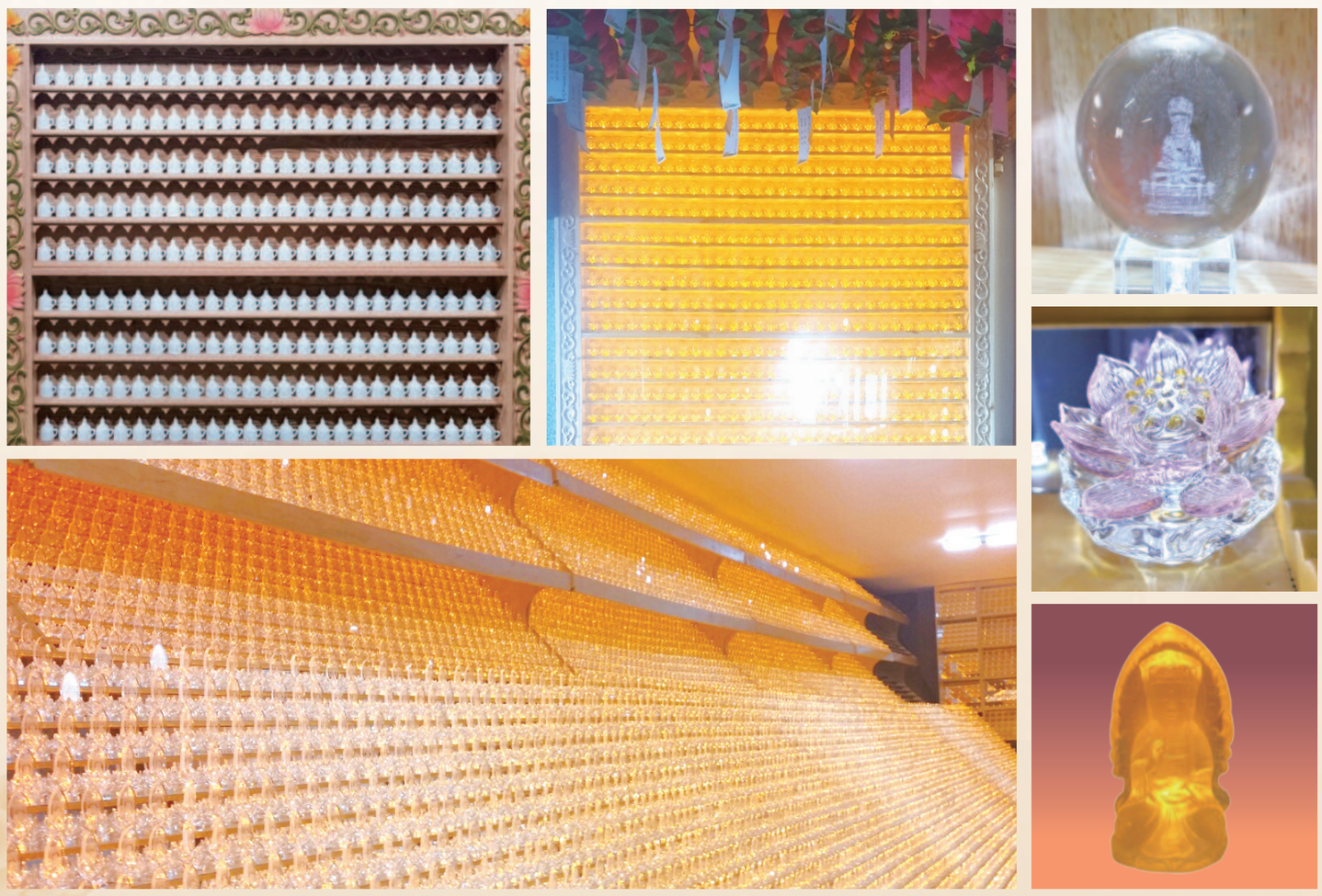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갓바위 선본사는 한국의 어머니들이라면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 한 번은 가는 영험한 기도 도량이다. 그런 도량에서 동국대에 장학금을 전달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선본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10명의 불자 아들 딸들이 생긴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처가 생겼다. 특히 학생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공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본사 주지 혜안 스님은 "지역 사찰과 연계해 10명의 미래 불자를 육성하는 장학제도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오기 전 장학생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를 읽었다. 그 안에는 학생들의 꿈이 담겨있었다. 앞으로 선본사는 학생들의 꿈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영험한 기도 도량인 선본사에서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 향후 10년 내에는 모든 재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사회에 기여하고 누구나 보내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UN 베삭데이, 각국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코로나19 이후 공개 대중 법요 활발
싱가포르, 3년만 법회에 참배객 몰려
힌두교도, SNS 봉축 메시지도 전달
대중공양 금지 등 규칙 그대로 적용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이 오신 베삭데이를 기념하는 싱가포르 불자들. 사진출처=더 스트레이츠 타임즈

전통적으로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남방불교권과 여러 경전들을 보면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열반은 모두 4월 보름에 이루어 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1999년 제54차 UN총회에서 매년 음력 4월 보름을 '베삭데이(Vesak day)'로 공식 채택한 이후 이날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처님오신날로 기념해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몇 년간 국제 베삭데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돼 왔다. 최근 코로나19가 진정세에 들고 여러 나라에서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베삭데이를 기념하는 대중법요가 활발하게 봉행됐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 '힌두스탄 타임즈'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등 외신은 5월 15일 각국의 베삭에 대해 보도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개적인 대중법요가 3년 만에 봉행됐다. 지난달 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대중들이 모여 봉축법요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참배객들의 실내마스크 착용, 대중공양 금지 등의 필수적인 규칙은 그대로 적용됐다. 이에 맞춰 법요식의 진행방식도 방역기준을 지켜 봉행됐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티베트 불교 사찰인 텍첸쵤링(Thekchen Choling)사원은 참배객들이 아기부처님을 관욕하고, 이 물을 머리나 몸에 뿌려 가피를 받는 행사를 중단했다.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관욕식을 봉행하고 기도를 마친 물을 한 병씩 나눠줬다. 또 자가격리 등으로 장거리 이동이 제한되는 불자들을 위해 관욕대를 실은 트럭을 운행하며 행인들과 불자들이 봉축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다른 사찰인 보각사(普覺寺)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13개 시간대에 각 500명의 신도들로 제한해 온라인 예약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사찰 등을 방문하고 보각사로 발걸음을 옮긴 많은 불자들로 사찰 측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참배객들이 몰렸다고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전했다.

텍첸쵤링의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에드윈 통 싱가포르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의 대유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것처럼, 사회에 기쁨이 다시 오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최대 불탑유적이 있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도 다시 공개적인 봉축법요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불교협회는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각자의 사찰에서 베삭 법요가 봉행됐다. 그러나 다시금 보로부두르에서 1200명의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 탄생을 기릴 수 있게 됐다"며 봉축법요의 부활을 알렸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부처님오신날 표어는 '진정한 행복을 향한 지혜의 길'로 선정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7월 사원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면서 불교성지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야쿠트 촐릴 쿠마스 종교부 장관은 "이번 법요식을 계기로 전세계 불교도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알려지길 바란다"며 다시금 봉행되는 법요식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인도도 베삭을 맞아 봉축분위기가 돋보였다. 특히 비슈누신의 화신으로 믿는 힌두교도들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베삭을 기념하면서 SNS를 통해 서로 봉축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힌두스탄 타임즈는 SNS에서 전하기 좋은 10가지 봉축메시지 예시를 공개하며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의 인도로 우리의 삶에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난당한 불상, 인터넷 경매서 발견

300년 된 불상, 보안 미비로 도난
경찰·옥션 협업해 경매 도중 환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월천자상.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일본에서 도난당한 불상이 인터넷 옥션에서 발견됐다. 우여곡절 끝에 원래 자리로 돌아온 불상에 대해 일본 '산케이 신문' 'NHK 교토' 등이 집중 보도했다.

교토에 소재한 일련종의 대본산 류혼지(立本寺)는 14세기에 창건된 고찰로 교토에 소재한 일련종의 8대 사원 중 하나다. 지난해 6월 경내에 호법신들을 모신 찰당(刹堂)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당내에 봉안돼 있던 월천자(月天子)상이 도난당했다. 류혼지 측은 "평소 공개하지 않는 당이었기에 보안시설 등이 미비했다"면서 "일반공개에 맞춰 참배하러 왔던 한 신도분이 불단이 허전하다고 알려와 불상이 도난된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도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류혼지 측은 교토경찰에 도난신고를 내고 불상의 행방을 찾았다.

월천자상은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불상이다. 높이 약 50cm, 보관을 쓴 천신 형태로 가슴께에 올린 두 손 위에 토끼가 조각된 둥근 월륜(月輪)을 손에 받쳐 들고 있다. 아직 문화재 지정을 받지 않았으나 류혼지 측은 절이 중창된 1708년 전부터 모셔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최소 300년 이상 된 불상이라고 전했다.

류혼지의 관수(貫首) 미키 다이운 스님은 "불상이 도난당한 이후 마치 가족이 납치된 마음으로 밤잠을 설쳐왔다"며 그간의 고충을 밝혔다.

지난 1일, 한 신자가 일본 인터넷에서 가장 대규모로 미술품이 거래되는 경매 사이트 '야후옥션'에 이 월천자상이 출품된 것 같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즉시 경매사 측에 연락해 익일 출품이 취소됐다.

출품자는 "지난달 교토에서 열린 고미술상 전문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며 도난품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인터넷 경매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6일 류혼지로 돌아온 월천자상은 큰 훼손 없이 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월천자상 앞에 손을 모을 수 있다는 일상의 고마움을 재차 통감했다는 다이운 스님은 "월천자상이 도난당한 걱정스러운 나날이었지만, 일상의 감사함에 대해 생각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도난범에 대해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세상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만달레이 승가, 군부 행사 보이콧

베삭 맞아 쌀 전달 계획 무산
"보여주기 식 행사는 무의미"


만달레이 시에 걸린 보시 독려 광고. 사진출처=더 이라와디

미얀마 만달레이의 스님들이 군부가 주최한 보시 행사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미얀마 및 동남아시아 뉴스를 전하는 '더 이라와디'는 5월 12일 만달레이 스님들의 용감한 결단에 대해 보도했다.

미얀마 군부는 남방불교의 부처님오신날인 베삭에 맞춰 5월 14일 1만여 명의 스님들에게 쌀과 보시금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군부는 만달레이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초대하고 거리 안내문을 세워 주민들에게 보시를 독려했다. 그러나 만달레이의 승가협회는 소속 스님들에게 군부가 주최하는 불교행사 및 보시행사에 불참할 것을 촉구했다.

만달레이 승가의 수장 우라자 담마 스님은 "수 천 건의 살인과 마을을 불태운 군부의 보시는 무의미하다. 나는 불자들의 보시로 먹고사는 승려로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인 군부정권의 피로 물든 보여주기식 보시를 받지 말 것을 촉구한다. 승가의 스님들이 모든 군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만달레이 주민들 역시 "군부 정권이 정부를 불교의 수호자로 비춰지길 바라며 평화와 안정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묘사하기 위한 부적절한 시도"라며 보시행사를 비판했다. 군부는 이전에도 미얀마력 새해에 4000명의 만달레이 스님들에게 쌀 공양을 시도했으나 스님들의 보이콧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만달레이의 현지 소식통은 "군부 독재자들은 자신들만이 불교와 미얀마를 수호할 수 있다며 불교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미얀마 국민들은 현 군부 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통제할 수 없다"면서 "군부는 국가의 안정성이 회복됐고 종교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현재 만달레이에서 반군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우 아가운사 스님은 "비구들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약탈해 얻은 재산을 받을 수 없다"면서 "군부는 불교를 내세워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 하고 있다. 신실한 불자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군부의 보시행사를 비판했다. 만달레이의 승가가 군부의 공양을 거부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1990년대 군부독재 시절, 군부가 민간의 보시를 금지하고 정부를 통한 보시만을 인정하던 때에도 군부의 그 어떤 보시도 거절했다.

만달레이시는 미얀마에서 가장 많은 출가자가 있으며, 우안거에 매년 13만 명의 출가자가 안거에 들었다. 그러나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약 7만 명으로 줄었다. 현재 만달레이에서는 스님들의 주도하에 반군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100명 이상의 스님들이 만달레이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구금됐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간다 불교센터, 이재민 구호 식량 12t

화재 피해 230여 가정 도와
이웃 종교에 지원 동참 촉구


이재민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우간다 불교센터. 사진출처=우간다 불교 센터

지난 5월 8일, 아프리카 뉴스 집계 사이트 '올아프리카'는 우간다 불교센터의 구호 식량 기증소식을 전했다. 우간다 불교센터는 2005년 우간다에 설립된 최초이자 유일한 불교사원으로 테라와다 불교를 포교하는 센터다.

지난 12월 엔테베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택 200여 채와 상점, 기타 임시 구조물 등 수백만 실링 상당의 재산이 소실됐다.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우간다 불교센터는 우간다와 해외의 구호기금을 기부받아 230여 가정에 각각 옥수수 가루 30kg, 콩 10kg, 설탕 2kg, 식용유 2L 등 통 12t 가량의 구호 식량을 기증했다.

우간다 불교센터를 이끄는 코보고자 붓다락키타 스님은 "출가자로서 불교의 자비와 보시를 행하는 것이며 이는 특권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우리 센터가 한 일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의 일부를 지원했을 뿐"이라며 "이재민들은 물질적인 지원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심리적인 도움도 필요하다"면서 우간다 종교간 협의회 산하 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우간다와 이웃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촉구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사)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 담**

이 사 **인각 법광 만법 도각 법공**
감 사 **대성 혜원**

각 교구장 및 대의원 일동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상 심곡**
총 무 원 장 **법응 정관**

연수원장 **용정 일월** 교육원장 **월화 법봉** 포교원장 **금화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고시원장 **보화 원도**
총무국장 **무화 무경** 사회국장 **용화 해월**
부산교구종무원장 **보화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8~5/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중론:산스끄리뜨계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김성철/개정본)바코드변경판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2	법륜스님의 금강경강의(금강반야바라밀경)	법륜스님	정토	7	숨길따라 가는 길(암도스님)	여산암도	맑은소리맑은나라
3	육조법보단경(큰수레총서9)	육조혜능/학담	큰수레	8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 크신 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4	명상이 가져다 준 선물:지금 이순간이 내삶의 전부다	조치영	운주사	9	황벽산의 메아리(깨달음의 외길 조사선3)전심법요완릉록 강설	원오 역해	무량수
5	49재와 136지옥:죽은 뒤의 중음세계와 지옥순례	허암	운주사	10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8편 수록 *법정스님 원적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책세상

"바른 길 전하는 화엄경, 꼭 한번들 읽어보세요"



대방광불화엄경(전 10권)
일초 스님 번역/민족사 펴냄/총 36만원



비구니 강백 일초 스님
'화엄경' 번역본 완간해
원문, 번역문 병행 수록
대조하며 뜻 이해 가능
6월14일 동학사서 봉정

〈대방광불화엄경〉(이하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도한 깨달음의 내용을 설법한 경전으로 대승불교 경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에는 일곱 장소(7처), 아홉 번의 법회(9회) 형식을 빌어 마치 한 편의 대하드라마처럼 광대하고도 황홀한 부처님의 세계와 그 세계로 향하는 보살들의 여정(普賢行)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다. 특히 〈화엄경〉 결론 부분이라 할 수도 있는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구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로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 자기 마음속에 나타난 경계(自內證)를 그대로 털어 놓은 만큼 수행력이 뒷받침돼야 〈화엄경〉의 본뜻을 파악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을 〈화엄경〉을 비롯한 경전을 강의해 온 비구니 강백인 동학사 화엄학림 학장 일초 스님〈사진〉이 실차난타가 한역한 80권 분량의 〈화엄경〉을 완역해 출간했다. 국내 최초로 〈화엄경〉의 게송을 모두 뽑아서 원문과 함께 현토 · 번역한 〈화엄경 게송집〉(2016)을 출간한지 6년 만이다.

일초 스님에게 〈화엄경〉은 사문으로서 시작과 같다. 〈화엄경〉을 읽으면서 출가를 결심했기 때문이다.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찾은 절에서 번역된 〈화엄경〉을 읽으며 숨 쉴 수 없는 가슴의 먹먹함과 나도 모르게 흐르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모든 철학 서적들이 너무나 얕은 이야깃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출가를 결심하고 삭발해 부처님 경전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렇게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화엄경을 통해 발심 출가하고, 한평생 강원에서 화엄경을 가르친 일초 스님이 〈화엄경〉 번역에 나선 것은 2018년 4월부터다.

스님은 특별히 〈화엄경〉 공부를 발원한 학인들을 모아 직접 가르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80권의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씩 3년 넘게 읽고 또 읽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온 정성 다해 새롭게 현토 · 번역 작업을 했다.

한 페이지의 왼편에는 경전 원문, 오른쪽에는 번역문으로 2단 편집하고, 될 수 있으면 직역을 한 것도 경전 원문과 대조하면서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가 익고 문리가 터질 수 있을 거라는 바램의 소산이었다. 그동안 출판된 여타 〈화엄경〉 번역서와 차별되는 특징도 여기에 있다.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누군가 이 책을 보고 옛적에 내가 그랬듯이 먹먹한 가슴과 흐르는 눈물이 있어서 출가를 결심하고, 또 후대에 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발원하며 이 책을 탈고했습니다."

일초 스님은 〈화엄경〉 번역본을 읽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도 했다.

"〈화엄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마음이 범부와 부처를 만들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그 자리가 곧 지옥입니다. 나쁜 마음은 자신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합니다. 〈화엄경〉을 읽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으면 합니다."

한편, 동학사 · 동학사 승가대학 · 화엄학림은 일초 스님의 〈화엄경〉 번역본 출간을 기념해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 봉정법회를 봉행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막힌 길서 벗어나 새 길 찾자 …삶이 분명 극적으로 바뀐다"

인생 막막하고 지칠 때 열어보면 길이 보이는 책
이 시대 고통받는 이들 위한 노철학자 지혜 담아





길위의 길
송석구 지음
한스컨텐츠 펴냄/1만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마음으로 인한 내적 고난이든지, 외부 변화에 따른 뜻하지 않던 어려움이든지 고난에 맞설 때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 책은 세상살이에 지칠 때 우리가 고향의 가족들을 찾아 힘을 얻듯이, 답답할 때 한 번씩 꺼내서 읽고 도움 받는, 그런 편안함을 주고자 한다. 해법은 고난보다 많다. 세상이란 지도를 읽는 지혜와 통찰을 가진다면 밝은 길은 항상 우리 앞에 늘 열려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이 시대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노철학자의 지혜가 담겨진 서신들을 묶은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와 전통 철학의 심오한 교훈 그리고 동서고금 현자들의 주옥같은 통찰을 쉽게 풀어서 들려준다.

저자는 책에서 강조한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지 마라.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 나은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좌절할 뿐"이라며 "길 위에 또 다른 길이 있고, 그 길을 찾으면 우리는 인생을 막힘없이 평안하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다. 막힌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 더 나은 길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제 참 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고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2차원의 평면 세계를 사는 개미는 눈앞의 물건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 물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물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위라는 입체의 공간으로 올라간 것 뿐"이라며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벽에 막힌 것 같은 순간을 만나는데, 만일 그때 스스로 좌절한다면 정신적 고통에서 오랫동안 허우적거리며 괴로워 할 뿐"이라며 "길 위에 또다른 길이 있고 그 길을 어렵지만 찾는다면 그 이후 우리는 인생을 막힘없이 평안하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다"고 당부한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듯이 읽지 않아도 된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우리가 고향 가족들을 찾아 힘을 얻듯이, 답답할 때 한번씩 꺼내서 읽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책이라는 의미일 것 같다.

▲저자 송석구는?

충남 대전 출생으로 동국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국립대만대학 철학연구소에서 수학했다.

동국대 · 동덕여대 · 가천의대 총장,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동국대서 철학교수로 재직했으며, 평생 교육계에 종사했다. 교단에서는 한국철학을 주로 강의했다.

저서로는 〈한국의 유불사상〉 〈송석구 교수의 율곡철학 강의〉 〈송석구 교수의 불교와 유교 강의〉 〈바람이 움직이는가 깃발이 움직이는가〉 〈대통합〉 〈율곡의 공부〉 등이 있다. 유교와 불교를 회통하는 동양철학으로 일가를 이루고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항상 마음의 안정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마음이 조용하다면 화를 참아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포용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사랑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하루하루 내가 얼마만큼의 포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하다보면 조금씩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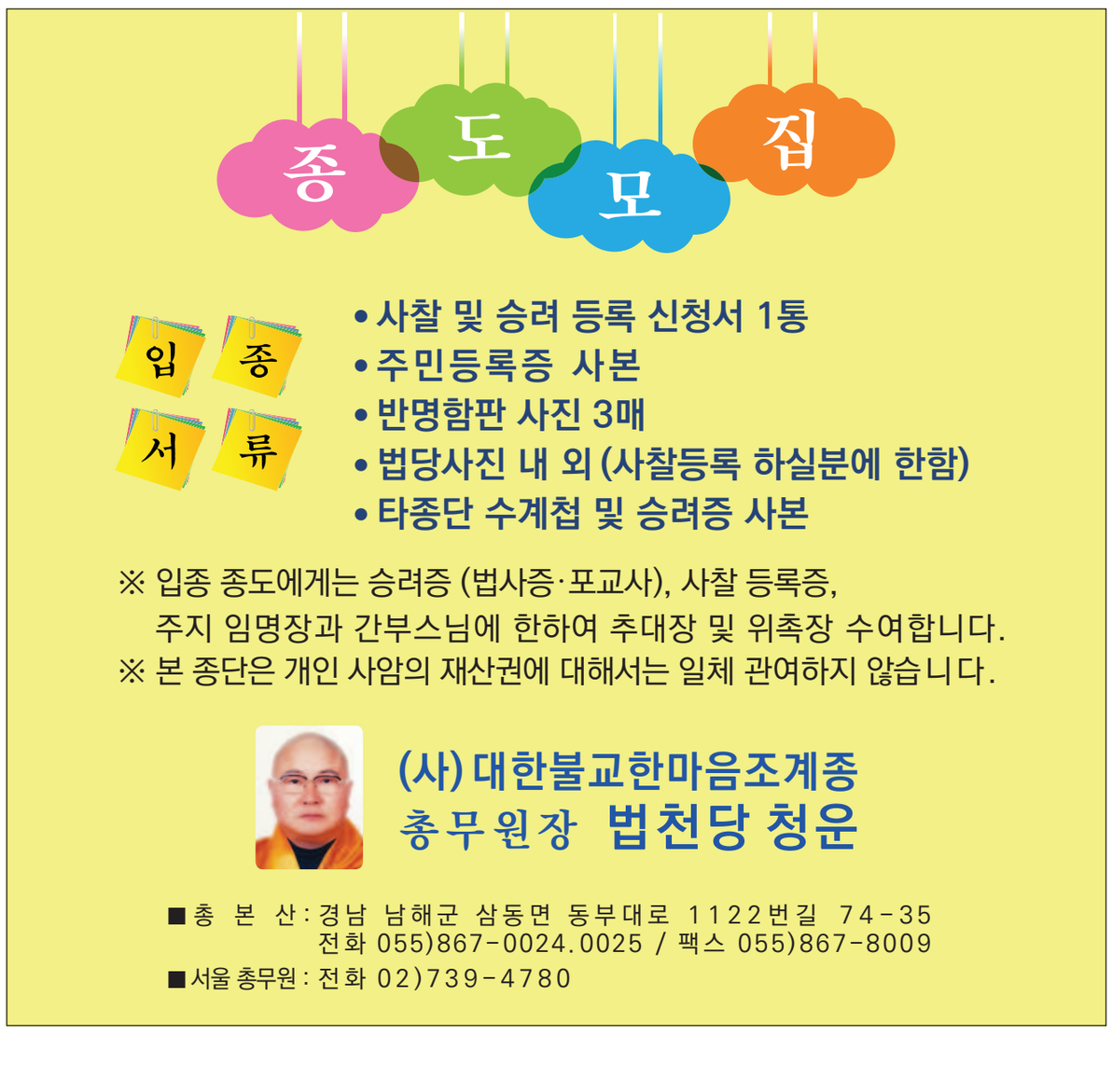
탐욕이라는 것은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초월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객관화시키라는 의미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옛 불교 〈원시경전〉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 어떤 사람이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잃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을 살릴 수 없을까요?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라며 부탁했다. 그러자 부처님이 아랫마을에 가서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 오라는 주문을 했다. 그 사람은 이 집 저 집을 다 돌아다녀보았지만,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 모두는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몸만 깨끗하거나 더럽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다.

이 이치는 비단 몸에만 적용됨이 아니다. 사회는 부, 명예, 외모 등 외적인 기준에 따라 분별한다. 나와 비슷한 집단인가 다른 집단인가로 구분하여 태도를 달리한다.

이러한 눈먼 자들이 차별과 집단 이기주의를 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기준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같은 사람으로 평등하다.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고 본질을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길 바란다."





마주한 부처님 미소로 치유의 시간을…

부산박물관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 展
5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획전시실

국보 3점, 보물 12점 등 불교 미술 110여 점
건칠희랑대사좌상 국보지정 후 첫 외부공개
불복장작법 영산재시연 등 부대행사도 진행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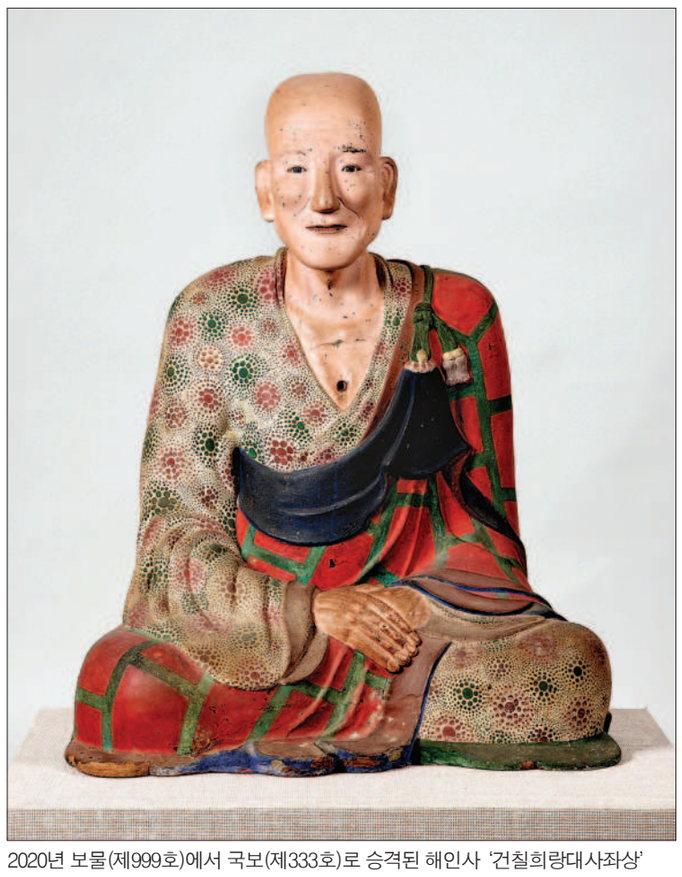
불교미술의 걸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부산시립박물관(관장 정은우)은 2022년 첫 번째 특별기획전으로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를 5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중을 불교의 세계관을 통해 치유하고 희망과 도약을 기원하는 이번 전시는 합천 해인사, 남해 용문사, 창원 성주사, 양산 통도사, 예천 용문사, 부여 무량사, 서울 경국사,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등 전국 16개 주요 사찰과 박물관·미술관이 소장해 온 불교미술의 정수(精髓) 11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2020년 보물(제999호)에서 국보(제333호)로 승격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이 국보 지정 후 처음으로 해인사 밖에서 대중에게 소개된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활동한 고승 희랑대사(생몰연대 미상)의 모습을 조각한 유일한 조사상이다. 희랑대사는 화엄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해인사 희랑대에 머물며 정진했다고 전해진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왕건은 그 보답으로 토지를 하사해 해인사 중창을 도왔다고 한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조각(祖師像·僧像)'으로, 고려 10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유사한 시기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고승의 모습을 조각한 조사상이 많이 조성됐지만, 한국에서는 유례가 거의 없었다.

전시는 총 4부로 나뉜다. △1부, 〈佛像, 부처님의 참모습〉에서는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수작으로 손꼽히는 국보 '금동보살입상'과 '건칠희랑대사좌상'을 비롯해 이색적인 형태의 고려시대 불교 조각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조각승의 계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조선 시대 불상도 소개된다.

△2부 '佛腹藏, 염원의 시간'에서는 불상과 불화에 생명력과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작된 '복장물'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현존 복장물 중 가장 오래된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 납석제사리호(이하 납석제사리호)'를 비롯하여 고려, 조선 시대 불복장의 유형과 안립의식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석제사리호는 경상남도 산청군 석남암 터의 석불대좌 중대석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성 시기는 통일신라시대인 766년이다. 사리함 표면의 명문에는 당시 신라의 승려 법승과 법연이 죽은 두온애랑을 위해 비로자나불을 조성했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함께 봉안했다고 적혀있다. 발굴 과정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는 훼손되어 보존되지 못했다. 불상대좌중대석에 법사리를 봉안한 것은 한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다.


2020년 보물(제999호)에서 국보(제333호)로 승격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국보 제200호 금동보살입상

복장물은 〈조상경〉에 근거하여 형식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지만 복장물마다의 발원 이유와 염원의 내용은 다양하다. 그 시절의 간절했던 불심을 공감해 보는 자리다.

△3부 '佛畫와 寫經, 진리의 세계'는 불심의 절정이 담긴 불화와 사경을 선보인다. 50여 점밖에 전하지 않는 고려불화 중 명작으로 꼽히는 '수월관음도'와 '나한도' 등 고려불화와 합천 해인사와 창원 성주사의 '감로왕도', 예천 용문사의 '화장찰해도' 등의 조선불화를 선보인다. 길이 9.5m, 너비 6.3m에 이르는 대형 불화인 '남해 용문사 괘불탱'도 선보인다.

수월관음도는 33관음 중 하나인 수월관음의 모습을 도상화한 불화로,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이 보타낙가산의 연못가 바위에 앉아 선재동자를 맞는 모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국 당말 오대 돈황에서 제작된 수월관음도 군이 현존하는 수월관음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조성된 관세음보살도 대부분이 수월관음도에 속한다.

△4부 '부산 불교미술의 거두, 玩虎 스님'에서는 부산의 영도 복천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 현대 영남지방 불교미술에 큰 영향을 끼친 완호 스님의 작품을 소개한다. 완호 스님은 불교미술의 전통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불교미술의 맥이 오늘날의 영남 지방까지 이어질 수 있게 했다. 또한 규제와 감시가 극심했던 일제강점기에도 완호 스님은 서명에 일본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 등 굳은 항일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14점의 시·도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국보 3점, 보물 12점 등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재까지 유례없이 많은 지정문화재를 선보임으로써 그동안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립박물관은 부대행사로 6월 4일에 불교 전통문화 관련 국가무형문화재인 '불복장작법'과 '영산재'의 시연 행사를 진행한다. 5월 26일과 6월 24일에는 오후 4시부터 약 40분간 전시 기획 학예연구사가 관람자를 대상으로 직접 전시해설을 하는 '큐레이터와의 역사나들이'를 진행한다. 행사 관련 세부사항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공지한다.

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전시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미소를 마주하신 모든 분이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마음을 위로받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얻어 가시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성 대원사 개산 1520주년 기념 특별전


순천 선암사 동종(보물 제1561호)


대원사 사자 탱화(보물1800호) 직부사자

'대원사 성보 문화재 특별전시회'
대원사 티벳박물관 10월5일까지
부도암 범종 등 소장문화재 전시
아도화상 503년 '죽원사'로 개산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이 대원사 개산 1520주년 기념 특별전을 열고 있다. 10월 5일까지 열리는 '대원사 성보문화재 특별전'에서는 대원사 부도암 범종 등 대원사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와 흩어져 있지만 대원사와 인연이 있는 문화재를 선보인다.

△대원사 부도암 범종(보물 제1561호)은 순치 14년(1657년) 당시 최고 범종 장인 김용암이 조성했으며, 전체적인 비례가 아름답고 조각이 섬세하여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조선 중기 대표 명품 범종이다.

△대원사 사자 탱화(보물 제1800호)는 지장보살과 지옥에서 망자를 심판하는 시왕 및 지옥사자를 그린 불화로, 영조42년(1766년) 색민을 수석 금어로 하여 화승 18명이 참여하여 조성한 조선 중기의 뛰어난 불화이다. 1946년 대원사 지장전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광주 덕림사 명부전에 봉안했다가 2003년 4월 10일 다시 현재의 대원사로 옮겨와 티벳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보성 대원사판 〈선문염송〉은 인조14년(1636년) 송광사 제2대 진각국사 혜심이 서문과 함께 선문의 공안 1125칙에 게송을 붙여 판에 새긴 것으로 총 30권 10책으로 되어있다.

△운수단 가사는 인조17년(1639년) 서산대사(1520~1604)가 당시 여러 사찰에서 시행되던 예불문과 영가천도의식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개편 정리한 책으로 보성 대원사에서 간행된 목판본 불서이다. 이 밖에도 청화, 법정 스님의 서화, 통일신라시대 불상 및 경첩 등이 전시된다.

전남 보성 천봉산 대원사는 백제 무령왕 3년(서기503년)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에 의해 창건됐다. 창건 당시의 사명은 죽원사였다. 7세기 이후(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 중 하나인 열반종의 초조 보덕화상의 제자 일승, 심정, 대원 등이 거주하게 되면서 이후 열반종의 8대 가람 중 하나로 거듭난다. 고려 원종 1년(1260년) 조계산 송광사의 16국사(國師) 중 제5대인 자진 원오(慈眞圓悟, 1215~1286)가 중창했으며, 이시기에 사명이 대원사로 바뀌었다. (061)852-3038.

박재완 기자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KBS '6시 내고향' TV방영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땅끝 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사주명리학 · 점술학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동국대 불교학술원, 21세기형 '寺誌' 만든다

학술원 · 화엄사, 17일 MOU… '디지털 화엄사지' 구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경 · 의례 등 디지털 구현
평면 넘어 입체적 조명 가능
내년도 1~2월 경 공개 계획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5월 17일 '디지털 화엄사지'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사진 왼쪽)과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사진 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지(寺誌)'는 사찰 창건 배경부터 연혁을 정리한 일종의 서책이다. 그 안에는 사찰 관련 고문서, 건축물, 문화유산, 재산 목록 등 사찰의 모든 역사와 문화가 체계적으로 수록돼 있다. 특히 불교문학 · 미술사 · 사원경제사 등 한국불교사 연구 전반에 있어서 '사지'가 갖는 위치는 매우 크다.

종이로 인쇄된 서책이었던 사지가 이제는 디지털로 구현된다.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찰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디지털 사지'의 첫 시작 테이프는 지리산 화엄사가 끊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과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는 5월 17일 '디지털 화엄사지'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사업단 문화유산팀이 사업 책임을 맡은 '디지털 화엄사지'는 화엄사의 유형 · 무형 · 기록유산들을 디지털 형식으로 통합 정리해 제공하는 21세기형 사지이다.

'디지털 화엄사지'는 △역사 △인물 △가람 △신행으로 분류돼 다양한 정보들이 플랫폼에 탑재된다. 역사에는 화엄사를 상징하는 성보인 화엄석경을 비롯해 사적 · 사료 · 설화 · 시문 · 일기 · 서간문 · 간행물들이 망라되며, 인물에는 화엄사의 역대 고승과 소임자들의 정보가 정리 · 수록된다.

가람 부문에는 사역과 전각 · 암자 · 사이버 성보관이, 신행 부문에는 승가교육 · 재가교육 · 법어 · 의례들이 망라될 예정이다.

'디지털 화엄사지'에 포함될 자료들도 방대하다. 불교학술원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를 비롯해 국가문화유산포털,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규장각, 한국고전종합DB 등 각종 데이버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수집해 '디지털 화엄사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화엄사 관련 단행본과 학술논문, 학위논문, 보고서, 발표자료집도 수록하며 문화유산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자세한 사진 기록물과 동영상들도 탑재된다.

이 같은 '디지털 사지'는 기존 고문헌 사적기가 가지는 평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입체적인 조명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메타버스 등에 적용될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은 "불교의 경우 역사 기록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기록이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불교에 대한 기록들을 제대로 정리해 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지금까지 도량과 전각불사를 위주로 해왔지만 사지를 디지털 플랫폼화하는 불사도 이 시대에 필요한 불사라고 본다"면서 "디지털 사지를 화엄사가 처음 시도하지만 다른 교구본사 문화유산들도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장은 "디지털 방식으로 구축되는 사지는 기록유산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축척된 정보들을 콘텐츠화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디지털 사지는 앞으로 한국불교에 꼭 필요한 불사"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김종욱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장,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 도윤수 디지털사지팀장, 강선정 화엄사성보박물관 부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디지털 화엄사지'는 자료 수집과 플랫폼 구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1~2월 경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주어사지 건물지 · 명문기와편 확인

불교문화재硏 5월20일 시굴 조사 현장 설명회

조선 후기 천주학을 공부하던 학자들을 보호해줘 폐사됐던 주어사지를 시굴조사한 결과, 전각 건물지와 명문기와편이 발견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5월 20일 여주 주어사지에서 시굴조사에 대한 조사성과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어사지 시굴조사는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역사 고증작업을 위해 사지(寺址)조사 전문기관인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5월 10일부터 실시했다. 이번 시굴조사는 주어사지의 범위와 유적의 실체를 확인하고, 향후 보존 · 정비를 위한 학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주 주어사지서 발견된 건물지 기단 모습.

불교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건물지 3동, 담장, 석렬, 경작지 등 조선시대 주어사지 관련 유구와 폐사 이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숯가마가 확인됐다. 유물은 추정 '조와이주신(造瓦以主信)' 명 기와편, 범자문 암막새편, 백자편, 상평통보 등이 출토됐다.

주어사지 중심사역에서는 건물지, 담장, 축대 등이 확인됐고, 건물지 내부에는 구들장과 온돌시설이 남아있다. 숯가마 하부에서는 건물지가 확인되며, 이는 금당지로 추정된다.

여주 주어사지는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앵자봉 서쪽 기슭에 위치하며, 창건연대 및 폐사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해운당대사 의징의 비석에 '崇禎紀元後戊寅五月日'(1698년 5월)에 '상좌 수견천심이 세웠다'는 기록과 정조 3년(1779)에 진보적 남인 실학자인 '권철신이 천진암 주어사에서 육경과 양명학 등을 강학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17세기 후반 이전부터 운영됐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향후 주어사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 정비, 복원 등이 이뤄진다면 또 다른 여주 지역 대표 문화유적이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유심작품상 이문재 · 이우걸 · 이상문 수상

특별상 신경림 석좌교수 선정 선양회, 오는 8월 11일 시상식

제20회 유심작품상에 이문재 시인의 '혼자 혼잣말'과 이우걸 시조시인의 '국어사전', 이상문 소설가의 '불호사'가 선정됐다. 특별상엔 신경림 동국대 석좌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5월 11일 '제20회 유심작품상' 시 · 시조 · 소설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유심작품상 심사위원회는 시 부문 수상자 이문재 시인에 대해 "꾸밈없는 필력과 현실 · 비현실의 거침없는 이미지의 호출, 짜임새, 마지막과 시작을 느낌안과 밖으로 끝도 없이 들락거리게 하며 이어지게 했다"고 호평했다.

시조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우걸 시조시인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역동적인 이미지로 시조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상문 소설가에 대해서는 "수상작 '불호사'는 매우 복잡한 사건과 여러 갈래의 긴 이야기를 간결한 호흡으로 정돈된 서사에 힘입어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문재 시인


이우걸 시조시인


이상문 소설가


신경림 석좌교수

이문재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아직 멀기만 한 제 시를 눈여겨 봐주신 심사위원과 문학상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으며, 이우걸 시조시인은 "운문성 가득한 우리 시대의 노래를 쓰는데 남은 생을 바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소설가는 "남은 인생을 소설가답게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8월 11일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상담 · 음악 등 어우른 특별 체험행사 열린다

28일 명상심리상담학회 주최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이필원)는 5월 2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동행, 함께 하는 부처님오신날'을 주제로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총 3부로 진행되는 이날 기념행사는 △1부 부처님 탄생의 세 가지 접근 △2부 피아노로 듣는 부처님오신날 △3부 가르침의 현대적 적용으로 나눠 이뤄진다.

1부에서는 △인간 붓다(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신화적 상상력의 붓다(김진영 서강대) △우리 시대의 붓다(최경아, 동국대)가 발표되며, 3부서는 △붓다의 명상, 아나빠나사띠 체험하기(강명희, 동국대)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생활명상수련(공응경, 세계사이버대) △명상에 기반한 고집멸도 에니어그램(박명석, 한국명상상담교육원) 등이 소개된다.

2부 음악 토크콘서트에서는 김준희 인천대 교수가 △차이코프스키 '사계' 중 4월 '스노우드롭' △슈만 - 리스트 '봄의 믿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제3악장을 연주한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고집멸도 에니어그램'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참가비는 1만 원(학생 5000원, 스님 무료)이며, 카카오톡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상담학회 '심신의학' 학술대회

5월 28일, 경주 지엄선실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5월 28일 지엄선실(경주 금장4길 2)에서 '불교와 심신의학'을 주제로 제17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불교의학과 심신치유(윤종갑 동아대) △후성유전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발표 이정구 인제대) △한의학에서 본 명상과 건강(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 순으로 발표하며, 논평은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이사 현암 스님, 문일수 동국대 의대 해부학 교수, 이태호 여명힐링센터장이 담당한다.

학술대회는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하며, 비대면 참가자는 오후 1시 30분 웹엑스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미팅번호는 2555 989 7426이며 패스워드 123456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6

▶ 67회 예고
아쇼까왕은 아버지 빈두사라왕이 했던 대로 날마다 6만 명의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한편, 수상 라다굽따의 충언을 듣고 지옥궁전 옥주 전타기리가를 선발한다. 잔혹한 그는 공포를 조장하여 아쇼까왕의 통치를 돕는다.



띠쉬아락시따, 꾸날라를 유혹…

침전의 침실 창턱에 달빛이 얹혔다. 아쇼까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서 서성였다. 창 너머로 검푸르게 흐르는 강가강이 보였다. 아직 안개가 강가강을 점령하지 않은 자정 전이었다. 아쇼까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친위대 군사들에게 납치되어 죽은 이복형제와 신하들 때문이었다. 원로대신 칼라따까의 모사로 죽었다고는 하지만 아쇼까도 살해에 깊숙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었다. 아쇼까가 명을 내렸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으므로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고 봐야 옳았다.

남은 왕자는 친동생 비가따쇼까 단 한 사람뿐이었다. 15세의 어린 비가따쇼까가 아쇼까의 정적이 될 수는 없었다.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안심해도 될 법했지만 아쇼까의 마음은 그러지 못했다. 아쇼까는 지독한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새롭게 맞아들인 젊은 왕비 띠쉬아락시따가 아쇼까의 마음을 알 리 없었다.

"대왕이시여, 무슨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한 달 후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관식을 치르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소."

"마음이 격동되시어 그러십니까?"

"잘 모르겠소."

"마음을 안정시키는 차가 있습니다. 차를 한 잔 드시십시오."

"무슨 차를 내오겠다는 것이오?"

"따뜻한 짜이에 재스민 차를 타서 가져오겠습니다."

짜이에 재스민 차가 들어가면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띠쉬아락시따는 궁녀에게 들었던 것이다. 띠쉬아락시따는 다실로 들어가 궁녀를 깨워서 짜이와 재스민 차를 만들어 섞게 했다. 띠쉬아락시따가 말했다.

"주전자만 찾아다오. 잔은 침실에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도 있답니다."

"알았어. 너는 모르는 게 없구나."

사실 아쇼까만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띠쉬아락시따도 아쇼까 옆에서 잠든 척했을 뿐이지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띠쉬아락시따는 눈만 감으면 꾸날라가 떠올랐다. 꾸날라의 눈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꾸날라의 호수 같은 눈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아쇼까의 품안에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꾸날라를 본 적도 있었다.

며칠 후.

띠쉬아락시따는 참지 못하고 일몰 무렵에 꾸날라를 자신의 별궁으로 불렀다. 그녀는 몸 구석구석에 향수를 바르고 붉은 비단 사리를 입고서 꾸날라를 맞이했다. 꾸날라는 별궁 다실로 그녀를 뒤따라 들어갔다. 띠쉬아락시따가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다.

"대왕님은 갑자기 일이 생기어 오시지 못해요."

"아버지가 오신 줄 알고 공후를 가져 왔습니다. 아버지는 공후 연주를 좋아하시거든요."

아쇼까가 온다는 것은 꾸날라를 부르기 위해 꾸며낸 그녀의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나도 좋아하니 연주해 줘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꾸날라는 공후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그제야 짜이를 마셨다. 짜이는 달콤하고 따뜻했다. 띠쉬아락시따가 시녀에게 눈짓으로 지시하자 밖에 대기하고 있던 시녀들이 준비해둔 음식들을 순식간에 날랐다. 커리의 그릇이 다섯 개나 되었다. 그릇에는 달고 맵고 시고 짜고 떫은맛을 내는 색색의 커리가 담겨 있었다. 술이 담긴 은제주전자도 나왔다.

"자, 시장할 테니 저녁식사부터 해요."

"예, 왕비님."

꾸날라는 마침 시장했으므로 허둥지둥 먹었다.

"너무 빨리 먹지 말아요. 자, 술도 한 잔 해요. 소화가 잘 될 테니까요."

술은 독주였지만 목구멍을 넘어갈 때는 포도주처럼 부드러웠다. 꾸날라는 술을 마신 뒤에도 공후를 연주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녀가 주는 대로 잔을 받았다. 그러나 식사가 끝나가는 초저녁 무렵이었다. 꾸날라는 독주를 여남은 잔 마신 뒤부터 정신을 잃었다. "아!"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의자에 앉은 채 옆으로 쓰러져버렸다. 띠쉬아락시따가 시녀들에게 말했다.

"술이 몹시 약하시구나. 이대로 가실 수 없으니 내 침실 옆방으로 모시거라."

왕비 침실 옆방은 그녀의 부모나 친척이 오면 잠시 머무는 곳이었다. 꾸날라는 곧 그곳으로 옮겨졌고, 띠쉬아락시따는 자신의 침실에 붙어 있는 목욕탕으로 갔다. 그녀는 옷을 다 벗고 욕조의 물속에 몸을 담갔다. 전단향나무 향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욕조의 물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다. 시녀들은 그녀가 목욕하기 좋아하는 물의 온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시녀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쳤던 것이다. 잠시 후 띠쉬아락시따는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꾸날라가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방으로 갔다. 그녀는 독주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꾸날라의 옷을 벗겼다. 이윽고 꾸날라가 알몸이 되자 자신도 옷을 벗고 옆에 누웠다. 꾸날라는 꿈을 꾸듯 그녀가 하는 대로 허우적댔다. 그녀는 혀로 꾸날라의 몸 이곳저곳을 마음껏 애무한 뒤에야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다.

눈을 먼저 뜬 사람은 꾸날라였다. 꾸날라는 자신이 알몸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옆에는 띠쉬아락시따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다. 꾸날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눈을 뜬 띠쉬아락시따가 꾸날라의 손을 잡아끌며 말했다.



"나는 꾸날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대왕님께 고해바칠 것입니다."

꾸날라가 침대에서 내려와 저주하듯 소리쳤다. 그러자 그녀가 꾸날라를 측은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게 될 테니까."

띠쉬아락시따도 침대에서 내려와 꾸날라를 뒤에서 껴안으며 말했다. 그녀의 뜨거운 입김이 꾸날라의 귓불에 닿았다.

"나는 꾸날라 왕자님이 탁실라로 가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일만 비밀로 해주면 반드시 탁실라로 보내주겠어."

"당신은 천박한 사람이오!"

꾸날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별궁을 도망치듯 나와 버렸다. 꾸날라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공후를 꼭 안고 뛰었다. 안개가 끈질기게 꾸날라를 에워쌌다. 그러나 꾸날라는 띠쉬아락시따에게 붙잡힐까봐 강가강 쪽으로 뛰었다. 잡목이 우거진 언덕 내리막길에서는 미끄러져 한 바퀴 뒹굴기도 했다. 강가강 모래밭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가시덩굴에 찢긴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꾸날라는 모래밭에서 들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새벽을 기다렸다.

띠쉬아락시따는 우두머리 시녀를 불러놓고 꾸날라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분개했다.

"꾸날라가 나를 천박하다고 했어. 나를 모욕한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말겠다!"

"왕비님, 진정하세요."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나에게 저주를 하다니!"

"왕비님, 왕자님보다 먼저 대왕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띠쉬아락시따는 시녀를 앞세우고 아쇼까 침전으로 갔다. 아쇼까가 그녀를 침전 다실에서 맞이했다. 아쇼까는 대관식을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무슨 일이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하고 왔습니다."

"오, 그대는 젊고 마음이 아름답소."

"대왕님께서 칭찬해 주시니 저는 행복하기만 합니다."

"아침 일찍 온 것을 보니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소."

"간밤 내내 생각한 것입니다. 꾸날라 왕자님이 탁실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소. 꾸날라에게 다시 한 번 의향을 묻고 결정하겠소."

아쇼까는 탁실라를 그리워하는 꾸날라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왕자들과 신하들이 죽어가는 왕궁을 진즉부터 떠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대왕님께서 꾸날라 왕자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대관식 전에 탁실라 부왕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꾸날라 왕자님은 대왕님께 더 이상 보내달라고 말을 못할 것입니다. 꾸날라 왕자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부왕으로 보내주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맞소. 꾸날라는 야망이 없는 아들이오. 그게 걱정이오. 그런데 그대가 나서서 보내달라고 하니 고마운 생각이 드오. 아들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려면 공후가 아니라 탁실라로 가서 야망을 키워야 하오."

"대왕님, 잘 됐습니다."

"꾸날라를 불러 확인한 뒤 대관식 전이라도 바로 탁실라 부왕으로 보내겠소."

그래도 띠쉬아락시따는 초조했다. 아쇼까와 꾸날라가 대면하게 되면 무슨 말이 오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때 라다굽따가 급히 보고할 일이 있다며 침전 다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꾸날라의 일로 온 것이 아닌가 하며 불안해했다. 라다굽따가 선 채로 보고했다.

"대왕님이시여, 벌써 도착한 축하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묵을 숙소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대왕님께서 환영한다는 구두 메시지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두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축하사절 단장을 만나 전하겠습니다."

"수상, 그런 메시지는 수상께서 알아서 하시오."

"아닙니다. 그들은 대왕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해 두었다가 자국의 왕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히 구두 메시지를 주셔야 합니다."

"알겠소."

아쇼까가 라다굽따에게 전한 구두 메시지는 '축하사절단을 환영합니다. 나는 나의 대관식을 통해서 그대의 나라와 친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였다. 라다굽따가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아쇼까가 말했다.

"수상, 꾸날라에게 왕명을 전하시오. 꾸날라를 탁실라 부왕으로 임명하니 즉시 떠나라고 전하시오."

"대왕님, 대관식에 참석한 뒤 떠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의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치른 뒤 사랑하는 꾸날라와 헤어지고 싶지 않소. 그래서 대관식 전에 보내고자 하는 것이오."

"대왕님의 마음을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꾸날라 왕자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에게 복수를 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고소해했다. 아쇼까가 꾸날라를 만나지 않겠다는 것도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띠쉬아락시따가 말했다.

"대왕님, 꾸날라 왕자님은 대왕님께 고마워할 것입니다. 가고 싶어 했던 탁실라로 떠나게 됐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나를 옆에서 돕고 있으니 든든하오. 대관식 날 나는 그대를 내 옆에 앉혀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소."

띠쉬아락시따는 자신이 원했던 바를 다 이룬 것 같은 성취감에 눈물을 흘렸다. 아쇼까는 그녀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는 '그대는 순수하고 마음이 여리군!' 하고 중얼거렸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⑩ 보리달마(菩提達摩) · 혜가(慧可)

▶ 한줄 요약
달마의 선사상은 사상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중국선에 본격적으로 '불성'과 '반야'를 결합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선에 본격적으로 불성 · 반야 결합

남북조시기에 남방은 의리(義理)를, 북방은 선정(禪定)을 중시하는 학풍에 따라 북조(北朝)에서 선정이 유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불타선사(佛陀禪師)와 승조(僧稠),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한 승실(僧實)이라고 하겠다. 도선의 〈속고승전〉 권20에는 "북제(北齊)의 하북(河北)에서 승조가 홀로 명망이 높았고, 북주(北周)의 관중(關中)에서 승실이 교화하여 명성이 높이 올랐다. 〈중략〉 그러므로 중원(中原)의 정원(定苑, 定學)에 강령(綱領)을 세우고 전개하게 한 것이 이 두 현자이고, 그 족적을 이어 등불을 전하며 교화의 흐름이 쉬지 않게 된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에 언급되는 승조는 북위의 효명제(孝明帝)와 효무제(孝武帝), 그리고 북제(北齊)의 문선제(文宣帝)로부터 귀의를 받았고, 승실은 북위의 효문제(孝文帝)의 귀의를 받았으며, 북주에 이르러서는 삼장(三藏)의 지위에 올랐다. 북제나 북주 모두 승관제(僧官制)를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황제의 귀의를 받았다는 것은 북조의 불교를 장악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안세고(安世高)의 선수학(禪數學)을 계승한 정학(定學)이 북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리달마(菩提達摩)와 그의 법을 계승한 혜가(慧可)의 선사상이 새롭게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타-승조계의 정학이 장악한 북조에서 달마-혜가계는 상당히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당대(唐代) 도선(道宣, 596~667)이 이들에 대한 자료가 기껏해야 행장(行狀) 정도만 전해짐을 안타까워하며 자료를 수집하여 그들의 전기를 기록한 〈속고승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후대에 달마-혜가는 각각 선종(禪宗)의 초조(初祖)와 제이조(第二祖)로 추대되면서 다양한 전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고승전〉에 실린 달마, 혜가의 전기를 통하여 가장 원초적인 이들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전기에 따르면, 보리달마는 바다를 통하여 남월(南越, 현 廣東省 남부)에 도착하여 북상하여 북위에 이르렀다고 한다. 북위에 이르러 선법을 펼치자 "정법(定法)을 듣고는 많은 비방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으로부터 정학의 세력에 의해 상당히 견제를 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육(道育)과 혜가(慧可)는 달마를 지극하게 섬겼는데, 전기에는 "처음으로 법장(法將)을 만나 도(道)에 귀의(歸依)할 바가 있음을 알고, 친히 달마를 모시기를 4, 5년이 지나도록 공양을 올리며 법을 묻자, 그 정성에 감동되어 진법(眞法)으로 가르쳤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진법'은 바로 '이입사행(二入四行)'이며, 이는 〈속고승전〉에 간략하게 실려 있다.

달마의 전기 끝부분에는 "그 말과 가르침을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세상에 유포시켰다. 달마는 자신의 나이가 150여 세라고 하였으며, 돌아다니며 교화함에 힘썼으므로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혜가의 전기에는 "달마가 낙수(洛水)의 물가에서 멸화(滅化)하였다."고 한다. 이로부터 보자면, 달마는 결코 소림사(少林寺)에서 주석한 적이 없다고 하겠다. 더욱이 불타선사를 위해서 창건된 소림사는 당시 바로 정학의 핵심이었는데, 정학의 무

달마 · 혜가, 선종 초조 이조 추대
정학이 장악한 북조서 핍박 당해

리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은 달마와 혜가가 소림사에 주석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달마의 법을 계승한 이는 바로 혜가(僧可라고도 함)이다. 그의 전기에 따르면, 속성은 희(姬)씨이며 호뢰(虎牢, 현 河南省 滎陽) 출신이라고 한다. 그의 나이 40세에 하남에서 유행하던 달마를 만나 스승으로 받들며, 종지(宗旨)를 계승하여 목숨을 걸고 6년 동안 일승(一乘)의 법을 수학하였다. 그 후에 달마가 낙수에서 멸화하자 혜가는 몸을 숨겼다고 한다. 이러한 전기의 표현에서도 정학의 무리들에 의한 핍박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승려와 신도들이 그를 찾아와 법을 물었으며, 후에 동위(東魏) 천평(天平) 연간(534~537)에 신업(新鄴) 지방에서 비원(祕苑)을 열어 법을 설하자 많은 신도들과 승려들이 모여들었다. 그에 따라 당시 그 지방의 정학으로 유명한 도향(道恒)은 사람을 보내어 법을 듣게 하였는데, 오히려 혜가에게 감복되었다고 한다. 전기에 따르면, "도향은 마침내 깊은 원한을 품고, 혜가(승가)를 비방하고 괴롭히고, 세간의 관부에 뇌물을 주어 이치에 맞지도 않는 구실로 그를 해하려고 하였는데, (혜가는 그들에게) 애초에 하나의 원한도 없었는데도 그를 거의 죽을 지경에 몰아넣고, 도향의 무리들은 기뻐하였다."고 한다.



중국선종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달마.

이로부터 정학의 무리들에 의한 핍박이 상당히 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혜가가 "도적을 만나 팔을 잘렸다."는 구절이 나오고, 법림(法林) 역시 팔을 잘려 당시 사람들이 "무비림(無臂林)"이라고 칭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러한 기사 역시 정학의 무리들에 의한 박해라고 추정되는데, 분소의(糞掃衣)를 걸치고 두타행(頭陀行)을 주로 수행하는 이들에게 도둑들이 탐낼만한 재물은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에서는 이후 신업 지방을 떠돌며 여러 해를 보내다가 사라졌으며, 그를 계승하는 뛰어난 제자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의 전기에는 향거사(向居士)와 법을 논한 편지가 실려 있다.

후대에 선종이 성립하면서 이와 같은 달마와 혜가에게 선종의 초조와 이조의 영예를 부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수많은 전설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들이 달마와 양무제(梁武帝)와의 문답이고, 달마가 광통율사(光統律師)와 보리유지(菩提流支)에 의해 여섯 차례에 걸쳐 독살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혜가가 법을 구하기 위해 팔을 잘랐다는 단비구법(斷臂求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자료수집에 철저했던 도선이 이를 분명하게 언급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달마의 선사상은 바로 〈속고승전〉의 전기에 보이는 '이입사행(二入四行)'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도선은 "그 말과 가르침을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세상에 유포시켰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전기에 기록된 '이입사행'은 바로 그 책으로부터 인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한편 당대(唐代)에 정각(淨覺)이 찬술한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에서는 달마의 저술로 〈약변대승입도사행(略辨大乘入道四行)〉이 있으며, 제자 담림(曇林)이 서문을 썼다고 하고, 또한 담림이 달마의 언행을 기록하여 1권으로 역었으며, 달마가 좌선하는 대중을 위하여 〈석능가요의(釋楞伽要義)〉 1권을 찬술하였고, 그에 따라 〈달마론(達摩論)〉 2권이 있지만, 세상에는 위조된 〈달마론〉 제3권이 유행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달마-혜가계가 유행하던 당대

자교오종 통한 理入 · 行入이 핵심
달마 · 혜가 중국 선종 출현에 일익

에서는 달마의 이름을 가탁한 저술들이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원초적인 달마의 선사상은 바로 〈속고승전〉의 전기에 기술된 내용이라고 하겠으며, 그를 통해 달마의 선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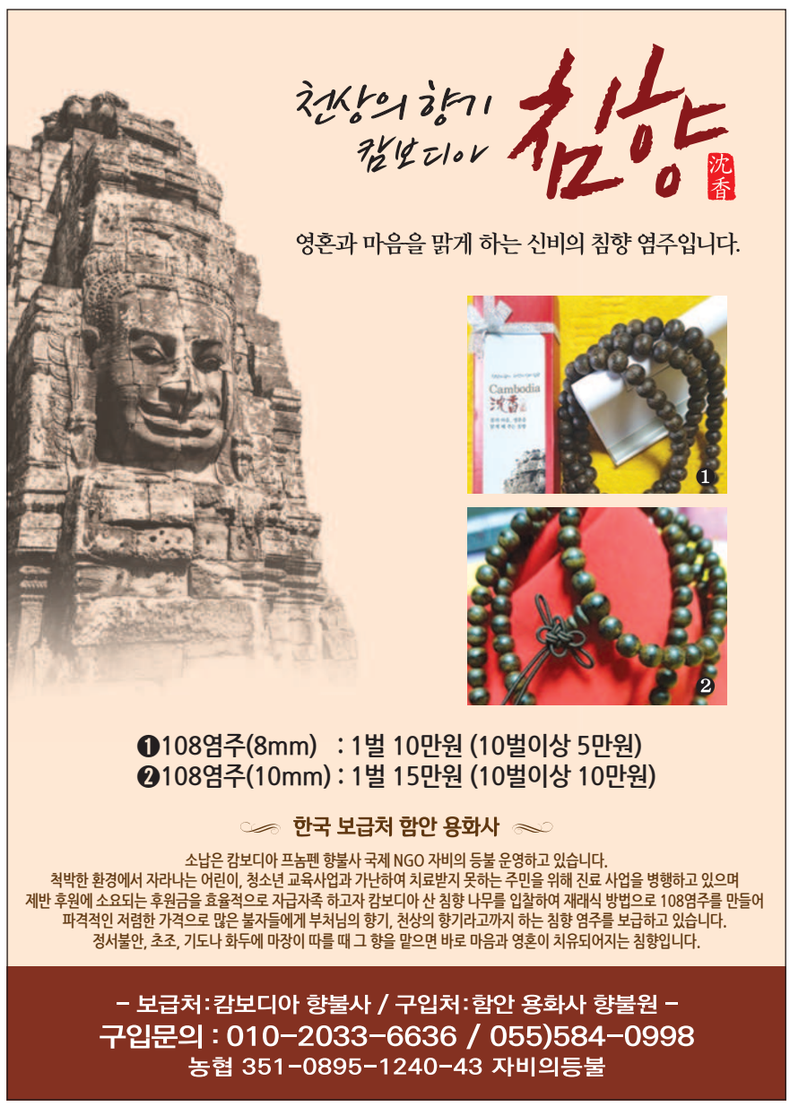
〈속고승전〉 달마의 전기에는 다음과 같이 '이입사행'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심법(安心法)을 벽관(壁觀)이라고 한다. 〈중략〉 그러나 입도(入道)에는 방법이 많아도 핵심은 오직 두 가지뿐으로, 이(理)와 행(行)이다. 교에 의지하여 종지를 깨달아[藉教悟宗], 모든 중생들은 동일한 진성(眞性)임을 깊이 믿게 하는 것이다. 객진(客塵)이 가로막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가[捨僞歸真] 벽관에 응주(凝住)하면, 자(自) · 타(他)가 없고 범(凡) · 성(聖)이 평등하여 하나와 같다. 견고하게 머물러서 움직임이 없고, 다른 가르침에 떨어지지 않으며, 도와 명부[與道冥府]하여 적연무위(寂然無爲)함을 이입(理入)이라 칭하고, 행입(行入)은 사행(四行)으로 만행(萬行)이 함께 포섭된다."

이로부터 달마의 핵심적인 선사상을 도출할 수 있는데, 바로 '자교오종(藉教悟宗)'을 통한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이며, 이를 '안심'에 도달할 수 있는 '벽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벽관'을 좌선하여 '벽'을 관하는 것이라는 해석과 마음을 대상으로 벽과 같이 하여 관하는 응심(凝心), 간심(看心) 등의 다양한 해석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교오종'의 '교'는 바로 달마가 제자들에게 전수한 4권 본 〈능가경(楞伽經)〉의 교의(教義)를 의미한다. 〈능가경〉에서는 궁극적인 가르침을 '종통(宗通)'으로 설하는데, 달마가 말하는 '오종(悟宗)'의 '종'이 이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는 "언설(言說) · 문자(文字) · 망상(妄想)"을 원리(遠離)하기 때문에 후대에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교오종'을 통하여 '여도명부' · '적연무위'에 이르는 과정을 '이입'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이입'을 바탕으로 '행입'을 제시하고 있는데, '행입'은 바로 보원행(報怨行) · 수연행(隨緣行) · 무소구행(無所求行) · 칭법행(稱法行)의 '사행'이다. 이러한 '이입'과 '행입'은 이론과 실천으로 볼 수도 있으며, 새의 양 날개와 같이 어느 하나가 결여될 수 없다고 하겠다.

달마의 선사상은 사상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중국선에 본격적으로 '불성'과 '반야'를 결합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이입'에 있어서는 '불성'을, '행입'에 있어서는 비록 상론하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반야'의 논리를 운용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이후 달마-혜가계의 능가종(楞伽宗)에서는 '불성'과 '반야'의 화회(和會)라는 하나의 전형적인 틀을 형성하였고, 이후 중국의 모든 선사상은 이 틀에 입각하여 형성되었으니, 이러한 측면에서 선종의 동토 초조(初祖)로 추대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후대에 불타-승조계의 소림사는 오히려 달마선사가 주석한 사찰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자료를 고찰하면 달마는 소림사에 다녀간 흔적이 없으며, 후대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후대에 불타-승조계는 거의 사라져 명맥조차 찾기 힘들지만, 달마-혜가계는 지속적으로 번성하였으며, 중국 선종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달마가 소림사에서 주석했다는 것은 아마도 '법의지쟁(法義之爭)'을 통하여 달마-혜가계가 불타-승조계를 사상적으로 대체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한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❶108염주(8mm) : 1벌 10만원 (10벌이상 5만원)
❷108염주(10mm) : 1벌 15만원 (10벌이상 10만원)

한국 보급처 함안 용화사

소납은 캄보디아 프놈펜 향불사 국제 NGO 자비의 등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사업과 가난하여 치료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진료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제반 후원에 소요되는 후원금을 효율적으로 자급자족 하고자 캄보디아 산 침향 나무를 입찰하여 재래식 방법으로 108염주를 만들어
파격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향기, 천상의 향기라고까지 하는 침향 염주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서불안, 초조, 기도나 화두에 마장이 따를 때 그 향을 맡으면 바로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침향입니다.

– 보급처:캄보디아 향불사 / 구입처:함안 용화사 향불원 –
구입문의 : 010-2033-6636 / 055)584-0998
농협 351-0895-1240-43 자비의등불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제6회 천안 국사봉 천왕사 연산홍·꽃잔디 축제 및
산사음악회



일시 : 불기 2566(2022)년 6. 5.(일) 오후 2시
장소 : 천안 국사봉 천왕사

주최·주관 : 천안 국사봉 천왕사
후 원 : 충청남도 천안시 BTN불교TV
문의·안내 : 041-576-7044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터길 484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⑩ 唐代 약사경변상도

▶ 한줄 요약
중국 당나라 시기는 문화 예술이 가장 융성했다. 그 시기 변상도들도 이런 시대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돈황 막고굴 제148굴 동벽 북축의 '약사경변상도'는 돈화 벽화 중 가장 큰 작품이다.



'동방약사정토' 왕생을 갈망하다

중국 역사상 당대(唐代)는 중국의 문화 예술이 가장 융성했던 최고 절정기였다. 그래서 이를 '찬란한 대당세계(大唐世界)' 라고 일컫기도 한다. 당대 변상도는 이런 시대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돈황 벽화 중에 규모가 가장 큰 제148굴 '약사경변상도' 를 살펴보면서 당시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한다.

막고굴의 제148굴의 동벽 북측에 있는 '약사경변상도' 는 당 현장(玄奘)의 신역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을 기반으로 그려졌으며, 돈황 벽화 중 최고로 큰 폭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세 폭으로 구분돼 연결되는 3련식(聯式) 구성인데, 중앙에 약사불국정토, 좌우에는 12대원(大願)과 9횡사(橫死)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3련식 구도는 중국 전통의 '1당(堂) 2련(聯)'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성방법은 이 시기 새로운 형태의 벽화 창작으로 흡수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대(隋代)의 단순한 구성의 '약사경변상도' 에서부터 초당의 '약사공양의식' 과 '약사정토' 를 거쳐 성당의 '12대원' 과 '9횡사' 에 이르기까지 '약사경변상도' 는 내용이 완전하고 풍부해졌다. 질병과 재난을 없애고 축복과 장수를 기원하며 과거의 '왕생동방약사정토' 의 주제가 보다 완전하게 표현된 것이다.



그림①. 돈황 막고굴 제148굴 동벽 북측 '약사경변상도' 전체 모습. 성당 시기에 그려졌다.





그림②. 돈황 막고굴 제148굴 '약사경변상도' 좌우 부분도.

이 경변도는 상 · 중 · 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그림의 윗부분에서는 천악(天樂) 무고(舞鼓)가 울려 퍼지며 많은 육신불이 구름 속에 1불 2보살의 형태로 위에는 화개(花蓋)가 달려 있으며 구름을 타고 표표히(飄飄) 흘러가는 모습이다. 그림의 중앙에는 황금빛 불꽃이 화개 위쪽으로 부채꼴로 퍼져 광대한 공허까지 비추고 있는데, 이것은 약사여래가 중생의 고통을 보고 육계(肉髻)에서 대방광을 발하여 일체중생의 병고를 소멸하고 안락자재하게 하기 위함이다. 빛의 불꽃 속에서 직사각형의 등(燈) 상자가 앙련(仰蓮)위에 놓여있는데, 거기에는 보석상감과 보주로 장식되고 다라니 주문이 새겨져 있다. 화면의 양측에는 중간과 아래 부분에 두 쌍의 다층 조명등이 있다.

전당 건축은 3층 횡렬식으로 서로 연결하는 구조이다. 전각 앞 회랑의 양쪽 끝에는 다층의 화려한 보당(寶幢)이 있다. 뒤에는 화려한 구름으로 둘러싸인 5전각이 불쑥 솟아있으며 중간에 불보살이 거처하며 각 전각은 무지개다리로 연결돼 있다. 동방약사정토의 경옥누각(瓊玉樓閣), 주보연지(珠寶蓮池)에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 생기 넘치고 영화로운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다.

전각 앞에는 좌우로 회랑이 화면을 횡관(橫貫)하고 있는데, 창문이 없으며 내부는 기둥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 여러 보살이 우아하고 자유롭고 걷거나 앉아 있으며 새들이 노래하고 있다. 현관의 좌우에는 1불 2보살이 마치 멀리서 오는 것처럼 천천히 걷고 있으며,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보살도 있다.

화면 중앙에는 약사불이 결가부좌로 화려한 유리 연화대에 앉아 왼손은 선정인을 취하고 있다. 타원형의 후광은 작은 화염 문양으로 그려지고 화염문으로 원형 두광을 형성하고 있다. 위에는 큰 유리 보석 화개가 매달려있으며 약사불 좌우에는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유리 보석이 장식된 연화대에 앉아 있다. 왼쪽의 일광보살은 원형 태양을 손에 들고 있으며 두 보살 모두 머리 위에 유리 보석의 화개가 매달려있다. 뭇 보살과 제자 및 기타 권속들은 약사불의 좌우와 전방의 광대한 중앙 유리평대에 무리를 지어 앉아 있다. 중앙 유리평대는 주위를 난간으로 둘렀으며 무지개 모양의 계단이 놓여 있으며 평대의 가파른 벽면은 장방형 벽돌 장식을 하고 격자(格子)는 연꽃 모양으로 처리하고 있다(그림①).

돈황 제148굴 '약사경변상도' 막고굴 벽화 중 가장 규모 커
3련식 구도로 약사경 도상화
경전 내용 풍부하게 표현해내

중앙 평대 양쪽에는 단층 전각이 있으며, 전각 내부에는 1불 2보살이 결가부좌로 앉아 있다. 전각의 두 층 누대는 유리로 바닥을 장식하고 가장자리에는 난간이 없으며 많은 공양보살들이 제물을 운반하느라 분주하다. 아래쪽 누대에는 홍교(虹橋) 모양 계단이 연못과 연결돼 있다.

화면 아래 부분 중간의 유리 평대에 깔린 양탄자 위에서는 꽃무늬 치마를 입은 두 명의 무용수가 손에 리본을 들고 춤을 추고 있는데, 호선경무(胡璇勁舞)이다. 그 앞에는 인수조신(人首鳥身)의 두 가릉빈가가 그들을 상대하여 춤을 추고 있는데, 발소리와 북소리 리듬에 맞춰 뛰고 있다. 그 옆에는 좌우 네 개의 유리 평대 위에서는 대형 악대가 연주하고 있다. 상서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화면 하단의 양쪽에는 대형 유리 보석 평대가 있으며, 각각에 한 부처님이 앉아 있는데, 보살과 권속들이 에워싸고 있으며 부처님 앞에는 다양한 공양물이 놓여진 긴 탁자가 있다. 화면의 좌우 모서리에는 두광이 없는 6명의 약차 장군이 앉아 있으며, 초당 시기 이래로 열두 명의 약차 장군의 위치는 변상도의 중간 또는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화면의 중간과 아래 부분에는 큰 연못이 있는데, 연녹색 맑은 물 위에 연꽃이 송이송이 떠 있고 연꽃에는 수 많은 사바세계에서 왕생한 화생동자가 있다. 초당 시기부터 나타나는 약사변상도의 연못은 성당에 이르러 약사정토 연못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서방정토변상 연못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그림②)

조폭(條幅)의 그림은 12폭의 작은 그림으로 나뉘며, 맨 위의 2폭은 1불 3인이며, 아래 10폭은 1불 2속인이다. 화면 속의 약사불은 연화대에 앉아 있으며, 그 앞에는 법문을 듣는 신도들이 있다. 매 설법도 옆에 방제(旁題) 있다. 모두 13개 방제가 있는데 문수청문 1폭 12대원 각 1폭씩이다. 부수적인 방제는 그 흔적만 남아 있다. 12대원의 대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빛이 작렬해 무량무변 세계를 비추고, 32상 80종호에 까지 이르길 바란다. 둘째, 자신의 몸이 유리와 같아 빛이 광대하게 발하기 바란다. 셋째, 중생의 물질 사용에 결핍이 없기를 바란다. 넷째, 사악을 행한 이도 대승의 피난처를 얻길 바란다. 다섯째, 계율을 따르겠나이다. 여섯째, 중생의 형상이 항상 단정하기를 바란다. 일곱째, 모든 병고를 제거되게 하소서. 여덟째, 여자를 혐오하면, 남자로 변할 것이다. 아홉째, 일제외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열 번째, 왕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열한 번째.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이 만족하길 바란다. 열두 번째, 가난하여 옷이 없지만, 지금에 만족하고자 한다.

약사불은 단정히 앙련 좌대에 앉아 있으며 원형 두광과 신광 그리고 위에는 화개가 매달려있다. 전방 좌우에 세 명의 속인이 무릎을 꿇고 예불을 드리고 있다. 옆에는 제2대원 즉, "자신의 몸이 유리처럼 밝고 광대하길 바란다."라는 방제가 있다.

변상도 남측의 조폭 그림은 '9횡사(橫死)' 를 표현한 것이다. 당 현장(玄奘)의 번역본에 따르면, 그림의 위에서 아래로 줄거리가 나눠지는데 △1횡은 '경미하게 아픈데 의사가 없거나 간병인의 오진으로 인한 죽음' △2횡은 '왕의 법에 의해 주살 당해 죽음' △3횡은 '탐욕과 방종으로 남을 해쳐 죽게 됨' △4횡은 '화재로 죽음' △5횡은 '익사' △6횡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음' △8횡은 '독약, 저주, 원귀 등에 의한 죽음' △9횡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음' 이다.

이 그림은 "모든 유정(有情)들이 등불을 밝히고, 번을 만들고, 복을 닦기 위해 방생하며, 고액(苦厄)이 없길 기원"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의 오른쪽의 전각 안에는 7층 반등(盤燈)이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등을 공양하고 있다. 전각 안에는 높은 기둥이 직립하고 있으며 밖에는 매달려있는 색번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본 전각에는 약사불이 공양을 받고 있으며, 좌측에는 세 명의 승려가 〈약사경〉을 염송하고 있다. 좌측 주방에서는 한 스님이 음식을 먹고 있다. 맞은편 열린 공간 큰 탁자 위에는 다양한 음식물이 놓여 있는데, 한 스님이 음식을 먹고 있다. 좌측 상단에는 한 사람이 방생을 하고 있다.

제148굴 약사변상도가 그려졌던 시기는 토번(吐番)이 사주(沙州)를 침략, 관부와 민간 그리고 승려와 돈황의 화가까지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도시와 가정이 파괴되던 때였다. 이런 시대에 변상도를 통해 여유, 행복 그리고 안녕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동방약사정토로 사람들이 갈망하는 행복한 하늘나라였다. '12대원' 과 '9횡사' 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건강과 평온, 풍요로운 의식(衣食), 재난의 소멸 및 장수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❺ '산은 산, 물은 물' 생태적 고찰



▶한줄 요약
성철 스님이 조계종 제7대 종정에 추대되면 내린 종정 취임 법어 "산은 산, 물은 물"은 대중적으로 반향이 컸다. 이 선적 언어의 법어를 생태적으로 고찰했다.

물도 산도 혼자 이뤄지지 않는다



성철 스님 종정 취임 법어 중
'산은산, 물은물' 대중들 주목
생태적으로 고찰 · 사유 가능

성철 스님의 어록

현대 선지식 중 한 명인 성철(性澈) 스님이 1981년 1월 20일 조계종 제7대 종정에 추대되면서 내린 종정 취임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山是山 水是水)"는 당시 사회적으로 대단한 주목을 끌었다. 범상치 않은 심오한 뜻이 담긴 이 선적(禪的) 언어는 8년 동안 장좌불와하며 참선하고, 3000배를 해야만 친견할 수 있다는 신비감이 더해져 큰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스님을 만나려고 3000배하는 것을 '굴신운동'이라고 비판한 법정 스님은 이후 성철 스님을 만나 대담을 통해 "절에 와서 부처님은 안 찾고 나만 찾길래 3000배를 하랬다. 실제로 3000배를 하고 날 만나러 온 사람들이 심성이 편해진다더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3천배를 하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깊은 감탄을 하며 오해를 풀었다고 한다. 사실 필자도 1980년 중반 우연히 해인사에서 3천배를 하고 친견한 스님과의 인연을 통해 시작된 불교공부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3천배는 확실히 큰 공덕이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산은 산, 물은 물"의 출처에 대해서는 많은 설의 연원이 있다.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야보(冶父) 스님의 시구에서, 8세기 중엽 당나라의 청원유신(靑源惟信)선사가 남긴 〈청원유신선사어록〉에도, 고려 말 경한(景閑) 스님의 〈백운화상어록〉에도 , 고려 진각국사 혜신 스님이나 중국의 운문 선사의 어록에도 나오는 유명한 법어이다. 필자는 이 선적언어의 본래 의미를 규명하고 싶은 의도는 없다. 단지 이 뜻을 주관적이고 나름 생태적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시도해 보고 싶었다. 행여 본래의 뜻을 왜곡했다든가 잘못 이해했다든가 하는 시비는 말아주길 바란다. 시인의 손을 떠난 시(詩)는 어떻게 해석하든 읽는 사람의 것이 되듯이 말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해진다는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 國土淸淨)' 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마음이 오염되면 자연과 생명도 오염된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환경 · 생명위기는 결국 인간정신의 오염이 자연에 투영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돈)이 주인인 사회이다. 오로지 돈벌이가 최고이며 무엇보다 우선한다. 돈을 많이 벌고 빨리 성장하는 것은 개인이든 국가이든 지고지순의 최고의 목적이다. 돈 되는 일은 뭐든 한다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돈이 되지 않는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 된다. 돈을 벌기위해 식탁에 올라오는 곡식이나 농산물에도 비료, 농약, 제초제를 뿌리고, 채소와 과일을 더욱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 착색제, 발색제와 방사능조사를 하고 GMO 유전자 조작을 하며 각종 MSG 첨가물과 유해화학물질을 뿌리며 곡식과 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도로와 다리, 터널을 많이 뚫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토건업자는 끊임없이 건설과 개발의 논리를 만들도록 정치인과 학자, 언론인들을 지원한다. 토건이나 건설업자들에게 아름다운 산과 계곡은 그냥 아름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그곳을 개발해 리조트와 케이블카, 관광시설을 지어 돈을 벌까를 궁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강을 보면 그 고유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존하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수변개발을 할지, 4대강 토목건설을 통해 어떻게 개발 이익을 얻을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특히 아름답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대부분 개발이 금지되어 있지만 개발업자들의 눈에는 어떻게든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의 제한을 풀어 개발허가를 얻을 방법을 모색한다. 그런 정치인을 지원하고, 개발을 부추기는 언론에 광고도 주고, 논리를 만드는 학자들의 연구비도 지원하면서 남보다 먼저 독점적 개발이익을 얻을 궁리를 하게 된다.

그들에겐 산은 그냥 산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을 그대로의 물로 보이지 않는다. 산과 강은 돈벌이를 위한 대상으로 보일 뿐이다. 집과 주택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의 대상, 투기의 대상으로 본다. 모든 것이 돈이고 상품이다. 사람을 한 인격체로서 보지 않고 인신을 매매하여 돈벌 생각을 하거나 그 사람을 이용해 이익을 볼 궁리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생각하지 않고 저렴한 임금으로 다치거나 죽어도 상관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버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산을 산으로 봐야하고, 강을 강으로 봐야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하는데 오늘의 사회는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물은 물이 아니다

발우공양을 할 때 나는, 어시발우에 밥을 덜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식사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밥을 적게 푼다. 〈소심경〉을 외면서 하발게 · 전발게 · 회발게 · 십념 · 봉반게 · 오반게 · 생반게까지 하고 나면 빈속에 배가 고프다. 그러나 아직 게송이 끝나지 않았다. 정식게와 삼시게까지 마쳐야 먹을수 있기 때문이다. 배가 고파 허겁지겁 수저를 들고 밥을 먹기 직전 외우는 〈정식게〉의 내용은 "오관일적수 팔만사천충 약불염차주 여식중생육(吾觀一滴水八萬四千蟲 若不念此呪 如食衆生肉)"이다. "물 한방울을 살펴봐도 팔만사천마리의 벌레들이 살고 있네, 내가 이 주문을 외지 않고 먹는다면 얼마나 많은 중생을 먹게 되는 것인가"란 뜻이다.

물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밥과 물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박테리아, 미생물, 세균 등의 생명까지 헤아리고 살피는 〈정식게〉의 경지, 이들 생명인 공양물을 어쩔 수 없이 먹지만 맛에 탐닉해서 먹는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약으로 먹으며, 악을 끊고 선을 행하여 부처를 이루겠다는 이 발원의 가르침은 불교를 처음 알게 된 당시 나에겐 정말 충격적인 감동이었다.

먹고 마시는 물이 화학기호인 순수한 H2O만 되어 있을까? 과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정답은 "없다"이다. 그러한 물은 실험실에서 만든 물일 뿐이다. 자연계 물에는 수많은 박테리아와 미네랄, 세균과 각종 화학물질도 포함돼 있다. 산속에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미네랄, 프랑크톤과 조류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더러운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물맛을 결정하고 몸에도 좋은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산속 계곡이나 냇물, 강물에는 당연히도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와 물벌레, 물풀 등이 함께 살고 있는 생태계이다. 내가 보는 계곡물, 냇물과 강물, 바닷물 모두 물이 아닌 것들과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물은 물이 아닌 것이다.

산은 산이 아니다

또 산에는 흙과 바위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나무들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수십, 수억 마리의 풀벌레들도 살고 있으며 헤아릴 수 없는 짐승들과 새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다. 산은 그냥 흙들의 집합이나 바위덩어리가 아니다. 산의 계곡에는 끊임없이 물의 흐른다. 그 물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비가 오면 산 자체가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계속 물을 흘러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산은 거대한 저수지인 것이다. 그래서 산에 나무가 많으면 흙을 붙잡고 있는 나무의 뿌리들이 비를 머금고 있어 산사태를 막고 홍수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산에는 흙과 바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물이 들어있는 것이다. 산이 곧 물인 것이다. 또한 물의 시원은 항상 산이다. 그래서 물은 산인 것이다.

이처럼 산은 물로 돼 있고, 물 또한 산과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산은 산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물은 물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산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산은 흙과 바위와 물, 벌레와 짐승에 의해 구성된 존재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산은 산이 아닌 수많은 것들의 연기적 결과인 것이며, 물도 물이 아닌 것들의 연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개발하고 파헤쳐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온갖 위락시설과 리조트, 케이블카, 양수발전소, 스키장, 골프장 등을 만들어 등산하고 놀러가고 이용할 곳으로만 생각을 했다. 산을 그대로 산으로 보존하려 하지 않고 물을 있는 그대로 물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저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은 산이 아니며 물이 아닌 이치를 깨닫고 다시 바라본 산과 물은,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할수 있다.

산은 산이 아닌 것들의 연기적 관계 속에 만들어진 존재이며, 물도 물이 아닌 것들로 만들어 진 존재이다. 따지고 보면 어느 존재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있던가? 나라는 존재 또한 나 아닌 것으로 구성돼 있으며,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존재이다. 내 이름은 내 고유의 이름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 불리기 위해 방편적으로 만들어진 명칭일 뿐이다. 의자는 그저 '의자' 라고 명칭을 붙였을 뿐 그것을 '체어(Chair)' 라고 부르거나 '이수(いす)' 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면 '체어' 나 '이수' 가 되는 것이다.

명칭은 그저 겉모습의 이름일 뿐 본질은 아닌 것이다. 본질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관계없이 거기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닌 것으로 이뤄져있지만, 산이라고 명칭한 것이다. 이것을 바다라고 부른다고 해도 실제는 변함없다. 그러나 우리는 명칭은 방편인데도 그것이 실체인양 내둘린다. 산이라는 고정된 이미지, 바다라는 고정된 이미지에 갇히며 스스로 부자유스러워 진다.

마치 르네 마그리트의 담배 파이프 그림제목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인 것처럼, 언어는 사물의 명칭을 갖게 하고 개념을 만들어주지만 언어에 얽매이면 방편임에도 마치 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실제를 인식했다고 하면 명칭은 어떻게 불려도 상관없는 일이 될 텐데 말이다. 그래서 산의 실체는 산이 아닌 것들로 존재하지만 그냥 이름을 붙여 '산' 이라고 붙여도, 물을 그냥 '물' 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지 않는가? 우리는 언어와 방편에 속고 끄달려 진실의 실제를 혼돈하여 담마를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는 것 아닐까. 산과 물에 대한 어설픈 작은 생각이다.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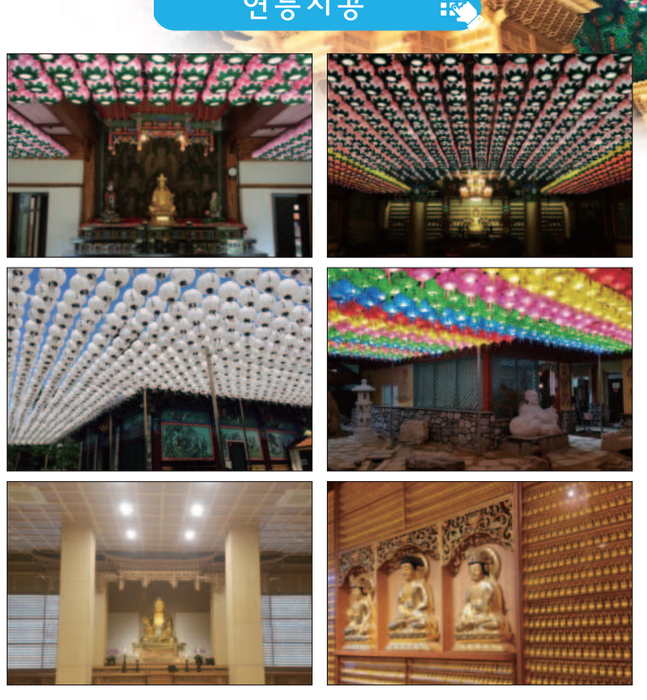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일승법 귀의는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⑲ 일승(一乘)

"세존이시여, 여래는 제한이 없는 시간에 머무시며, 여래·응·등정각은 끝없는 미래의 어떤 시간에도 머무시기 때문에, 여래는 시간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도 제한이 없어 세상을 편안하게 위로하십니다. 한량없는 대비로 한없이 세상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래를 옳게 말하는 것이며, 또 말하기를, '한량없는 법과 항상 머무는 법이 온 세상이 귀의할 곳이 된다.' 고 말하는 이도 역시 여래를 옳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도 받지 못한 세상과 의지할 곳 없는 세상에서 끝없는 미래에 다함이 없는 귀의와 항상 머무는 귀의가 되는 사람은 여래·응·등정각을 말함입니다.

법(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일승(一乘)의 도를 설하는 것입니다. 승(僧)이라고 하는 것은 삼승(三乘)의 무리입니다. 이 두 가지에 귀의함은 구경의 귀의가 아니므로 부분적인 귀의라 합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일승의 도법으로써만 구경의 법신을 얻는다고 하였고, 그 위에 다시 일승의 법신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삼승의 무리들은 공포가 있으므로 여래에게 귀의하고, 공포를 벗어나기 위하여 도를 닦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에 귀의함은 구경의 귀의가 아니고, 한정이 있는 귀의가 됩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여래의 조복을 받고 여래에게 귀의하여 불법의 즐거움을 얻고 믿는 마음을 내어 법과 승에 귀의한다면, 이 둘에 귀의하는 것은 둘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고, 곧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이 됩니다.

제일의(第一義)에 귀의하는 것이 곧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에 귀의하는 것과 제일의는 이것이 구경에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래와 두 가지 귀의는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래가 곧 삼귀의가 됩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일승의 도를 설함은 여래께서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성취하여 사자후로 말씀하시는 것이거니와, 만일 여래께서 저들의 욕망을 따라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곧 대승이며 삼승이 없는 것이니, 삼승이 일승에 들어가고, 일승이 곧 제일의승(第一義乘)이 됩니다."

이 장에서는 일승법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일승장(一乘章)이라 말하기도 한다. 앞에서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곧 일승법에 귀의하는 것이라 하고 그 일승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더해 가는 대목이다. 일승이란 불교의 궁극의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유일무이한 궁극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절대 진리를 하나의 탈 것에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방편 상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 가지가지의 법을 설했으나 오직 유일한 하나의 진리를 위하여 부처님이 갖가지 법을 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부처님의 법은 오직 일승법이라 하였다.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법이 있으나 이 삼승법이 결국 일승법에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일승사상은 대승 경전의 대표적 경전인 〈법화경〉이나 〈화엄경〉에서 강조되고, 〈승만경〉에서도 중요한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에 대해 다시 말해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승만 부인이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대승이며, 대승이 곧 일승이라 하다가 이 대목에 와서는 일승이 제일의승이며 여기에 귀의하는 것이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이라 하였다.

불교를 심층 종교라고 한다. 심층 종교란 교리의 전개가 심오하고 깊다는 뜻으로 표층 종교와 상대되는 말이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는 참 나를 찾아가는 수행의 단계마다 한 차원씩 더 높아가는 교설이 거듭 나온다. 기복적인 표층 신앙과 달리 현실 이익을 바라는 데에 매몰되지 않는다.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고도의 수행과정이 첩첩이 있는 것이다.

〈승만경〉의 이 대목에서 한 말은 삼승법(三乘法)에 귀의하는 것이 진정으로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제일의제(第一義諦)인 일승법에 귀의해야 진정으로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제일의제란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진짜 알맹이란 뜻이다. 상대적인 다른 것이 없는 오직 하나뿐인 것이 일승(一乘)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진여본성 작용인 의·념 의지해 살아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㊷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이와 달리 세 번째 마음 거울에 맺힌 상[識]인 이미지들은 인식 대상과 감각기관이 접촉하여 받아들인 정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식(識)은 실재하지 않는 허상·망상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인 마음 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anussati, 記憶]들 역시도 실재 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현재 의식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인 아뢰야식 속에 저장된 종자식(種子識) 역시도 환과 같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아뢰야식에 이 종자식이 저장되어 있는 한 그로 인한 과보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허상이고 그림자와 같은 망상일 뿐인데 과보가 나타나느냐 하면, 마치 하늘에 만들어진 구름들이 자성이 없이 임시로 가화합된 존재들이지만 비와 번개 등의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마음에 저장된 기억정보인 이 종자식들이 자성이 없지만 임시로 저장기억되어 전념(前念)이 후념(後念)으로 염염(念念) 상속되면서 그에 따른 과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저장된 종자식에 의해 과보는 염염이 상속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 한 인과(因果)의 과보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미지들은 최초에 저장될 당시에 탐진치 등의 삼독심과 결합되어 오염된 채로 마음속 공간에 저장됩니다. 마음 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들이 탐진치 삼독심과 어떻게 결합되어 저장되느냐에 따라 마음의 무게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억정보에 탐진치의 질량이 많으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탐진치 질량이 기억정보에 적으면 마음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마음을 닦고 맑힌다는 것은 마음 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가 흡수한 탐진치 삼독심 등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중에서도 마음의 본래 기능인 의(意, 거울)와 염(念, sati)을 강화시키는 염불수행이나 참선 수행이 최상승법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은 마음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다차원의 마음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중에는 진여본성의 작용인 상주불멸하는 마음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허깨비와 같고 환과 같은 허상·망상 등의 마음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중생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허깨비와 같은 허상·망상에 속지 말고 진여본성의 작용인 의·념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염불에서의 염(念)은 싸띠(sati)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념처 등의 수행법을 가르치실 때 이 싸띠란 말을 즐겨 쓰셨습니다. 이 싸띠는 결국 진여본성의 작용인 정념(正念)인 것입니다.

마음 챙김, 알아차림, 주의집중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싸띠[sati.念]는 진여본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궁극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행 도구입니다.

그리고 싸띠는 진여본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삼매나 반야를 선도하여 수행자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⑲ 사유 중지의 경 ②

"침묵이란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변화 바르게 이해하는 것"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이 그 사유에 대한 사유활동의 중지를 위한 정신활동을 일으켰지만,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생겨나면,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이빨을 이빨에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항복시키고 제압해서 없애버려야 한다."

'침묵' 이란 말은 수행 가운데 흔히 거론되는 덕목이자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언어이다. 누구나 '침묵' 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알고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진정한 침묵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침묵이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침묵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일까.

먼저, 움직이는 것과 변화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자.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과 변화하는 것을 완전히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숙고하지 않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면 알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침묵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멀다. 침묵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없고, 알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얼마나 확고하게 아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는 하루 종일 말을 했더라도 침묵한 자이며,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하루 종일 한마디 말이 없었더라도 수다를 떨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부처님께서도 팔만사천법문을 말씀하시고 열반에 들기 전에 당신은 한마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조사들도 똑같다. '그것' 을 말한 조사는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왜, 한마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을까. 참으로 간단한 이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간단한 이치에 대해 100퍼센트 확신하지 않고, 알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알아보겠다고 고집한다.

그 간단한 이치는 무엇인가? 앞부분에 말했듯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알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 놓아버리는 일이다. 내려놓은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면, 대상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편안함으로 사물을 천천히 보게 된다. 천천히 보게 되면, 대상은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알게 된다. 대상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본질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그는 그때부터 대상에 대한 침묵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몸이 있으니 억울한 일도 일어나고, 오해하는 일도 일어나고, 말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은 늘 있기 마련이다. 그냥 넘어가야 하는 일도 있지만, 누구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만약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일까? 사실 말을 하게 되면 억울함을 해소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억울함을 해소한 것일까? 이것도 해소한 것이 아니다.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둘 다 억울함을 당한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인가? 이빨을 이빨에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항복시키고 제압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만히 억울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유하는 것이다. 억울하다고 말하려면 몸과 마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사실을 증명하려면 생로병사에 대해 완전히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모른다면, 이제 억울하다는 것의 관점을 완전히 다른 곳에 두어야 한다.

'나' 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억울한 일이다. 대상에게 무엇을 당한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제 좌복에 앉아 이빨을 이빨에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나' 에 대해 모르는, 이 억울함을 알아내는 것이 진정한 억울함을 해소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88호 | 17 | 전면광고

깊은 바다는 파도가 없으며 늘 고요하고
잔잔하다. 마음에 평정을 이룬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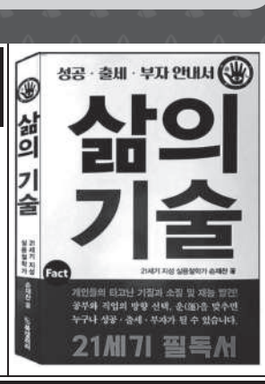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 · 천도재 · 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 의 010-6785-1130, 010-5270-8260

입멸후 2,566년만에 처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놀라운 유훈을 완전히 공개한다!!

※ 신간 ※
『대반열반경의 비밀한 뜻을 밝힌다』

010-3514-7084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출가하실 행자님
모십니다.
서울부근 수도권지역 사찰

• • •

010-4127-027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정통 특수 비법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영남 범음 · 범패 교육 도량

– 49재 · 천도의식 · 바라작법등 –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3시간)

팔공산 구화사 아카데미 교육원

문의 010-9421-9364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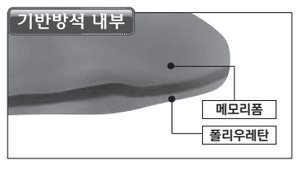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88호 | 18 | 전면광고

원하건대 부디 법우(法雨)를 내리시어
법의 싹이 널리 돋아나 자라나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읽기 - 《마하마야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40억5천
◎ 위치 : 부산시포교원
◎ 입지좋은근린상가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아파트
◎ 매가 : 12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북 영덕 저렴한 토굴 매매
- 부지 총면적 : 393㎡(119평)
- 건물 총면적 : 122㎡(37평)
- 가액 : 1억8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5천(조정 조금 가능)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3층 상가주택 안내

- 위치 : 김천시 부곡동
- 대지 약 98평
- 1층 : 상가3칸 세나옴
- 2층 : 주택 전세3천
- 3층 : 학원하던곳, 포교당자리
- 가액3억에서 3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한림면 사찰
- 2층건물 70평, 법당, 친견실, 산신당, 용왕당, 칠성당, 샤워실, 공양간및 주방
- 권리금 협의가능
- 전세금 500만원
- 월세금 45만원

010-3945-8859

아름다운 사찰안내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m×5m)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 (정원 조성 잘되어있음)
- 진주 합천 중간지점(각 20분 소요)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벽면),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언제든 양도가능, 경남 의령군 소재
- 가액 : 협의(은행융자 5천만원)

010-2607-7114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예쁜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3억 3천(절충가능)

010-4999-5622

안정적인 상가원룸

- 충남 아산 신축건물 임대완료, 상가포함 공실無
- 대지 : 371㎡(112평) 건평 : 453㎡(193평)
- 인수금 : 2억 8천
- 이자내고 순수입 월 350만원 태종공인중개사 유승열

010-8348-2858

법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거제리 역세권 지역에 약 30평 3층 법당 (몸만 오세요)
- 제의식을 집도하시는 정진하는 스님께 양도 하고자 합니다.
- 전세금 無, 달세 30만원, 집기일체 5백만원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603번지) ● 대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물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용왕당 ● 요사채 : 황토방 2동, 슬라브 2동, 해우소 1동(문 5개)
- 모든 건물은 무건물입니다. ● 유실수 다량 감, 자두, 호두, 매실, 두릅, 오디, 머위, 산에는 약초, 송이버섯 ● 도로 포장, 차량진입, 주차장(10대), 주변에 개발지역 ● 가액 5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대지 : 110평
- 법당, 산신각, 텃밭
- 시설비 3천만, 보증금 3백만, 월 20만

010-9392-118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010-7710-83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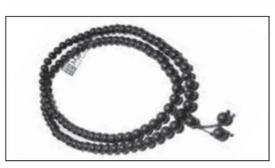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⑨ 인체와 물

건강에 중요한 '수분섭취', 약차와 함께

세계가 깜짝 놀란 의학의 발견, 그것은 바로 물과 인체 그리고 수명이다. 100세 건강플러스 물 치료의 최고의 권위자 바트만 게리지 박사, 최근 들어 의학계에서는 인간이 갈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통증을 참는 것으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하는 것과 관련이 깊게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바트만 게리지 박사는 페니실린의 발견자이며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플레밍의 학생이다. 그는 런던대학의 세인트메리병원 의과대학 졸업 후 일생을 물의 의학적 약용연구에 바쳤는데, 그의 역작 〈신비한 물 치료 건강법 : 물 치료가 답이다〉는 세계 의학계를 뒤흔든 의학저서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임상과정을 통해 많은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은 거의 체내에 수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세계에서 처음 발견했다. 그는 이 원리로 약을 쓰지 않고 물로 3000여 명의 환자를 치유했다.

바트만 게리지 박사는 물로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첫째, 심장병과 중풍이다. 충족한 체내 수분은 혈액을 희석시켜 심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둘째, 골다공증이다. 물을 섭취하면 자라나는 뼈를 더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셋째, 백혈병과 림프종(淋巴瘤)을 치료할 수 있다. 물은 체내에서 산소를 세포에 공급하는데, 암세포는 산소를 혐오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넷째, 고혈압을 치료한다. 물은 가장 좋은 천연 이뇨제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당뇨병을 치료한다. 물은 체내에서 항당뇨 성분을 갖고 있는 트립토판(色氨酸)의 량을 증가시킨다. 여섯째, 실명을 예방한다. 물은 체내에서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을 만든다. 일곱째, 우울증을 치료한다. 물은 체내에서 천연적인 방식으로 마음이 즐거워지는 세로토닌(視黑激素)을 분비시킨다. 만약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술에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몸을 망칠 수 있다. 현재 의학계는 인간의 탈수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가벼운 탈수는 인간이 사고하는 것을 흐으러놓으며, 탈수가 심각할 때는 내장기관의 문란과 감각능력을 떨어뜨려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또한 필자 역시 출가하여 강원생활과 고된 수행 생활 중 병원법당 소임과 호스피스, 영안실기도, 병실 라운딩, 환우를 위한 기도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자신의 실력을 쌓는 외전의 다양한 차 이론 공부를 하며 동분서주할 때도 그리고 하루 활동하며 뛰어다는 양과 업무 그리고 경전을 늦은 밤과 새벽까지 공부하며 고군분투할 때도 역시 시간을 할애해 물과 차 마시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 결과 병원소임을 마치고 나올 때는 온몸의 사지가 마비가 왔으며 잠도 잘 수 없고, 앉고 서고 돌아눕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 비로 깊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건 바로 수행자이면서 부처님이 그토록 간곡히 말씀해주셨던 중도(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살피지 못했으며 단지 욕심과 생각으로 수행을 지속했던 것이었다. 차의 이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물과 수분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다. 물의 중요성과 물의 섭취량 그건 살아있는 생명은 누구든 하루 필요한 대사량이 있다. 그건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한 남성과 여성 평균 2.5리터~2.8리터가 일일 섭취량이다. 그러나 미쳐 몸에 집중하는 수행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과 정신 그리고 외부의 공부와 수행에만 전념했던 결과로 심장질환인 협심증으로 수많은 시간을 고생했던 때가 생각난다. 스님이 되고 이른 나이인 30대에 불과했음에도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게 되었다. 그리고 몸의 이곳저곳이 만성통증과 염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병마의 고통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몸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이며 수분의 온도와 수분의 섭취량 그리고 수분 속 영양분이 흡수가 잘 됨을 깨닫게 되었다. 세월과 시간이 흐른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통증의 고통을 병원과 약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연치유법을 터득하여 견디었다는 일이 참으로 신기하다. 걸음을 걷지도 서있지도 못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으며 몸의 회복을 위해 산길을 걷다가 수없이 넘어지며 다리에 수많은 상처를 내기도 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분주한 수행 가운데서도 절대 놓치지 않는 일이 바로 영양소가 풍부한 다양한 약차를 때에 맞춰 마시는 일이며 또한 나의 호흡과 내 몸의 사대인 지, 수, 화, 풍을 관찰하며 내 마음의 흐름을 잘 살피는 일이다.



영양소 풍부한 약차 때맞춰 음용하고
호흡 · 사대 관찰하며 마음 흐름 파악

만성통증과 심장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기적은 바로 생명의 물을 꾸준히 마시며 회복했던 시간이 지금의 수제차 명인의 타이틀과 체질별 약차를 찾아 많은 이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었던 계기였다. 병의 고통에서 신음하시는 환우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다. 꼭 따뜻한 물과 약차와 한방차로 디톡스하시길 권한다. 몸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⑨ 미네랄의 가치

미네랄 고르게 포함된 건강소금 먹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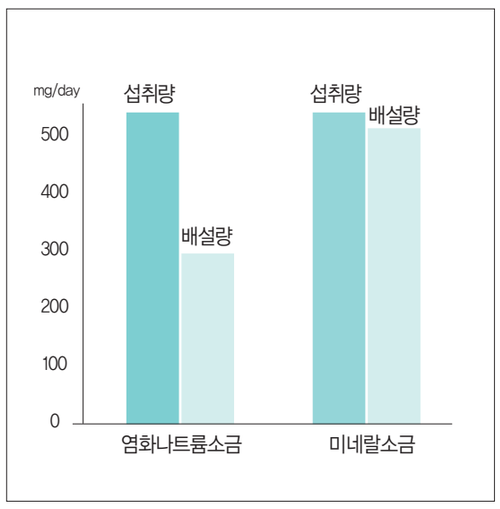
소금은 생명이 탄생한 이래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화학공업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근간은 역시 식품에 넣어 사용하는 것이다. 소금을 먹고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 넣기도 하고, 식품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미네랄 보충을 위해 먹기도 한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소금, 그 가치는 어디에서 올까? 물론 소금은 그 용도가 4만 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므로 특정 영역에서 가치를 논하는 것은 편협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인류의 건강과 관련한 영역으로 한정하여 이야기를 해 볼 필요도 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의 영양분은 쌀눈에 66%, 쌀겨에 29%가 들어 있다. 쌀의 노른자위로 꼽히는 쌀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분, 아연도 들어 있다. 자율신경과 고혈압 치료에 좋은 감마오리자놀 성분도 빠지지 않는다.

이것저것 다 깎아낸 백미에는 달랑 5% 남짓한 영양가만 남는다. 95%나 되는 중요 성분이 몽땅 없어진 소위 '녹말, 당분 덩어리' 에 불과한 셈이다. 실제로 백미를 물에 담가두면 며칠 안에 썩지만, 쌀눈이 잘 보존된 현미는 그 안에서 싹이 돋아난다. 현미를 두고 '살아 있는 쌀' 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미는 또한 혈당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다. 일반적인 식후 포도당 혈당지수를 100%로 봤을 때, 백미 혈당지수는 70~79%, 현미는 60% 정도다. 이 밖에도 각종 연구를 통해 현미가 △비만 △고혈압 △콜레스테롤 개선 △아토피 △당뇨병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입증됐다.



미네랄 함량에 따른 소변의 나트륨 배출량의 차이

원론적 '소금', NaCl 78% 미네랄 22%
시중 소금, 쓴맛 없애려 미네랄 제거
미네랄 살린 소금 생산하고 섭취해야

쌀에서 쌀 껍질 부분과 쌀눈이 차지하는 부피는 극히 작다. 하지만 그 작은 부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모두 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쌀밥을 먹는 이유가 쌀밥을 먹고 건강해지고자 하는 것이라면 탄수화물 전분 덩어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쌀눈과 껍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든 영양분도 함께 고르게 먹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은 어떨까? 바닷물을 그대로 졸이면 염화나트륨 78%와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황 같은 미네랄이 22%를 차지하는 미네랄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원래 소금이다. 바닷물을 그대로 졸이면, 바닷물의 수분이 모두 증발한 후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이다. 껍질째 먹는 사과, 껍질째 먹는 포도처럼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농약을 걱정하며, 껍질이 입에 씹히는 감촉이 싫어서 껍질을 칼로 깎아내고, 껍질을 버리고 과일을 먹는다. 벼는 쌀로 만드는 과정에서 깎고 또 깎아내어 하얀 백미로 만들어서 먹는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버리고 편리함을 위해 입에 맞는 달콤한 맛만을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바닷물을 졸여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의 편리함을 위해,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나트륨을 제외한 다른 미네랄을 아낌없이 제거한 후 소금을 만들어 왔다. 우리가 소금을 먹는 것은 NaCl(염화나트륨)만을 섭취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을 잊은 결과 각종 질병이 우리를 찾아왔다. 바닷물 속에 풍부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수 많은 미네랄을 모두 제거한 소금을 만들어 먹은 결과 각종 미네랄 부족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등은 미네랄 부족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 미네랄 부족이 쌓이고 쌓여 질병화한 측면이 강하다.

시중의 마트에 가면 이제는 껍질째 먹는 사과, 껍질째 먹는 포도를 비롯하여 쌀눈이 살아 있는 쌀 제품을 흔하게 볼 수가 있다. 소금 역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살린 소금을 생산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바닷물에는 정말 많은 미네랄이 들어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미네랄을 살린 소금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에는 미네랄이 적게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나트륨 이외의 미네랄을 먹는다는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좋은 소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좋은 소금을 선택해 먹으려는 노력이 합해진다면 바다의 미네랄을 그대로 살린 소금을 만들고 먹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쌀눈과 껍질을 모두 벗긴 흰쌀밥이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미네랄을 제거한 순도만 강조한 그런 염화나트륨만의 소금이 결코 건강에 좋은 소금이 될 수 없다. 건강하게 살려면 미네랄이 고르게 포함된 좋은 건강 소금을 먹어야 한다. 소금의 가치는 바다가 간직한 미네랄에 달려있다.

〈(주)오씨아드 이사〉

일일시호일

"엄마, 소리 한 번이라도"…
심장 혈관 막혀 생사 갈림길 선 아기

희망 찾아 베트남에서 온 후이티공씨 부부…4년 만에 후이뚜언 출산
심부전 등 진단 산소호흡기 없이는 호흡불가…병원비만 수천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그대는 꽃입니다' ⑧ 마음챙김 수행기

▶ 한줄 요약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챙김이 바로 마음꽃 피우기 지름길이다.

매일 행복하기 위한 방법 '마음 꽃피우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 존 살레르노 화이트

고향에 성격 좋은 친구 한 명이 아보카도 농사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나에게 묻더군요.

"아보카도 나무를 심는 가장 좋은 시기를 아니?" 나는 어깨를 으슥하면서 머리를 흔들었죠. 그러자 그가 "바로 지금이야!"라고 말하더군요. 무언가 큰 이익을 창출하려면 바로 지금 그 방향으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그는 믿었던 거죠.

'마음에 꽃피우기' 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와 처음으로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야 하는 시간은 바로 그 순간이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해야 하는 거죠.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수행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단계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순서에 상관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수행단계로 우리를 구속한다든지 또는 뒤로 미루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꽃피우기의 모든 단계를 항상 다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다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더 공식적인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 그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항상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그 수행의 행동지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꽃이 피었어요
- 미첼 래트너

나는 2008년 아내와 함께 프랑스 남동부의 르앙벨레에서 스페인 북서부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수천 킬로 미터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7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걸었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카톨릭 교회에 따르면 이 길은 세인트 제임스의 유물이 안치되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1,200년동안 이용해온 코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배낭에 오직 필요한 것만 넣고 가볍게 여행을 시작했어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짐을 꾸리고 아침 식사 후 걷기 시작했어요. 아침 나절에 우리는 유치원 서클 타임과 플럼 빌리지의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시간의 혼합같은 아침 조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인사를 나누며 노래를 불렀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격려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앤 마리는 그녀가 가고 싶어하는 교회에 내가 기꺼이 들러준 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해 하기도 했고 또는 전에 우리가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한 후에 우리는 참회와 슬픔도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한 행동이나 하지 못한 행동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느낀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참회와 슬픔은 감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나 행동과 관련이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특히 보고 싶어 했던 박물관 문이 닫혔을 때와 같은 슬픔을 서로 나누는 경우도 있었죠.

흔히 이러한 우리의 나눔은 오래된 습관, 어린 시절의 상처 또는 간절한 소망에 대한 기나긴 대화로 이어졌어요. 우리 앞뒤로 길이 수십 마일씩 뻗어 있었지만 우리는 조급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우리의 이러한 아침 조회는 때때로 몇 시간씩 계속되기도 했답니다.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도보여행을 즐겁게 만들었어요. 비록 우리가 28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결코 이 여행 동안에서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가깝게 결속되어 있지는 못했거든요. 우리는 3개월 동안 하루 24시간 내내 곁에 있었습니다. 하루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작은 상처와 고통이 빠르게 치유되었고, 잘못이 있을 때는 서로에게 바로 사과했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삶의 경이로움과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매일 매일 깊어졌답니다.

가족에게 마음에 꽃피우기를 소개했어요
- 존 무어

내 여동생과 아버지는 함께 휴가를 보내면서 심각한 논쟁을 벌였는데 그것으로 인해 엄청난 대립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해외에 살게 된 이후로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처럼 다정한 부녀사이로

갖가지 감정을 직시해
긍정적 발현으로 유도
마음을 한송이 꽃처럼
아름답게 사용해 가자

지내지 못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들이 서로 만나기를 원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었어요. 나는 어머니와 남동생 부부에게 뿐만 아니라 여동생과 아버지에게도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는 내 감정을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나는 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꽃에 물을 주면서 어려움과 참회의 마음을 부드럽게 전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아주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했죠.

그들이 내가 한 방법과 같은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대화는 그들이 서로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관계가 치유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후 지속적인 만남의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마음의 꽃에 물을 주었어요
- 애니 마혼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마음챙김 여름 캠프의 일환으로 마음의 꽃에 물주기 수행을 했습니다. 매주 캠프가 끝날 때 어린이들과 카운슬러들이 원 안에 꽃을 놓고 둥글게 앉습니다.

우리는 마음 꽃에 물 주기 과정을 설명하고 난 후 지난 주부터 함께 지내온 다른 어린이들 및 어른들과 함께 각각의 참가자들에게 지정된 친구를 칭찬하거나 감사를 표현하도록 했죠.

어린이들은 준비가 되면 일어나서 칭찬해 주고 싶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꽃을 그 상대방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 후 그 사람이 왜 고마웠는지 말했어요. 이 일이 끝나면 그는 꽃을 다시 중앙에 갖다 놓고는 본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 수행은 매우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한 예로 1년 동안 캠프 회원으로서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존과 인기가 많은 소녀 중의 한 명인 릴라가 친구가 되었어요. 이 경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존은 대체적으로 친구들 특히 소녀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릴라가 존에 대해 높이 평가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존은 뛸 듯이 기뻐했죠. 나는 릴라가 마음의 꽃에 물 주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존같이 긍정적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도 그녀는 발달상으로 지연된 다른 아이들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멋진 소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손자를 키우며 마음에 꽃이 피었어요
- 레니스 리옹

매일 나는 손자와 함께 이야기책을 읽고 나서 아이의 등을 문지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너를 안전하게 지켜 줄 거야." 그러면서 녀석이 잠들 때까지 뺨과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하지요.

이 귀여운 손자의 탄생과 함께 나와 나의 가족은 어두웠던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한 살 때 이혼을 했고 한 부모 가정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런 이혼의 외상으로 삶에 대한 나의 공포감은 점점 깊어져갔고 아이들에게도 소홀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엄마가 바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손자 마테우스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이 아이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게 되었죠.

나는 손자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퉁명스런 말투도 쓰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손자를 향해 공격적으로 폭발했을 때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기저귀를 갈던 때였어요. 갑자기 마테우스가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손을 뻗어 내 위로 올라와서는 내 팔을 갑자기 물어 버렸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손으로 손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하게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따끔했을 거예요. 마테우스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때부터 우리의 관계에는 변화가 왔답니다. 나는 손자를 안아주면서 계속해서 속삭였죠.

"미안하다, 마테우스야. 정말 미안해."

그날 저녁 나는 법사스님이 가르쳐주신 마음에 꽃피우기가 생각났어요. 첫째는 꽃에 물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지게 뭔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참회하는 것이죠. 셋째는 비슷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나는 손자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주었습니다.

마테우스는 밝게 응답했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더 읽어 주세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마테우스가 집에 왔을 때 아이가 나에게 부탁하더군요.

"할머니께서 화나셨을 때는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마테우스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나도 좀 화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에게 "내가 지금 화가 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말하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린 손자가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통찰력이 생길 때까지 이것을 여러 번 관찰했습니다.

이제 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의 분노여,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최근에 마테우스를 내집 침실에 눕혀 하룻밤 재워야 했는데 그때 녀석이 나에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모든 것이 제 마음 안에 있어요."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구나"라고 나는 대답했죠. 나는 마테우스에게 하나의 소중한 선물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나는 법사스님들의 가르침을 항상 소중히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저자 : 찬콩 스님 〈사유수 펴냄〉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체법, 석일두, 석혜천, 석혜암, 석진공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의전원장 석법도 어산장 석도암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성덕 감찰부장 석성현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회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오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사서국장 석성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부장 석지현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현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홍보부장 원명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경기부장 자운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전남부장 혜명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전화 02)303-5612



대행 스님

여러분은 진짜 자기 주인공만 불들고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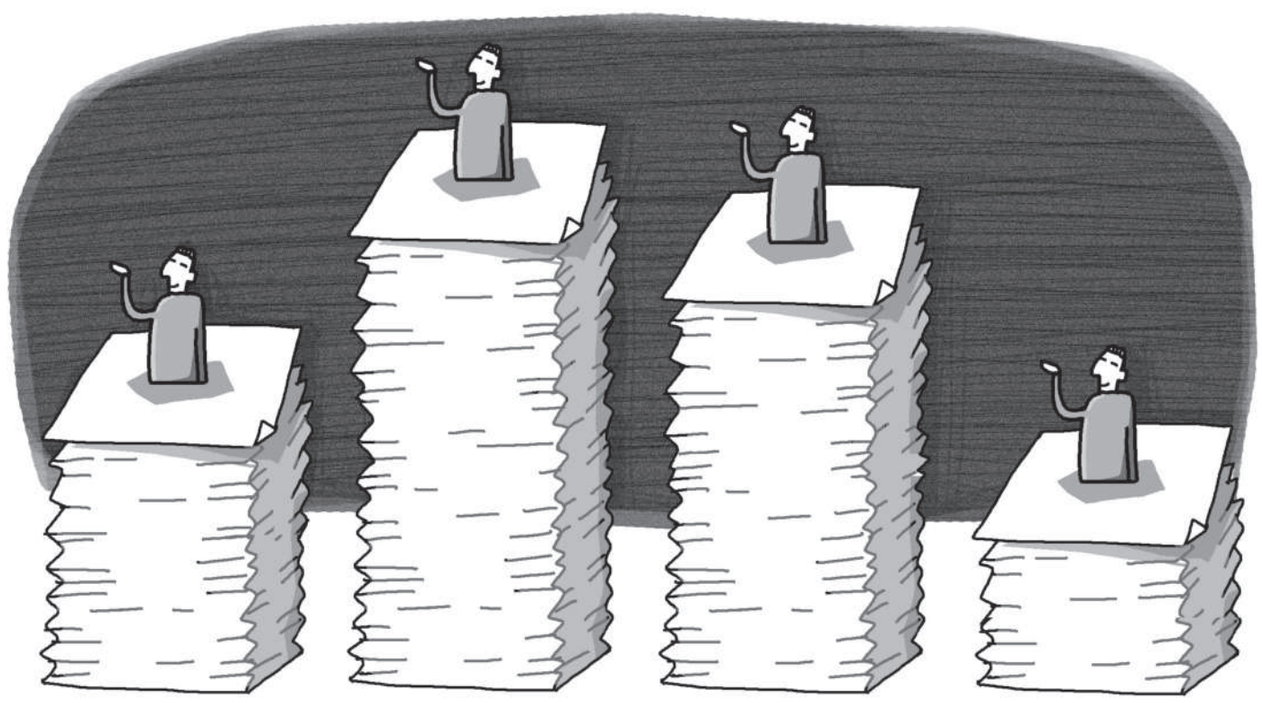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기뻐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진리는 어느 사람이든 다, 나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한 진리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불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보이지 않는 데서나 보이는 데서나 서로 말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예요. 일체가 혼자, 독불장군은 없죠? 마음의 인연줄이라는 줄은 보이지 않아요.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못 보지만 불이 들어오는 거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죠?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인연줄도 역시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주 법계라고 하죠. 그거는 이따 이어가고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불바퀴의 근본이, 우리가 수십억 겁을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한다면, 지수풍(地水風) 세 가지가 서로 암흑에서 휘적거리고 서로 만나서 뭉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바로 온기가 생겨서 광(光)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광력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겼죠. 그래서 지수화풍 그게 원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도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흙과 물을 개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다 구워서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지수화풍으로 등장을 한 거죠.

불교라는 것이 너무 엄청납니다. 서로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이 우주의 섭류가 전체의 진리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떨어졌어도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차원에 따라서 이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고 저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모두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세상의,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도 서로 교류를 하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교류를 하고, 핀 꽃들도 서로 대화를 하고 나무들도 무정물도 생물도 식물도 다 서로 대화를 하고 돌아갑니다. 대화를 하고 돌아가는 게 즉 '교'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풀포기 하나도 생명은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외국에 가니까 블랙홀이라고 합디다. 작은 거든 큰 거든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불바퀴라 이겁니다. 지구가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삶에 의해서 생활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잔다 깬다, 일한다 앉는다 선다, 변소에 간다 먹는다 하는 것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도 고정됨이 있습니까?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죠, 만남도 고정됨이 없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쉴 사이 없이,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그렇게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주의 근본도 우리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세상살이 만사가 다 우리들 마음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새삼스러워하거나 거짓으로 알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만나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말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아홉 살에 남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엄마 없는 두 살이 된 아이가 있고 재혼한 부인이 어린애를 낳아서 그 나이가 된 아이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 없는 아이는 내가 맡고, 한 아이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맡아 가지고 있는데 밤이면 울고 그러니까 항상 등에다 업고 잠을 재웠어요. 어린애가 울면 같이 울고 그랬죠.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때 일제 시대 때는 물 한 지게에 고련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 전에 두 지게씩이죠. 그때는 먹을 것도 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 빠지면 먹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남의 집에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신발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게다가 다 닳아 빠져서 반쪽 남은 거를 신고 물을 길러 가니까 이게 미끄러워서 툭하면 넘어지죠. 그래서 거기다가 새끼를 질끈 매 가지고 아홉 살 먹은 소녀는 그렇게 지냈더래요. 물지게를 지는데 하루 아홉 지게씩을 져 와야 그 집에서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탓도 할 수 없고 남의 탓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각을 잘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바로 상대가 없을 거예요. 가정도 없고 상대도 없고 이런 둥지도 없고 잘하고 잘못하고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부딪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했든 못했든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생긴 탓이죠. 남을 나무라기 이전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수십억의 생명들, 모습들,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그렇게 인연이 된 줄 아십니까. 그 의식들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부모에게는 몸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자 난자와 나의 영혼이, 즉 삼합이 한데 합쳐져야만 인생으로 화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과거에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안 지었든지 그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자기의 영혼에 부착이 돼서, 모두 한데 합쳐서 이렇게 인간 하나가 됩니다. 그럼 그 과거의 업은 지나갔으니까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몸뚱이 속에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몸뚱이 속에 생명과 의식, 모습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그 자체의 의식들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러죠.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그 여러 의식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여러분의 숙명통에서, 즉 컴퓨터에 입력이 됐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가지고 나온 업식이, 그 의식들이 그만 여러분을 충동질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하나가 '이럭하라' 하면 이럭하고 '저럭하라' 하면 저럭하고, 화가 나게도 하고 화가 안 나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꾸 충동질합니다. 수십억이 들어 있으면서 차례차례로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나올 때 누가 될 일이라면 '야, 이렇게 해서 돼? 내 영원한 친구여! 이렇게 이끌어 가서는 안 되잖아.' 하고 거기다 맡기고 '잘 이끌어 가 봐. 좀 더 삶에 보람이 있고 자유스럽고, 광력으로써 창조력을 갖게끔 해 줘 봐.'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세요. 또 안 되는 거라면 되게끔 거기다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한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잘 이끌어 줄 수 있고, 아프면 병이 낫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니까요.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 끌고 다니는 거 못 봤죠? 운전수는 위로는 기름을 넣고 아래로는 차를 끌고 다니죠. 그렇듯이 그 운전수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죠. 마음의 주인이 있으니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기고 거기서만이 잘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안 되게끔 하는 것도 거기다. 그러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라는 거죠. 안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또는 잘되게끔, 싱그럽고 내 마음이 참 잠잠해지고 아주 좋게 될 때는 감사하게 거기 맡기고요.

자기 마음의 주인밖에 없어요. 어디 믿을 데가 없어요.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또는 스님이나 신부,

☞ 22면으로 계속

2022년도 상 반 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4)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에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지 원 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월) ~ 5월 31일(화)**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7월)
   → 지원금 입금(7월 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군 복무 중인 스님
7.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6(2022)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삼 혜**

마음이 있어도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목사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고깃덩어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근본을 믿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그 근본, 한마음 주인공!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준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의 주인만이 이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깥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찾는 것은 기복이고 미신인 것입니다.

바깥으로 찾는 것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이름일 뿐이니까요.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으니까 나부터 알아야죠. 내 집부터 전화를 놔야 남의 집에서 전화도 오고 전화도 할 수가 있죠. 내 집에 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전화올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으면 그 자리에서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의 진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식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기가 나쁜 짓을 했든 좋은 일을 했든 과거에 살던 그 차원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현실에 그렇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충동질한다고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스려서 '주인공!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길을 잘 인도해서 빛나게 살게 해.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서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공동묘지에 가 보세요.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남자 여자, 늙고 젊고 그것을 막론해 놓고 영령입니다. 그대로 영령이 돼서 수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애쓰는 것이니 더욱 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죠. 마음은 체가 없는 반면에 차원이 높게 어디든지 창살을 벗어나서, 이건 '이 방통 안을 벗어나서' 이 소립니다. 어디든지 마음은 갈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가고 올 수가 있는 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오신통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그 업식을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입력된, 즉 시쳇말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카세트에 여러분이 살던 노래를 하나 가득 넣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카세트에다가 지금 현재의 노래를 다시 넣었을 때는 앞서의 노래는 다 없어졌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악업 선업은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한테 모든 거를 맡겨 놓으세요.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는 집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를 영원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끌고 가는 그 자체, 그것이 과거도 끌고 가고 지금 현재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못 냈기 때문에 악과선이 두루마리로 돼서 입력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의 만남이 있는 것도 거기에서 순종이 현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카세트에 담긴 것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새 마음으로, 즉 말하자면 '마음의 주인! 너밖엔 나를 이끌어 갈 수 없어, 영원한 친구!' 하고 모든 것을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영원한 친구라고 해도 돼요. 주인공이 영원한 친구니까요. '영원한 친구! 너밖에 나를 이끌어 갈 수 없어. 너밖에 나를 돌봐 줄 수 없어.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빛나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 하는 거는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다, 이 세상에 난 거하고 뭐, 똥 누는 거니 자고 깨는 거니 모든 거를 거기다 맡기고 다 거기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자기가 자길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믿어야지, 바깥으로 부처님이니 하나님이니 온통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어요. 자기 마음의 주인은 영원히 이끌어 주는 주인입니다. 진짜로 자기 내면세계에서 찾으세요. 내면세계를 믿으세요. 내면세계에서만이 여러분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카세트에 녹음하는 것과 같아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훌떡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지어서 '나는 그렇게 못 한다' 이렇게 하시지마는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몸뚱이로 문을 통해서 다니는 자는 소인이요 중생이요, 문을 통하지 않고 벽이나 봇장이나 아무 데로나, 마음대로 다니는 자는 바로 부처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내 탓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탓이다.' 그러고 '한마음 주인공! 당신만이 얽히고설킨 이것을 다 풀어 줄 수 있어.' 하고, 울더라도 거기를 붙들고 울어야만 합니다. 이 말 저 말을 끌어다가 하면 오히려 더 산란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 자기 주인공만 붙들고 사세요. 주인공! 자기 영원한 친구! 여러분이 그 도리만 찾는다면 여러분의 앞날이 참 밝아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영원한 자기 친구를 찾아서 몸뚱이의 자유권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권을 얻을 때 몸뚱이는 스스로 자유권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안팎이 다 잘될 것입니다. 마음도 바꿔질 수 있고 가정도 그렇고요. (중략)

마음이 있다고 그래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돌과 돌을 잡고선 탁 치면 거기서 불이 번쩍 일어나는데, 예전에 그걸 가지고 불을 켜고 살았죠? 부싯돌이라고 그랬죠? 지금 진리가,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단 얘깁니다.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올 수 없고 인연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될 수가 없죠.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그래서 인연의 법칙은 그대로 발전의 원천인 겁니다.

어떠한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내 탓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탓이다.' 그러고
'주인공! 당신만이 얽히고설킨 이것을 다 풀어줄 수 있어.' 하고
울더라도 거기를 붙들고 울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신계와 육신계가 그냥 합일해서 상응하고 작용하고 돌아간다면 큰일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넓혀서 생각을 내야 되겠죠. 넓히는 데는 마음은 체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고, 체가 없는 나가 체가 있는 나를 끌고 다닌다는 그 믿음을 꼭 가져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너부터 알라' 고 했고 사대 성인들이 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서 세상을 알라' 이랬거든요. 자기를 모른다면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남에게 길을 리드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부터 알고 나부터 믿고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현실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자문자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상징으로 무궁화꽃에다가 횃불을 해 놓고, 횃불 위에다가 서로 입을 대고 있는 비둘기를 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즉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이 세상 모두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같이 상응을 해야 발전도 하고 창조력도 기르고 창조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도 물리학도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 떠나서는 없습니다. 생활이 그냥 과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과학입니다. 과학이든 철학이든 어떠한 거든지, 마음의 한 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한 점!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마음의 한 점은 우주를 싸고도, 바로 삼천대천세계를 싸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떡 하나를 놓고 이 세상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남았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타의에서 구하는 것은 다 공덕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정신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공을 못 합니다. 이 세상 이치를 잘 보십시오. 깡통이면 깡통끼리 모이고 그러듯이 인간도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모이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모이고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점에 가 보십시오.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배는 배대로 놓고 채소는 채소대로 놨습니다. 그거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일거일동 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데서도 마음의 차원대로, 차원이 1차원은 1차원대로 모이고 2차원은 2차원대로 모입니다. 새들은 새들대로 모이고 인간은 인간대로 모이고, 짐승은 짐승대로 모이고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모이고, 삼라만상의 모든 생물이 다 끼리끼리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한 가지를 잘 쓰면, 주인공에다 맡기고 잘 다스리면 차원이 그렇게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즉 평등공법으로서의 자유권을 얻을 수 있고 수레공법으로써 자유자재할 수 있는, 중용을 할 수 있는 묘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상징으로 해 놓은 것은 마음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마음을 한생각 내면 불이요, 불이 일어나게 되면 사방에 모든 세상을,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 불바퀴와 같으니까 모두가 같이 중용을 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천지를 한마음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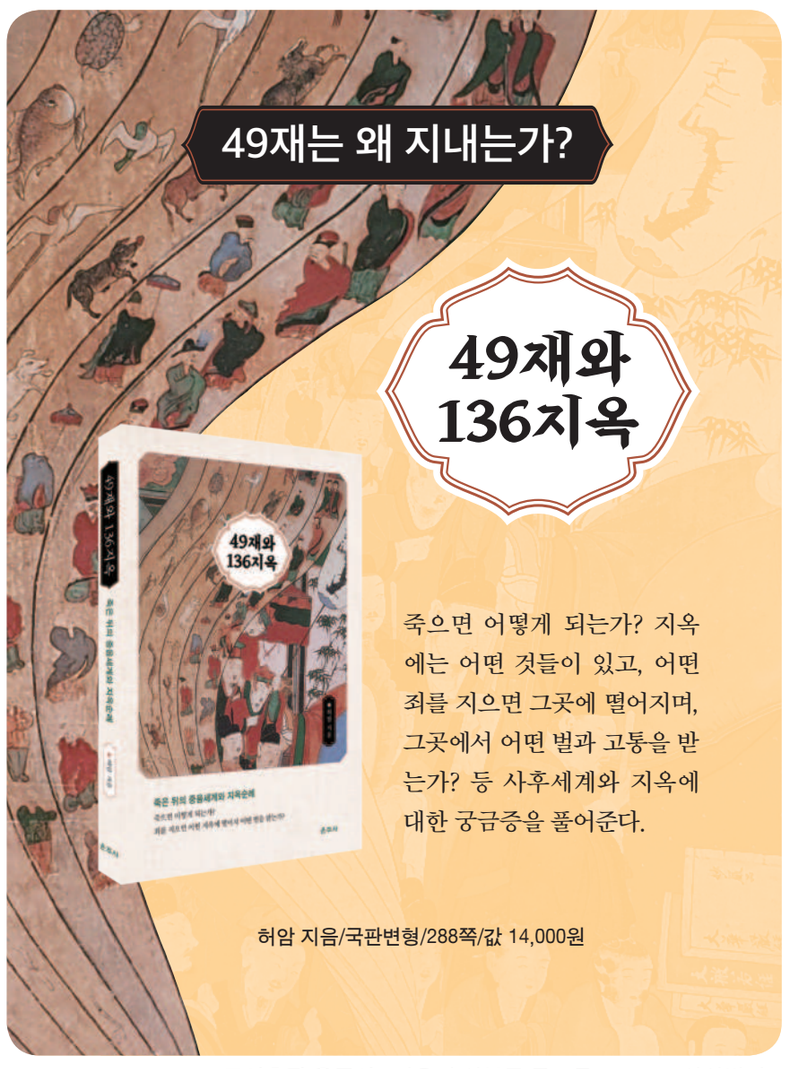
여러분, 비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또 내 몸뚱이를 숨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떳떳하게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알 바가 있을 겁니다. 마음의 도리를 공부한다면 마음은 이 세상 어디고, 수억겁이 걸리는 먼 데도 한 찰나입니다. 암흑 속에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서 광(光)이 일어나고 그래서 은하계가 생기고, 또 그것이 생겨서 태양계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면 또 은하계도 많아지고 혹성도 많아지고 별성도 많아지고 이러는 원인이 우리네 마음의 그 불씨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긴 얘기와 짧은 얘기를 엄청나게 한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이게 정말 이럴까?' 하고 뒤로 물러설까 봐 말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한 것만은 다 이해해서 듣고, 모든 것은 바로 각자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이 세상이 없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각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내 가정도 상대도 세상도 모두가 무효라는 거, 여러분으로부터,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긴 것도 여러분의 마음 탓입니다. 자기가 마음으로써 끌고 다니는 육체를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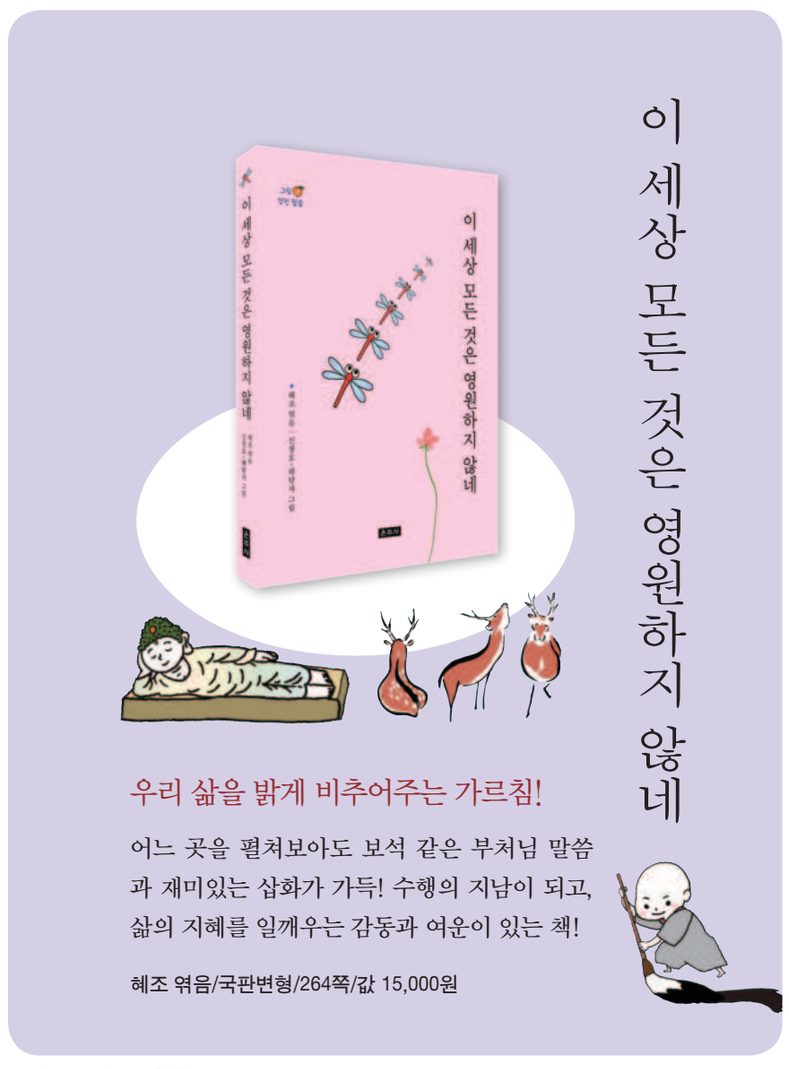
그러니까 인제는 좀 더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내 마음의 주인, 영원한 친구! 그 친구가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갈 것이다. 나를 자유스럽게 만들 것이다. 나를 발전하게 할 것이다. 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것이다. 모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한마음의 주인공에 전부 가설이 돼 있으니까 둘 아니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믿으세요. 모두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것도 알고 부모라는 것도 아는 그 마음의 줄이 바로 얽히고설켜서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모든 주위의 환경도 전부 자기 탓이라고 돌리시고, 자기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 '주인공!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지 마라!' 하고 거기다가 맡기세요. 진짜로 발전하고 경험을 얻고 실험하고 체험하고 나가시려면 꼭 내 주인공을 믿고 꼭 거기다 맡기시고 일임하고 주인공과 더불어 자문자답하시고, 울더라도 주인공을 잡고 우세요. 그런다면 좀 더 멋있는 살림살이가 형성될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5월 20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천안 소년원생들에게 설하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현불 논단

수행, 안락한 삶 되찾는 시간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안거는 스님들만의 수행기간 아냐
불제자 함께 깨달음 향해 가는 것
그 자리서 자신 바라보면서 수행

자기 자신 향한 마음이 가장 중요
역설적으로 바깥도 함께 바라보면
내 마음도 연등 같이 세상을 밝혀

5월의 따스함 속에서 3년 만의 부처님오신날을 환희롭게 보내고 다시 석 달간의 하안거가 시작됐다. 총림을 비롯한 여러 수행처에는 올해도 여법한 안거를 보내기 위해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도량을 이루었다. 불교에서 '안거(安居)'라는 전통은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져오던 가장 오래된 의식이며 수행기간이다. 과거에는 우기 때 궂은 날씨를 피해 한곳에 머물며 수행을 하던 것이 점차 발전되어 현재와 같이 여름, 겨울 석 달간 집중수행을 하는 기간으로 정착되게 됐다. 안거 전까지는 각자의 생활이나 만행을 하던 수행자들도 이 기간에 맞춰 자신들이 머물 곳을 정해 방부를 넣고 같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도량을 이루고 용맹정진을 이어간다.

이러한 안거는 결코 출가한 스님들만의 수행기간이 아니다. 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이다.

불교에서는 '본래자리'라는 가르침을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각자가 자신의 모습과 역할을 바르게 알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지금을 바라보며 수행하는 것이 본래자리의 의미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본래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다. 다만 그 속의 내 마음이 흔들려 나를 어딘가로 떠나보냈던 것이다. 그 마음은 내 주변을 항상 의식하며 흔들리고 다시 나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끼친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의지와는 다르게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다시 희망이 꽃 피는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의 내 마음을 향한 마음, 그것을 불교에서 '발심(發心)'이라고 한다. 내 걱정, 내 불안, 내 꿈, 내 생각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내 마음에서 생겨나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기에 그것을 여실히 바라보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끌어안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임제록〉에 '적육단상무위진인(赤肉團上無位眞人)'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붉은 몸뚱이에 하나의 무위진인이 있다. 항상 그대들의 얼굴을 통해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자는 잘 살펴보아라"라는 내용이다.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금 살펴보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찰나도 그 관계성을 떠나 존재한 적이 없다. 이러한 관계성이 바로 인과의 연기법이고, 그 안의 주체가 마음인 것이다.

즉 마음은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순간도 타인이나 외부와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내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내 안과 더불어 바깥도 반드시 함께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내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연등의 불빛과 같이 가까이는 내 발밑의 어둠에서부터 멀리는 우리의 다가오는 내일까지의 모든 곳을 밝히며 끝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다.

다시금 되돌아온 하안거 수행기간 동안에 지난 시간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지고 놓쳤던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고 다시금 본래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우리 옆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자. 그들의 지금 모습이야말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다.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면 그건 나의 근심인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 다시 환한 미소와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을 때 나 역시도 그런 날을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보다 웃을 수 있고 보다 기대할 수 있는 일상을 살도록 이번 하안거에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안심되게 머물며 안락한 삶을 하루하루 되찾는 수행의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고난 함께한 유랑 승려

비췻빛 바닷길을 따라 동쪽으로 걸어가면 요즘 핫한 제주의 밀라노라 불리는 월정리 마을과 연이어진 행원리 마을이 나온다. 카페가 즐비한 지금과는 달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래바람으로 살기 힘든 곳이었다. 고난이 있는 곳에는 위안하는 이가 있으니, 당에 좌정한 중의 대사다.

행원마을 아래 바닷가에는 다섯의 신이 좌정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중의 대사이다. 대사는 강원도 아버지와 철산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의 절이 다 파손되었다.

대사는 배를 타고 홀로 제주로 왔다. 옛날 큰 항구였던 압선도(지금의 조천)에 배를 타고 들어와 동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뒷개(지금의 북촌) 정지폭낭 아래 백일 간 머물렀다. 동네에서 김첨추 영감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열어 대사가 구경을 가니, 돼지를 딸린 국물에 소면을 말아 주었다. 이에 중의대사는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여 다시 동쪽으로 떠났다.

월정 비석거리를 넘어 행원 청천이 동산에 도착하였다. 중의대사는 이곳 역시 낮에는 흙이슬, 밤에는 밤이슬을 내려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생각했지만, 누구 하나 나타나지 않아 자리만 지켰다. 이때 오분작할망이 구덕을 들고 나타나 인사하였다. 할망이 "어느 절당에 대사입니까"라고 묻자, 대사는 강원도에서부터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망이 중의대사를 모시고 남당아래 문씨고냥 너븐돌에 가니 "함께 좌정하시지요"라고 했다.

가을이 돼 조와 밭벼쌀이 많이 달려 고개를 숙이고 잎새는 바람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풍운이 조화롭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곡식이 모두 쓰러지고 피해를 보게 되어, 마을 어른들과 유지, 남녀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하는데, 한 사람이 "남당에 있는 대사에게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이 가서 "이 조화를 풀어줍서"라고 간청하자, 중의대사가 조와 밭벼쌀을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나무 채에 털어 돌방에 찍어서 돌래떡을 만들라, 그리고 10월 대보름날 상48단골 중38단골 하28단골의 집집마다 떡을 올려 제를 지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니 농사가 잘되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이후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을 지나 불교 탄압이 심해지자 승려들은 피안의 거처를 찾아 중앙에서 먼 곳으로 떠돌다 제주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제주에서도 박해는 이루어지고 때마침 농사도 어려웠는데 삼정은 문란했다. 이 삼정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것은 환곡이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아 생활을 더욱 고달프고 가난하게 했다.

이런 환경에서 승려들은 고난을 함께 했다. 이형상목사에 이르기까지 제주 전역의 사찰은 훼철되어 이렇다 할 승려의 거처와 대접이 없었다. 승려들은 소박한 거처를 마련하고 살았다. 한편 제주민들은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척박한 땅과 변화무쌍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았다. 그래서 제주민들에게 의지하고 위안받던 승려의 거처는 당과 같이 여겨졌을 것이다. 여기 행원리 승려는 그들에게 돌래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바다의 변화를 알려주며 가난을 나누며 함께 이겨나가는 삶의 길잡이가 돼 주었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한국불교문화 세계화 응원한다

유네스크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와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등 한국불교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행사가 해외서 잇달아 열리고 있다.

조계종과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함께 5월 19일부터 파리와 낭트 등지에서 한국관광문화대전 불교문화 특집 행사를 개최 중이다. 오는 9월 16일까지 '빛나는 색의 불교 축제, 연등회' 특별전이 열린다.

〈직지〉 불어 번역본을 발간한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5월 25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직지 발간기념식'과 대중강연회 등 홍보 활동을 펼친다. 〈직지〉는 선불교 깨달음의 정수를 뽑아 수록한 불교유산임에도, 그동안 그 가치에 대해 인쇄기술과 서지학적으로만 부각돼 왔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직지〉 번역본 발간은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5월 12일부터 열린 '테이스트 오브 파리'에 참가해 한국의 사찰음식을 세계인에 알린 점도 주목할 만하다. 5월 17일에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르꼬르동블루 파리본교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따라 르꼬르동블루 본교 채식전문과정(Plant-Based Culinary Arts)에서 사찰음식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K팝부터 드라마, 영화, 웹툰까지 그 영향력은 나날이 확대되는 중이다. 이제 문화는 세상을 이끄는 힘이다. K-문화 전성시대에 한국 불교문화는 다양한 원천소스를 지니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의 세계화는 곧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직결된다. 한국불교문화의 미래 지향적 발전은 현 후학들의 화두이자 숙제다.

비구니 수행관 운영에 관심을

서울에서 학업을 이어가거나 포교 일선에 뛰어든 비구니 스님들의 보금자리였던 비로자나국제선원 나란다수행관이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식이다. 빌라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나란다수행관의 전세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로자나국제선원도 이전불사로 인한 대출에 코로나로 사찰 재정 여력이 없는 형편이기에 외부에 까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젊은 스님들의 전법 포교, 혹은 학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 대학 기숙사 등이 있지만,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학비까지 벌어야 하는 스님들이 적지 않았다.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자 감소로 위기에 처해있다. 출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전법 포교와 수행, 학업에 젊은 스님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있다.

과거에는 스님들은 출가동기와 상관없이 일정의 행자 수습 과정과 강원 교육을 거친 후 선방에서 참선에 전념하거나 사중 소임을 맡아 정진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수행을 하면 되었다.

하지만 시대가 다변화되고 스님들에게 요구하는 역할도 다양해졌다. 사찰에서만 거주하는 스님들 뿐만 아니라 교수, 학자, 언론인, 상담가, 복지가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업과 전법 포교에서의 터전도 다양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불교계가 이번 비로자나국제선원의 나란다수행관 존폐 위기를 보며 포교와 전법을 하는 사찰이, 그리고 학업과 정진을 할 수 있는 수행관이 필요한 까닭을 인지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귀의불 양족존 귀의법 이욕존
(사)대한선불교 원효종
종정 성우 자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의 생명 가진 모든 것에
함께 하기를 기원 합니다. 사성제(고.집.멸.도.)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에서 집착의 멸함을 설 하셨습니다.
대중은 보배와 같이 지니고 일상의 수행을 합시다.

법어 정정
奉 祝
대한불교 원효종 종정 성우 자윤
귀의불 양족존 귀의법 이욕존
부처님의 광명이 온누리의 생명 가진 모든 것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사 성 제 (고 집 멸 도)
四 聖 諦 苦 集 滅 道

부처님께서는 初轉法輪에서 集의 滅함을 說하셨습니다. 大衆은 鈺과 같이 지니고 일상의 修行을 합시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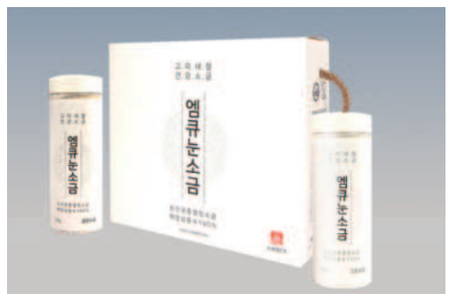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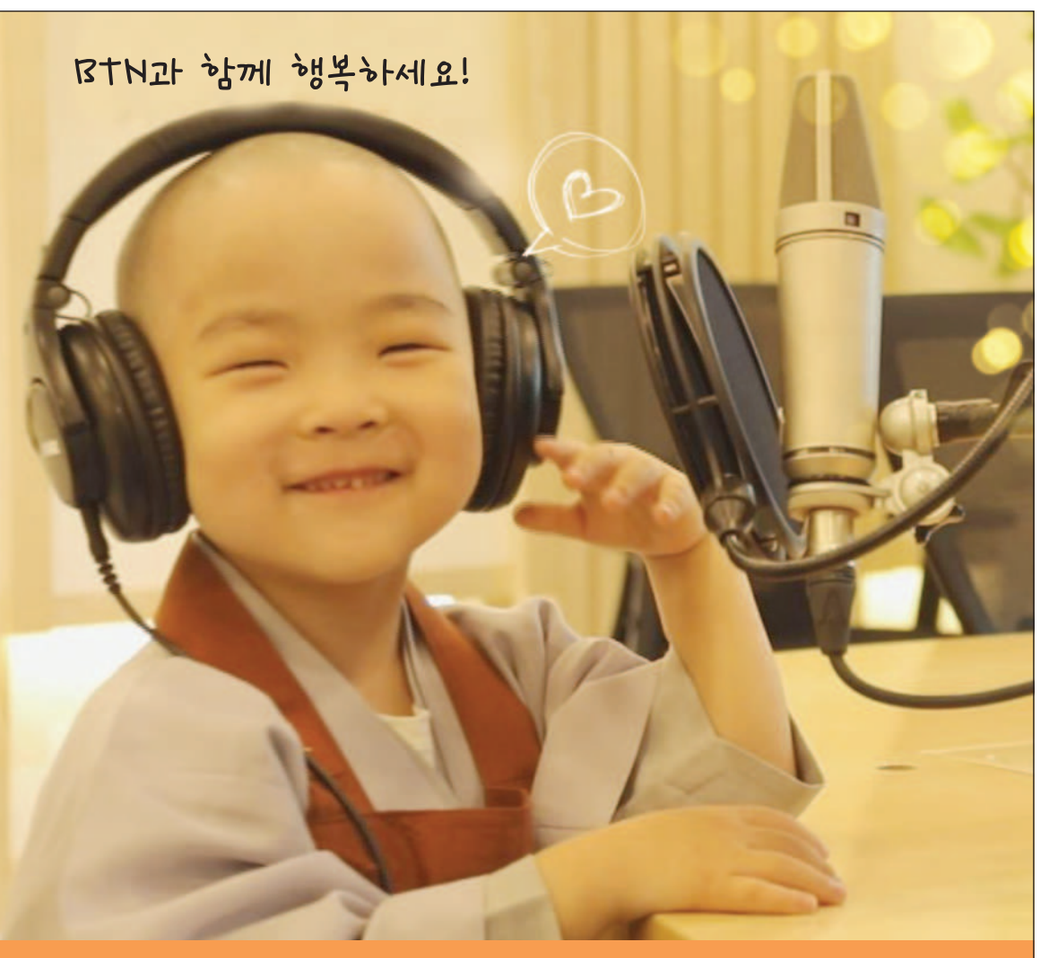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과 함께 행복하세요!



세상을 맑게하는 채널

BTN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GiGA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